

1장

아가서 소개 (아 1:1)

(Introduction to the Song of Solomon)

I. 소개

- A. 이 단원에서, 우리는 아가서에 대한 소개와 아가서를 해석하는 원칙들에 대해 다루게 될 텐데, 이것은 아가서의 큰 그림(전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길잡이’를 제공해 줄 것이다.
- B. 솔로몬 왕은 대략 주전 900년경, 그가 아직 영적으로 타락(우상숭배)하기 전이었던 시기에, 전체 8 장에 이르는 이 사랑의 노래(아가서)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왕상 11:3-4).
- C. 아가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 진다. 아가서 1-4 장, 그리고 5-8 장.
 - 1. 전반부 4 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신부’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기업(유업)’을 누리며 즐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또한, 신부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을 강조한다.
 - 2. 후반부 4 장은, 신부 안에서 누리는 ‘예수님의 기업(유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도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다.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신다(막 12:30). 아가서의 초점은 책의 중간지점에서 완전히 변하게 된다(전환점: 아 4:16 - 5:1).
- D. 아가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8 가지 정도 나온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이 8 가지 예수님의 모습에 신부는 다양하게 반응하게 된다. 예수님의 8 가지 모습은 다음과 같다: 돌보시는 목자(아 1:8),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아 1:12-2:6), 통치하는 왕(아 2:8-9), 안전한(신뢰의) 구세주(아 3:6-8), 거룩하고 열정적인 신랑(아 4:1-15), 고난의 종(아 5:2), 위엄의 하나님(아 5:10-16), ‘소멸의 불’이신 질투의 하나님(아 8:6-7).

II. 아가서에 대한 사명과 여정

- A. 1988년 7월, 주님은 귀에 들리는 육성으로 내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우연히 아가서 8:6 을 읽고 묵상하면서 난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예수님, 주의 ‘사랑의 인’으로 제 마음에 인쳐 주세요.” 그 순간, 나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 본문을 요한복음 17:26 과 연결시켜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제 심령에도 심어 주시고, 제 마음을 주의 불로 인쳐 주세요.”
- B. 주님은 아가서 8:6-7 을 전세계의 그리스도의 지체에게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실 거라 말씀하셨으며, 내 모든 사역이 이 주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 C. 그 날, 아가서를 한번 다 읽고 나서, 난 당황스러웠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아가서에 대한 이해나 즐거움도 없이, 믿음으로 아가서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아가서에 대한 주석들을 많이 섭렵하면서 이제는 약 150 권이 넘는 아가서 주석들을 소장하게 되었다. 내가 권하고 싶은 것은, 아가서에 나오는 상징적인 용어들에 너무 겁먹지 말라는 것이다.
- D. ‘신랑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는 곧 아가서 연구의 기쁨과 즐거움,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

III. 연구 목적: 요한복음 17:26 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삶

- A.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것을 기도하셨다. 아가서의 공부 목적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다.

26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26)

- B. 아가서는 세대를 초월하는 사랑의 노래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키울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보여준다. 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성숙한 사랑을 키우는 데 필요한 ‘핵심 원칙들’과 ‘실제적 현실들’을 다룬다.
 - 1. 올바른 아가서의 이해를 통해,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다루시는 문제들을 찾는 데 도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다양한 여정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을 받게 된다.
 - 2. 인생 전반에 걸쳐, 우리는 아가서에 나오는 ‘시험’과 ‘축복’의 연속을 반복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아가서에 나오는 두 종류의 계절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나 자신도 아가서를 보며, 같은 ‘계절’을 여러번 반복하게 됨을 보게 된다.

IV. 아가서 해석 방법

- A. **자연적 해석:** 솔로몬 왕과 그의 신부, 술람미 여인의 러브 스토리로, 이 관점은 부부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높여주는 성경적 원칙들을 강조한다. 이 해석은, 특별히 지난 100여년간 사랑을 받아왔으며, 많은 주석들이 배출되어 왔다. 자연적 러브스토리로 아가서를 해석할 때, 보통, 두 가지의 기본 즐거리를 가진다.
 - 1. 먼저, 잘 생기고 부유한 솔로몬 왕의 구애를 받으며, 점차적으로 그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

- 2. 둘째, 마을(수넴)에 사는 가난한 목동 소년을 깊이 사랑하는 거룩한 솔람미 여인의 이야기. 마을을 지나던 솔로몬 왕은, 마침,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던 여인을 주목하게 되고, 곧 그 여인의 아름다운 외모에 반하게 된다. 왕은 가난한 목동을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 그렇지만, 솔로몬 왕의 부와 능력의 유혹에도, 여인은 가난한 목동소년을 향한 일편단심을 지키게 된다.

B. **영적 해석:** 이 관점은 자연적 남녀의 사랑이야기 뒤에 숨겨져 있는 ‘영적 진리’를 보는 상징적 해석으로, 연구과정 전반에 걸쳐 우리가 사용할 접근방식이다.

- 1. 아가서는 부부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사랑의 여정으로 상징적 해석을 적용할 수 있다.
- 2. 우리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아가서를 읽어야 한다. 이 해석은 지난 3000 년동안 (솔로몬이 이 책을 쓴 후로부터) 주류를 이뤄왔으며, 중세시대(12세기부터 16세기)에도 주로 사용되었던 해석이다.

V. 아가서를 통해 높임 받으시는 예수님

A.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자신에 관한 성경본문들을 모두 말씀하시면서 (눅 24:27), 구약 성경 39 권을 하나하나 인용하셨다.

27 이에 모세와 밋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눅 24:27)

B.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씌여 졌으며(딤후 3:16), 성령님은 하시는 모든 일에 예수님을 높이신다(요 16:14). 성령님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충만케 하기 위해, 무서울 정도의 충성심과 질투심을 갖고 계신다(요 17:26).

14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요 16:14)

C. 성령님은 예수님과 깊은 우정을 나누신다. 그들은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으며,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도 영원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경의 주제가 되지 않는 책을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쓰게 하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VI. 영적 해석: 3 가지의 주된 접근방식

A. 아가서의 영적 해석에 있어, 예수님을 높이는 3 가지 주된 접근방법이 있다. 이 해석의 주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서로 약간씩 차이가 있어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자라게 해주는 해석들을 우리는 환영한다.

B. 첫번째 접근은 아가서를 ‘예수님과 나’의 관계로 해석, ‘거룩한 열정’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적 원칙들을 제공해 준다. 우리는 이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진행할 것이다.

- C. 두번째, 예수님과 역사에 걸쳐있는 일반적인 주님의 ‘전체 교회’의 관계로 해석.
- D. 세번째, 신랑 하나님과 그분의 신부인 ‘이스라엘’의 관계로 해석(렘 2:2; 호 2:16-20; 겔 16:8-14, 20-21, 32, 38; 사 54:5-6). 구약시대 서기관과 오늘날의 유대 랍비들이 주로 채택하는 접근방식이다.

VII.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주님의 신부다.

- A.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신자들은 모두 예수님께 ‘약혼’된 자들이다. 유대 전통에서, 약혼한 커플은 법적으로 결혼한 것과 같아, 만일 약혼을 파기할 경우, 이혼 절차를 거쳐야 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약혼시킴)이로다(고후 11:2)

- B. 결혼의 완성은 ‘다가오는 시대’에 일어난다(계 19:7).
7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계 19:7)
- C. 우리가 인용하는 주님의 신부는 성숙한 사랑을 지닌 모든 자들을 포함한다.
- D. 그리스도의 신부는, 성숙한 사랑이 충만했던 역사상의 모든 교회라고 나는 믿는다. 부활을 통해, 성령님은 모든 교회안에 하나님 역사의 완성을 가져오실 것이다. 다시말해, 모든 자들은 성숙한 신부로 예수님과 관계하게 될 것이다.
- E. 첫째, 신부가 소유하게 되는 성숙함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일의 ‘궁극적 열매’다.

31...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33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5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 (롬 8:31-35)

- F. 두 번째, 천국에는 신분계층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오직 마음이 하나된 사람들만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인 것처럼, 주님의 백성들이 서로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부어 주실 것을 기도하셨다.

21 그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 26내가(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 (요 17:21, 26)

- G. 셋째, 우리는 영광중에 계신 주님을 보게될 때, 예수님과 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가오는 시대에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권능이 풀어지게 될 것이다.
2...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요일 3:2)
- H. 넷째, ‘신부’의 부르심은 신부에게 완전히 마음이 빼앗기신 하나님을 통해 확증된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사로잡혀 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구속받은 모든 자들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으시다. 예수님의 빼앗긴 마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더해 지거나 감해지지 않는다.
9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 4:9)
- I. 요약: 신부의 성숙함을 위한 기초는,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중보, 주 영광에 대한 계시, 그리고 우리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

VIII. 아가서 주요 등장인물

- A. **솔로몬왕:** 영적 해석에서, 그는 만왕의 왕이시며, 승리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다.
- B. **술람미 여인:** 영적 해석에서, 그녀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나타낸다. 그녀는 어린 소녀에서, 점차 왕이신 예수님과 성숙한 동역을 하게 되는 ‘신부’로 소개된다. ‘술람미’라는 단어는 딱 한번 나온다(아 6:13). 그녀는 수넴(이스라엘 북쪽)에 살았다.
- C. **예루살렘 여자(딸)들:** 영적 해석에서, 이들은 믿음은 있지만,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자들을 말한다. 그들은 술람미 여인을 보며, 왕이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된다. 이들이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한 사람들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그러나, 여기서는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을 의인화한다).

IX. 전도서와 아가서 비교

- A. 솔로몬은 3 권의 책을 저술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보통, 유대인 선조들은 솔로몬 성전을 비유삼아 이 책들을 인용하곤 했다.
1. 잠언을 성전의 바깥 뜰에 비유했다.
 2. 전도서를 성전의 안쪽 뜰에 비유했다.
 3. 아가서를 성전안에 있는 지성소에 비유했다.

- B.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썼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은 ‘헛되다’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 살아도 인간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 전도서는, 하나님 안에 안식을 찾기 전까지 방황하며 떠돌수 밖에 없는 인간의 삶을 말해준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실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실제로 실속없는 빈 껍데기, 빈 깡통, 빈 강정과도 같은 존재다.
- C. 아가서는 주위환경, 처한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얻을 수 있는 삶의 기쁨을 보여준다. 아가서에서 성령님은 우리 삶의 목표인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 아가서는, 우리의 ‘소멸하는 열정’이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일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충만케 될 수 있는 지를 조명해 준다. 인생의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안에 살아 숨쉬며 살아갈 수 있다.
- D. 전도서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훌륭한 성공을 이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공이 아니면, 궁극적으로 그 성공은 전혀 가치가 없다는 진리를 가르쳐준다. 전도서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영혼을 깨우는 뜨거운 열정으로 아가서 1:5 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다시말해, 전도서는 아가서의 여정을 예비해주는 책이다.
- E. 전도서에서 말하는 세상 철학은 “인생을 즐기려면, 세상의 경험을 더 쌓으며, 자신을 주장하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러나, 아가서는 겸손과 순종,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함으로 삶의 충만함을 누리라고 말해준다.
- F. 전도서는, ‘세상적 성공’을 꿈꾸는 것에 대한 헛됨을 말해주나, 아가서는, ‘하늘(천국)의 성공’을 꿈꾸는 데서 오는 영적 기쁨을 말해준다.

X. 솔로몬의 아가 (THE CANTICLES): 일련의 노래들

- A.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가(the Canticles)라고도 불린다. 라틴어 명사인 “canticum”은 “노래”를, ‘Canticles’는 ‘일련의 노래들’을 의미한다.
- B. 불가타역 라틴어 성서는, 4 세기경 제롬(Jerome) 이라는 사람이 대중화를 위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으로 유명하다.
- C. 불가타역 성서에, 아가서는 ‘the Canticles’ 로 불린다. 다음의 인용들은 같은 의미로 통한다: Cant. 4:9, 또는 아 4:9.

XI. 비유적 해석(알레고리)

23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25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26오직 위에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의 안에서이었던 사람이 살에 의하면 낳아졌던 (갈 4:23-26)

- A. 비유적 해석(알레고리)은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바울은 “비유”를 사용해서 해석한 적이 있다.
- B. 갈라디아서 4:21-31에서 사도 바울은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사용했다.
 - 1. 사도바울이 사용한 비유는 알렉산드리아인들이 사용한 비유(1세기 필로와, 3,4 세기 오리게네스와 크리소스톰)와 큰 차이를 보인다.
 - 2. 알렉산드리아인들은 역사적 정황과 의미를 무시한 채 비유를 사용했다.
 - 3. 고전 9:9-10 에서, 사도바울은 “망을 찌운 소의 입”(신 25:4)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면서, 재정 후원을 받는 전임 사역자들(복음의 일꾼들)에게 적용했다.
- C. 알레고리(비유)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를 두지 않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 허구 이야기다. 대표적인 예로, 나니아 연대기를 들 수 있다.
- D. 알레고리는, 사람 또는 어떤 대상을 통해 상징적으로 진리를 표현하는 문학 형식이다. 알레고리는 진리를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 사용된다.
- E.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하며, 또한, 역사적 문맥에 맞춰야 한다. 다른 부여 설명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접근한다(갈 4:24; 요 15:1-6; 계 11:8; 사 5:1-7; 호 2:1-14; 겔 16; 단 7:2 - 8, 16).
- F. 알레고리(비유)를, 신약성경 전체의 명확한 진리구축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비유적 해석은 우리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2장

가장 위대한 예언적 노래안에 계신 예수님 만나기 (Encountering Jesus in the Greatest Prophetic Song)

I. 가장 위대한 예언적 노래

- A. 아가서는 구속의 역사가운데 가장 위대한 노래다.
솔로몬의 아가라(아 1:1)
- B. 솔로몬은 재능을 겸비한 왕성한 작사, 작곡가로, 약 1005 개의 노래를 지었다(왕상 4:32). 그 중, 아가서는 최고의 노래로 꼽힌다. 그렇기에, 성령님께서 이 노래를 ‘노래들 중의 노래’로 이름을 짓게 감동을 주셨다. 더 위대한 노래가 없기에, 최고의 명예를 가진 노래로 명명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주의 주, 거룩의 거룩(지성소)과 같은 분인 것처럼, 궁극적으로 최상급의 표현인 것이다.
- C. 마지막 때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의 분노를 이기고 승리하면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 주님의 보좌 주위에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은 순교를 당하면서 까지 주님을 사랑한 ‘헌신적 사랑’의 승리자들이다. 그들은 두 종류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데, 하나는 ‘모세의 노래’요, 다른 하나는 ‘어린 양의 노래’다.
- 2**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3**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불러 (계 15:2-3)
1. 모세의 노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출 15:1-21; 신 31:30-32:47).
 2. 예수님은 ‘어린양의 노래’라 불리는 노래를 갖고 계신다. 예수님의 노래는 가장 위대한 노래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성경에서 ‘어린양의 아내’로 소개된다(계 19:7-9; 21:9).
- D. ‘어린양의 노래’와 최고가 되는 ‘노래들 중의 노래(아가서)’가 동일한 노래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 E. 주님이 재림하시는 세대에는 아가서에 대한 큰 관심이 있게 될 것이다.
- F. 성령께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가서를 선포하고, 노래하며, 노래를 짓고, 아가서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세우고 계신다.

- G. 아가서에서 영감을 받아 찬양을 짓는 사람들에게 실용적인 충고 한가지 해주고 싶다. 아가서 내용의 뜻을 해석하지 않고, 본문에 나오는 언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노래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언어가 지니고 있는 상징적인 뜻을 이해 할 때 덕을 세울 수 있게 되므로, 그 언어와 함께 뜻을 노래에 담아 전하도록 하라.
- H. 아가서의 아주 작은 부분을 가지고 노래를 지으라고 제안하고 싶다. 아가서는 성경에서 가장 긴 노래로, “집약된”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아가서 한 두 구절만을 사용, 발전시켜 노래를 지을 것을 권한다.
- I. 하나님께 새 노래를 드릴 예언적 싱어들이여 일어나라! 주님앞에 이 부르심을 감당하며 나아갈 작사,작곡가들이여 일어나라!

II. 아가서의 네가지 특징

- A.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마 22:37). 우리의 마음은 마치 다면체를 가진 ‘다이아몬드’와 같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시적인 애정표현을 통해 가장 감동을 받는 ‘내면’이 있다. 아가서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지에 대한 ‘감성적인 부분’을 강조한다. 우리가 다양하면서도 깊은 감정을 소유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감정들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 B. 아가서의 4 가지의 특징은 사실 성경의 많은 본문에서 발견된다. 아가서의 독특함은 이러한 진리를 담고 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특징들이 집약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데 있다.
 - 1. 첫째,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열정적 사랑과 기쁨에 대한 계시다.
 - 2. 둘째, 예수님의 아름다움, 특별히 ‘신랑이신 왕’ 예수님에 대한 계시다.
 - 3. 셋째,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아름다움에 대한 계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시는 지를 알고 싶다면, 아가서를 공부하라.
 - 4. 넷째, 예수님과 사랑에 깊이 빠져 들어가며, 성숙한 동역을 위해 필요한 원칙들이다.
- C. 감정적, 성(性)적인 상처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는 이 계시들로 더욱 무장해야 한다. 예수님은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매혹시키길 원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원하신다. 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계시를 비춰주는 일종의 ‘광선’과도 같아, 예수님의 마음과 열망을 조명해준다.

III. 3 종류의 기업(유업) – 시 2:11-12

- A. 다윗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세 종류의 유업을, 하나님 앞에 ‘떨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백성이 되는 것으로 기술했다. 이 구절은 ‘성숙한 신부’의 모습을 가장 훌륭하게 표현해 주는 본문중의 하나다.

8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10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11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시 2:8-12)

- B. 다윗은 여기서 구속(redemption)의 세가지 측면을 보여준다.
 1. 떨며 -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위엄과 광채를 보며 떨게된다.
 2. 즐거워하며 -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되는 우리의 정체성과, 십자가가 주는 합법적인 유익과 축복을 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3. 입맞추라 - 우리는 상징적으로 “그 아들에게 입맞춘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사랑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구속의 감정적, 열정적 차원을 볼 수 있다.
- C. 이 세가지 구속의 측면을 특별히 강조하는 성경본문이 세 군데 있다.
 1. 요한 계시록: 하나님 앞에 우리를 떨게 하는 위엄적, 영원적 측면
 2. 로마서: 십자가의 유익을 누리고 기쁘게 하는 법적, 실제적 측면
 3. 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권능을 부여해주는 열정적, 감정적 측면
- D. 마틴 루터는 구속의 ‘법적’인 측면만 강조했을 뿐, 열정적, 감정적 측면은 회피했다.

IV. 아가서를 예수님과 사랑의 대화와 기도로 바꾸기

- A.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아가서를 통한 ‘사랑의 묵상’에 동참해야 한다. 아가서를 통한 성령님의 목적중의 하나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것이다.

26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26)

- B. 아가서가 주는 유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아가서를 예수님과 사랑의 지속적인 ‘사랑의 대화’, ‘사랑의 기도’로 바꾸어야 한다. 단순히, 아가서를 일반 성경공부 하듯 하게 되면, 아가서가 주는 유익을 충분히 누릴 수 없다는 말이다. 아가서를 통해 심령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아가서의 언어가 우리의 기도 생활과 생각 속에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
- C. 아가서를 접근할 때, 단순한 성경 연구를 하는 듯한 ‘학구적’ 학습자세를 가져서는 안된다. 지식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유명한 식당을 가는데, 단순히 메뉴판만을 연구하려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메뉴판은 맛있는 음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단순히 ‘아가서의 감정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도록 만들어야 한다.

- D. 개인적으로, 내게는 ‘나의 구절들’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들이 아가서 안에 10개 정도 있다. 초창기 때에는, 엽서에 그 구절들을 적어 운전하거나 걸으면서 읽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예수님께 그 구절들을 속삭였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라든지, “성령님, 나를 지탱해 주시고, 새롭게 하소서”(아 1:2; 2:5)
- E. 아가서를 읽어 나가면서, 특별히 중요한 구절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다시 올려 드리라고 제안하고 싶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아가서를 ‘도약대’ 삼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

V. 예수님 만나기: 아가서 일지 작성, 묵상하며 읽기

- A.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는 데 관련된 진리들을 보통 두가지 종류로 정의한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 자신,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우리가 “믿게” 도와주는 진리들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는 진리들이다.
- B.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도와주는 성경묵상법 두가지다.
 - 1. 먼저, 우리가 읽는 성경 본문에 나와있는 진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를 포함한 대화로 그 진리를 바꾼다.
 - a. 예를 들어, “네가 나의 마음을 빼앗았구나”(아 4:9)를 읽을때, 다음과 같이 기도하면서, 진리에 감사 드린다. “예수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빼앗았다는 것을 감사 드립니다.”
 - b.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신부에게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옴이로구나”(아 4:10)라고 말할 때, “주님을 향한 제 사랑이 이 세상의 포도주(영광과 즐거움)보다 낫다고 높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라고 기도하며 답한다.
10 ...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지나고 (아 4:10)
 - 2. 두 번째,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위해 **이해를 구한다**. 그 진리의 권능을 알고 느끼게 되도록 계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엡 1:17).
 - a. 예를 들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를 읽을 때,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마음속에 계시가 임할 것을 구하라.
 - b. 예를 들면,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옴이로구나”를 예수님이 신부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을 읽을때, “‘주님을 향한 제 사랑이 주님께 이 세상의 그 어떤 포도주보다 낫다’라는 진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이해를 구한다.

C. 다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진리 목상법 2 가지다.

1. 먼저, 우리는 성경본문에 나온 방법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데 헌신한다.
구체적으로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 (본문에서 주는 특정한 권면에 따라) 그분께 순종하고자 하는 의도와 헌신을 선포하며 하나님과의 간단한 대화로 바꾼다.
 - a.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신부에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 순종하며 일어나, 안락의 지대에서 떠나자”(대가를 치르는 순종; 아 2:10)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안락의 지대에서 벗어나, 대가가 따르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고난의 산에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라고 진리에 순종하는 헌신의 마음으로 답한다(아 4:6)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 2:10)
 - b. 예를 들면, 예수님이 “샘물이 더럽혀지지 않은 잠근 정원(동산)”(왕의 정원은 일반(대중) 정원과는 다르게 보통 잠겨(봉해져) 있었다. 이것은 잠근 정원과 같이 예수님만을 위해 온전히 준비된 순결한 마음의 소유를 가리킨다)과 같이 신부의 마음을 칭찬하실 때, “예수님, 제 마음은 어떠한 타협에도 굴하지 않도록 잠겨져 있습니다. 저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 진리에 순종하는 헌신의 마음으로 답한다.

12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 봉한 샘이 로구나(아 4:12)

2. 두 번째, 구절에 나와있는 진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을 구한다. 그 구절에 있는 권면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라.
 - a. 예를 들면, 주님께서 신부에게 “순종하며 일어나 주님과 함께 산으로 따라갈 것”을 권면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 제게 권능을 입혀주사 주님께 순종하며, 나의 안락의 지대에서 일어나(벗어나) 고난의 산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한다.
 - b. 예를 들면, 주님께서 “잠근 동산”과 같은 신부의 마음을 칭찬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 제게 권능을 주사 어떠한 타협에도 절대 굴하지 않는, 오직 주님만을 위한 잠근 동산(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구한다.

VI. 일지작성의 필요성

- A. 아가서를 “목상”하며 읽어 나갈 때에 떠오르는 생각, 기도, 목상들을 공책에 적어라. 주님이 당신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리들을 붙잡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는 연습을 통해, 이 장대한 아가서를 예수님과의 영광스런 대화, 기도로 바꾸는 데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 B. 인내를 가지고, 천천히, 조용히 읽으면서 생각들을 적어보라. 성령님이 계시를 더욱 부어 주시고, 순종을 더욱 강력하게 하시고, 마음을 온유케 하시는 역사를 보며 당신은 놀라게 될 것이다.

VII. 아가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 8 가지

- A. 아가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8 가지 계시가 들어있다. 이 계시들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8 가지 측면을 보여준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마다, 각각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신다. 이 8 가지 예수님의 모습 하나 하나는 우리와 그분의 관계의 독특한 측면을 나타내기에, 우리 안에 각각 다른 반응들을 창출하게 된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이 8 가지 계시 하나 하나는 신부안에 각각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 B. 이사야는 예수님의 이름을 4 가지로 선포했었다.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사 9:6).

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사 9:6)

- C. 이사야가 언급한 예수님의 4 가지 이름을, 에스겔 1:10; 계 4:7 에 나오는 고위급 천사(생물들)들의 4 가지 얼굴과 결합할 수 있다. 에스겔과 요한 계시록은 네 얼굴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사람, 사자, 송아지(또는 소), 그리고 날아가는 독수리의 얼굴을 묘사하고 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계 4:7)

그 얼굴들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겔 1:10)

- D. 주님의 8 가지 얼굴은 다음과 같다: 모사(목양)하는 목자(아 1:8),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아 1:12 - 2:6), 통치하는 왕(아 2:8-9), 신뢰의 구세주(아 3:6-8), 열정적 신랑(아 4:1-15), 고난의 종(아 5:2), 위엄의 하나님(아 5:10-16)과, ‘소멸하는 불’이신 질투의 하나님(아 8:6-7).

- E. **소의 얼굴:** 모사(목양)하는 목자, 그리고 고난의 종 (아 1: 8-11, 5:2-7)

1. 모사(목양)하는 목자는, 목자로 신부를 섬긴다(아 1:7-11).
2. 고난의 종은 주님의 짐을 함께 짊어지도록 신부를 초청한다(아 5:2-7).

- F. **사자의 얼굴:** 통치하는 왕, 신뢰의 구세주 또는 평강의 왕(아 2:8-9, 3:6-11)

1. 통치하는 왕(아 2:8-9)은 모든 산들과 장애물들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
2. 안전환(신뢰의) 구세주(아 3:6-11)는 평강과 안보를 가져다 주는 왕이다.
- G. 사람의 얼굴: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 그리고, 열정적인 신랑 (아 1:12-16; 4:1-15)
1.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는 잔치 상에서 신부에게 기쁨을 부어주신다(아 1:12-2:7; 눅15:20).
 2. ‘열정적인 신랑’은 아가서의 핵심 계시로(아 4:1-15; 6:4-5), 신랑의 모습을 두 종류로 표현한다: 예언적인 신랑의 마음 (아 4:1-5), 빼앗긴 신랑의 마음 (아 4:8-15).
- H. 독수리의 얼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소멸하는 불이신 질투의 하나님 (아 5:10-16; 8:6-7)
1. 위엄의 하나님(아 5:10-16)은 광채와 경외를 설명할 때 나타난다.
 2. 질투의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아 8:6-7; 신 4:24)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에서 나타난다.

3장

거룩한 입맞춤: 주의 말씀으로 변화됨(신부의 영성)
(The Divine Kiss: Transformed by the Word (Bridal Paradigm))

I. 소개

2 내게 (주의 말씀으로)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아 1:2)

- A. 신부의 영성(패러다임)이란 무엇인가? 패러다임이란 관점이나 견해를 말한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패러다임’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본다. 1988년 7월, ‘신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힌 소중한 신부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으로 주님은 나를 인도하기 시작하셨다. 그로부터, 나는 이미 친숙한 성경본문들 안에서 새롭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 B. 아가서의 지배적 주제는 ‘신부를 향한 왕의 마음과 애정’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란 주제를 공부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아가서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건강한 마음’을 소유하는 데 아가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바라보시는 지를 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 계시를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달아나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게 될 것이다. 이 계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확신을 갖고 살게, 또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열 수 있게 도와준다. 사실, 많은 진실한 사람들이 죄책감과, 굳게 닫힌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현실이다.
- C.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 그 사랑이 어떠한 ‘홍수’에 의해서도 꺼지거나 엎몰리서는 안된다.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리거나, 아예 소진된 마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아가서의 진리는 닫힌 심령을 ‘하나님의 불’로 열어주게 될 것이다.

너는 나(예수)를 인 같이 마음에 품고 ... 사랑(우리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와 불과 같으니라 7이 사랑은 많은 물(땀, 죄, 정죄, 압박, 등)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엎몰하지 못하나니(아 8:6-7)

II.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

- A. 이 단원의 초점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을 이해하는 것이다. 전체 8 장에 이르는 이 사랑의 노래는 ‘거룩한 입맞춤’의 함축적 의미를 전개시켜 준다. 바로, 이것이 신부의 삶의 주제다.

2 내게 (주의 말씀으로) 입맞추기를 원하니 ... (아 1:2)

- B. 성경에는 다양한 종류의 ‘입맞춤’이 나온다. 예를 들면, 친구의 불에 하는 입맞춤, 종이 발에 하는 입맞춤 등등. 입술에 하는 입맞춤은 부부의 거룩한 사랑, 친밀감을 말한다.

- C. 술람미 여인은 왕에게 입맞춤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 우리의 심령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만 살 수 있다.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은 신명기 8:3 을 인용하셨다(마 4:4). 지난 3000년 동안, 랍비들이 구절에 나오는 “입맞춤”을 “토라의 입맞춤”으로 해석해왔다.

3...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신 8:3)

- D. ‘거룩한 입맞춤’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친밀함을 나타내는 비유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의 영역을 넓히시고, 주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능력)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이 입맞춤은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로 우리를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초청을 말한다. 주님의 입맞춤은,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온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계시로 풀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예수님 입에 입맞추는 것으로 해석 해서는 절대 안된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말씀의 입맞춤”을 관능적, 감각적으로 보는 해석을 모두 부정한다.

- E. 아가서는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을 찬양하며, ‘신랑’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부여해 주기 위해 씌여졌다. 성령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동기를 부여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 주제를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14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요 16:14)

- F.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 관계술과 사역 방법, 아웃리치를 위한 사도적 전략(사도행전)과 같은 다양한 주제들도 많이 다루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과 통찰력들을 얻고 자라는 데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를 부여 해준다. 그러나, 아 1:2 에서 신부가 부르짖는 기도는,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기도다.

- G. 아가서에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친밀함을 나타내는 비유가 세가지 있는 데, 거룩한 입맞춤(아 1:2)과 거룩한 인(아 8:6), 그리고 거룩한 품으심(아 2:5; 8:4)이다.

- H. 신부의 여정은, 주님 말씀의 입맞춤에 대한 열망으로 시작되어, 거룩한 질투의 사랑을 소유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면서 끝을 맺게 된다(아 8:6-7). 예수님은 신부에게 오셔서, 아가서의 ‘궁극적’ 성숙의 표현인 ‘거룩한 질투의 사랑’을 신부의 마음에 ‘인(seal)’치신다.

III. 거룩한 입맞춤: 신부의 가장 큰 소원

- A. 술람미 여인은 왕에게 직접 요청한 것이 아니라, 왕보다 더 높은 권위를 지닌 분에게 요청한다. 여인이 말하길, “(그로- 영어역) 내게...” (아 1:2). 여인은, 개인적으로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께 요청한 것이다.

- B.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경험을 상기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랑의 노래를 써 나간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 꿈에 나타나셨다(대하 1장; 왕상 3장). 주님은 솔로몬에게 가장 원하는 소원 하나를 들어 주셨다면 그를 시험하셨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초자연적인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7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10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11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2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대하 1:7-12)

- C. 유사한 방법으로, 주님은 교회가 주님의 뜻을 구할 것을 말씀하셨다.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운데 서서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을 구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주의 말씀으로 제게 입맞추게 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주실 수 있는 ‘가장 깊은 것들’을 구해야 한다.

22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마 21:22)

23 ...누구든지 ... 그 말하는 것이 이를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막 11:23)

13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 14:13-14)

- D.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신부의 최고의 요청은 ‘거룩한 주 말씀의 입맞춤’이다. 신부는 이 세상의 권력이나, 명성, 안락보다 이것을 더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최고의 소원이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인 사람들을 하나님은 일으키고 계신다. 사실, 우리의 필요를 구하자면 참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다. 가장 위대한 믿음의 기도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다.

IV.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을 위한 간구(부르짖음)의 세가지 특징

- A. 먼저, 이것은 모든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표현하는 위대한 ‘예언적’ 부르짖음이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재림전에 교회안에 ‘첫 계명을 최우선 순위’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백성들의 마음을 ‘할레’시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라 모세에게 약속하셨다. 그 때에, 주님의 교회는 신부의 사랑으로 외치게 될 것이다, “오시옵소서, 예수님!”

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마 22:37)

6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신 30:6)

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계 22:17)

- B. 두 번째, 이것은 시간과 영원 안에 존재하는 ‘인간의 존재 이유’를 찾으려는 ‘철학적’ 부르짖음이다.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경험하는 데 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성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사랑 받는다는 것을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인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면, 우리는 진정 성공한 자들이다.
- C. 세번째,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 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심리적’ 부르짖음이다.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 만족하며 사는 삶의 비밀에 대한 해법을 준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실재가 되도록, 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는 창조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서 감정과 마음의 균형은 깨지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좇지 않을 때, 그것은 온전한 삶이 될 수 없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좇지 않고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게 창조된 것이다. 생명을 다해 좇을 대상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스도 지체안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권태’로 고통받고 있다.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좇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V. 믿는 자들이 누리는 두 종류의 영적 안식

- A. **죄사함(용서)의 안식:** 예수님 안에서 값없이 받은 선물로, 온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경험한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일로 죄사함을 받고, 안식한다.

- B. **친밀감의 안식:**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좇을 때 경험하게 된다. 삶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것이라고 결론 내리기 전까지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성 어거스틴(서기 354-430년)은 다음과 같이 썼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 인간은 안식을 얻지 못한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만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이야 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평강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인생의 최고 목적이다. 죄사함의 확신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과 행복을 찾으려 애쓴다. 이것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왜 존재하며, 또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C.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는 친밀감이 주는 안식에서만 충족될 수 있는, 하나님이 형성하신 공백이 있다. 삶에서 이런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성적 속박이나, 중독, 쓴뿌리 등에 더 쉽게 빠질 수 있는 취약점을 가지게 된다.

VI. 한 분의 청중(AUDIENCE OF ONE)앞에 사는 삶

- A. 비엔나의 웅장한 콘서트 홀에서 처음으로 연주하게 된 한 콘서트 피아니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수 천명의 청중앞에서 그의 첫 콘서트를 마쳤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긴 기립 박수를 보냈다. 얼마 후, 그는 한 기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기나긴 박수 갈채를 받았을 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다고 느끼셨습니까?” 콘서트 피아니스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 때, 기쁘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들이 모두 제자리에 앉았을 때, 꼭대기 발코니 끝에 앉아 계시던 지긋한 나이의 노인분이 제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때가 제 삶의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난 30년 동안 저를 가르치셨던 스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제게 한 번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이 제게는 수천명이 보내는 박수 갈채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 B. 우리는 ‘한 분의 청중’ 앞에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주님으로 부터 받는 고개 끄덕임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위대한 능력을 부여해준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받는 그 어떠한 인정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VII. 실제 적용: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을 구하라

- A.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을 부르짖는다는 것은, 한 분의 청중앞에 사는 것보다도 같은 실재를 말한다.
- B. 하나님이 주실 가장 깊은 것들을 받을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하며 읽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 C. 시험이 닦쳐올 때, 우리는 주님앞에 이 진리를 고백해야 한다. “이 죄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제게 입맞추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 정체성을 말해주는기 때문 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잘못 대할 때, 다음과 같이 선포해야 한다. “나는 세상적인 명성과 명예를 위해 살지않는다. 나는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을 위해 산다.”

4장

아가서 줄거리 개요

(An Overview of the Storyline in the Song of Solomon)

I. 아가서: 거룩한 입맞춤 & 신부의 삶의 비전 (아 1:2-4)

- A. 아가서의 주제는 예수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리고, 주님과 성숙한 동역으로 달음질 하는 신부의 영적 여정이다. 신부는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을 심령에 경험하면서, 이 두가지 실재 가운데 성숙하게 된다.

2 내게 (말씀으로)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너는 나를 인도하라(친밀감)! 우리가 (사역에) 너를 따라 달려 가리라 (아 1:2-4)

- B. 아가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뉜다. 아가서의 전반부인 1-4 장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기업(유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후반부인 5-8 장은 우리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II. 하나님 은혜의 역설로 시작되는 신부의 여정 (아 1:5-11)

5...내가 비록 (심령이) 검은나 (하나님께는) 아름다우니... 6 나의 포도원(마음)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아 1:5-6)

- A. 믿음의 역설이란, 심령은 비록 검은나, 우리는 하나님께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두가지 진리를 다 알아야 한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죄성만을(검은 심령), 또, 어떤 이들은 우리의 아름다운 존재성만을(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음)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

- B. 연약함에도, 우리가 하나님앞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데에는 4 가지 이유가 있다.

1. 하나님의 인격: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온유한 사랑으로 충만하시며,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 보신다. 아름다움은 바라보는 자의 눈에 있다.
2. 의의 선물: 우리는 값없는 선물로 예수님의 ‘의(rightousness)’의 아름다움을 받았다.
21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5:21)
3. 자원하는 심령: 거듭날 때, 성령님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진실한 마음과, 자원하는 순종의 심령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
15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롬 8:15)

4. 우리의 영원한 부르심: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님의 신부로 살게 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이미 보고 계신다. 수십억년이라는 세월을 걸쳐 성숙한 신부로 온전히 순종하게 될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

C. 신부에게는 예수님을 더욱 열망하는 절규가 있다. 신부는 주님이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갈망한다.

7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 내게 고하라 내가 네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아 1:7)

D. 예수님은 신부를 향해 온유한 마음을 나타내시며, 신부의 진실함을 재확인시켜 주신다 (아 1:8-11).

8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어여쁜 자야... (아 1:8)

III. 하나님의 아름다움 안에 있는 신부의 정체성 (아 1:12 - 2:7)

A. 신부는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에 대한 계시를 갖고 있다(시 27:4).

16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아름답고), 화창하다(시 1:16)

B. 신부는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장미’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

1 나는 샤퐼의 수선화(장미)요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아 2:1)

C.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주님의 역사의 ‘그늘’ 아래서 안식하는 신부에게 예수님은 기쁨을 부어 주신다. 신부는 주님의 상에서 먹고, 탁월한 주님의 리더십 ‘깃발’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최고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 바로 이 부분 즈음에서, 신부는 ‘사랑앓이’를 하게 된다. 여기서, 신부의 삶의 목표는 ‘영적 행복’이다. 영적 행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최절정이 된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신부의 목표는 모든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의 기업’이 되고자 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

3... 내가 그 그늘 (십자가에서 완성된 일로 안식하며)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4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리더십)로구나 5너희는 ...내 힘을 돕고 ...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음이니라 (아 2:3-5)

IV. 안락의 지대(COMFORT ZONE)에 오는 도전(아 2:8-17)

8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산을 빨리 넘어 오는구나 9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10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14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17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때에 돌아와서 ... (아 2:8-17)

A. 여기서, 예수님은 산들을 아주 쉽게 달리고 넘어오는 모습, 즉, ‘지상 최대 명령(the Great Comission)’을 성취하기 위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산들은 (인간적인, 악한) ‘장애물들’을 말한다. 예수님은 모든 장애물들을 쉽게 정복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 그러나, 아직, 신부는 주님의 ‘그늘’ 아래 앉아, 주님의 잔치상에서 ‘사과’를 즐기는 데에만 익숙해 있다(아 2:3-5).

B. 본문에서, 신부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홀로 산으로 되돌아가라고 말한다(아 2:17). 여기서 오는 고통스런 신부의 타협은 반항이 아닌, ‘미숙함과 두려움’ 으로 생기게 된 것이다. 온전한 순종에는 ‘고통과 대가’가 따르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한다.

V. 하나님의 사랑스런 훈육(DISCIPLINE)을 경험하게 되는 신부(아 3:1-5)

1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2 이에 내가 일어나서 ...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4 ...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 3:1-4)

A. 예수님이 모습을 감추시면서, 신부는 하나님의 훈육을 경험하게 된다. 아가서 2 장의 달콤함은 이제 사라져 버렸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훈육하신다(히 12:5-12). 사랑의 훈육은 우리를 ‘교정’하시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의 손가락을 ‘떼어놓을 것’이라 약속하신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로 동역하는 데 있어 부족하게 되는 것을 허락치 않으신다.

B. 이 후에, 신부는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안락의 지대’를 떠나 곧 ‘일어나게’ 된다(아 3:2). 신부의 순종을 보신 예수님은 신부에게 다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게 된다 (아 3:4).

VI. “안전한(SAFE)의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얻게 되는 신부(아 3:6-11)

주님은 ‘100 % 순종하기에 신뢰할 수 있는 분, 예수님’으로 모습을 드러내신다. 신부는 “100%” 순종할 때만이 자신이 삶의 안전지대임에 거할 수 있음을 믿게 된다. 예수님과 함께 ‘물위를 걷는 것’이 주님 없이 ‘홀로 배에 머무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뜻이다.

VII. 신랑 하나님의 예언적 마음(아 4:1-8)

1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름답고)도 어여쁘다 ... (아 4:1)

A. 왕은 술람미 여인이 자신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보여준다. 그는 그 여인의 삶에 피어나는 8 가지 미덕들을 기술한다(아 4:1-5). 예수님은 예언적으로 신부의 “짜트는 미덕들”을 선포하신다. 예수님은 신부에게 아직 없는 미덕들을 이미 있는 것처럼 선포하신다(롬 4:17). 예수님은 신부의 실패뿐만 아니라, 신부의 열망의 절규 또한 보시기 때문이다. 매일 겪는 육의 싸움뿐만 아니라, 영혼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우리를 정의하신다.

- B. ‘온전히 헌신하는 삶’은 성숙한 사역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본이다(아 4:6). 처음에 신부는 ‘산’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했다(아 2:9-10). 그러나, 이제 바뀐 영적 계절에서 신부는 주님을 따라 산으로 가겠다는 헌신을 하게 된다. 신부는 이제 순종의 ‘시작단계’에 접어들은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신부는 점차 성숙해지게 된다.

6... 내가 몰약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아 4:6)

VIII. 신랑 하나님의 빼앗긴 마음 (아 4:9 - 5:1)

- A. 왕은 ‘신랑’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의 마음은 신부를 향한 열망에 사로잡혀 있다. 예수님은 신부를 향해 뜨거운 열정을 품고 계신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계시는 신부가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도록 무장시켜 준다(아 4:9). 예수님은 신부의 성품을 보시며, 기쁨을 나타내신다(아 4:10-11).

9...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10...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지나고 ... (아 4:9-10)

- B. 예수님은 신부의 순결함 7 가지를 말씀하신다(아 4:12-15). 왕의 정원(동산)은 오직 왕만 출입할 수 있는 개인 소유지로, 더러운 물이 있는 일반 정원(동산)과는 달랐다. 우리는 순결함을 위한 갈망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12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 로구나(아 4:12)

- C. 신부의 ‘동산(정원)’은, 하나님 앞에 사는 신부의 ‘마음’을 말한다. 신부는 삶에 하나님의 향기가 배가 되기를 원한다. 북풍은 겨울에 부는 바람으로, 살을 파고드는 듯한 차가운 바람을 말한다. 남풍은 여름에 부는 따스하고 상쾌한 바람을 말한다. 신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시험(연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신부는 예수님이 그녀 안에 있는 그녀의 기업(유업)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님의 정원(동산)에 임하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는다.

16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아 4:16)

- D. 전반부 4 장에서, 신부는 자신의 유업(그녀의 정원)에만 전념하고 있었다. 그러나, 후반부 4장에서는,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의 유업이 신부의 초점이 되었다. 이제부터, 신부의 ‘마음’은 자신의 동산이 아닌, 예수님의 동산(정원)이 되었다. 이제, 신부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의하게 되며, 예수님은 “나의”라는 소유격을 아홉번이나 사용하시게 된다.

1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나의)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나의)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아 5:1)

IX. 성숙을 위한 궁극적 시험 두가지 (아 5:2-8)

2...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 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 5:2)

- A. 예수님은 길고도 고독한 밤을 보낸 ‘갯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끌어 안으셨다. 예수님은 갯세마네의 슬픔과 고난을 가진 분으로 신부에게 다가오셔서(아 5:2), 고난에 함께 동참할 것을 권하신다(빌 3:10).

10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빌 3:10)

- B. 예수님은 신부에게 “갯세마네의 모습으로 내게 임하도록 문을 열어다오”라고 요청하신다. 예수님은 신부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디딤돌’을 넘어, 신부의 삶의 목표가 되길 원하신다.

- C. 신부는 자신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자신의 발을 씻겠다는 순종을 보인다(아 5:3). 이제 신부에게는 예수님을 100% 순종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래서, 차가운 ‘북풍’을 요구했던 것이다(아 4:16). 신부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워,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게 된다. 신부의 마음에는 ‘몰약’이 있는데, 이것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좇겠다는 ‘헌신’을 말한다.

4 내 마음이 동하여서 5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듣는구나(아 5:4-5)

- D. 신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첫번째 시험을 치르게 된다(아 5:6). 이 시험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고자 하는 신부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예수님의 부재는 아가서에 두 번 나온다(아 3:1). 그러나, 이번에는 (아 3:1-2 처럼) 신부의 불순종과는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신부의 성숙한 순종을 위한 시험인 것이다. 중세 설교가들 중에는 이 계절을 “영혼의 어둔 밤(dark night of soul)”이라 부르는 이들도 있었다.

6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아 5:6)

- E. 두번째, 신부는 자신의 사역이 사라지는 시험을 맞게 된다(아 5:7). 파수꾼과 리더들은 신부를 치고, 상처를 주며, ‘신부의 옷(영적 커버링)’을 취해버려, 신부가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게 꿈 만들어 버린다. 신부의 사역은 이제 없어져 버렸다. 이제 신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며 주님께 나아가게 될까?

7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옷옷을 벗겨 취하였구나(아 5:7)

F. 주님은 신부에게 말씀하신다, “네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못 얻는다 할지라도 나의 것이 되겠니? 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어도 나의 것이라 고백하겠니? 주위환경이나 상황이 네게 실망을 안겨준다 해도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겠니?” 신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저는 모든 사랑을 다바쳐 주님의 것입니다.” 신부는 겸손함으로 (영적으로 더 미숙한) 예루살렘의 여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아5:8)

G. 요약: 예수님은 자신이 계신 곳, ‘겻세마네’로 신부를 부르셨다. 신부는 순종하며 응답한다. 예수님은 신부의 삶의 비전, 즉,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삶을 위해 두 종류의 시험(연단)을 신부에게 주신다(아 1:2-4).

2 내게 (말씀으로)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4 너는 나를 인도하라(친밀감) 우리가 너를 따라 (사역에 함께) 달려 가리라(아1: 2-4)

X. 두가지 시험에 대한 신부의 반응 (아 5:9 - 6:5)

A.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부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데, 쉽게 의역하면 이렇다. “네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길래 우리에게 주님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니? 주님은 너를 버렸어. 너로부터 임재를 거둬가셨단 말야(6절), 그리고, 봐봐! 지도자들이 네 사역을 빼앗고, 네게 상처 주는데 주님은 뭐하시니? 가만 놔두시잖아”(아 5:7).

9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 (아 5:9)

B. 신부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광대한 아름다움을 10 가지로 설명한다(아 5:10-16). 이 본문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해 주는 성경 본문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본문 중의 하나다.

10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눈부신)...만 사람에게 뛰어난다 11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12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13 짧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똑똑 떨어진다 14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뿜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듯 하구나 15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16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아 5:10-16)

XI. 시험의 계절을 잘 마친 신부를 칭찬하시는 예수님(아 6:4-10)

- A. 신부의 두가지 시험은 이제 끝났다. 예수님은 신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다시 쏟아 붓으시면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시면서 오랜 침묵을 깨뜨리신다. 예수님은 신부가 디르사(북 이스라엘의 수도)와 같이 아름다우며, 예루살렘(이스라엘의 영적, 정치적 수도)과 같이 사랑스럽다고 선포하신다. 예수님은 신부가 깃발을 높이 든 ‘승리의 군대’와 같이 놀랍다고 선포하신다. 고대의 군대는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깃발을 높이 휘날리며 행진했다. 신부는 가장 큰 마음의 적(자신과의 싸움에서)을 이긴 것이다.

4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엄위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아 6:4)

- B. 예수님을 향한 신부의 아낌없는 사랑에 주님은 “정복”당하시게 된다. 주님을 향한 신부의 헌신의 ‘눈’이 왕이신 주님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킨 것이다. 지옥의 모든 군대도 예수님을 정복할 수 없지만,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을 향해 진실한 마음을 지킨 신부의 눈은 주님의 마음을 “정복”하게 된다.

5 네 눈이 나를 놀래니(정복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아 6:5)

- C. 예수님은 신부의 성숙함과 헌신을 칭찬하신다(아 6:5-7)

- D.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궁정안에서 신부의 귀중함과 영광을 설명하신다. 예수님의 하늘궁정에는 수없이 많은 스랍들, 체류들, 천사장들,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

8 왕후가 육십이요 비빔이 팔십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9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 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아 6:8-9)

- E. 성령님은 신부의 영광의 면류관을 말씀하신다(아 6:10).

10 아침빛 같이 뚜렷하고 달 같이 아름답고 해 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 같이 엄위한 여자가 누구인가(아 6:10)

XII. 핍박받는 신부를 변호(아 6:11-7:9).

- A.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라는 정체성의 계시를 가지고 살게 되면서, 신부는 핍박받게 된다. 그러나, 모든 교회(아 6:11)를 섬기고자 하는 성숙한 사랑과 헌신이 신부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게 된다(아 6:12).

- B. 그 가운데, 신부는 교회안에 몇몇 사람들로 부터는 진실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지만(아 6:13), 동시에, 어떤 사람들로 부터는 적대 반응도 받게된다(아 6:13).

13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14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의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아 6:11-14)

- C. 그러나,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과(아 7:1-5), 예수님은 신부를 차례로 변호해 주게 된다(아 7:6-9)

XIII. 예수님과 성숙한 동역을 이루는 신부(아 7:9-8:4).

신부는 순종을 통해, 예수님과 ‘성숙한 신부’의 동역을 하게 된다(아 7:9-10). 신부는 더 큰 능력을 구하는 ‘중보기도’에도 신부적 동역을 표현한다(아 7:11-13). 신부는 ‘사역’ 하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앞에 담대하게 주님과 동역을 표현한다(아 8:1-2). 신부는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위해 ‘신부의 동역’을 표현한다(아 8:3-4).

XIV. 성숙한 사랑의 인(아 8:5-7)

예수님은, 신부가 마음에 ‘거룩한 불의 인(seal)’을 받고, 거룩한 질투의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신부를 초청하신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에, 그 불을 신부의 마음에 나눠주고 싶어 하신다. 이 불은 우리의 마음을 인치는 주님의 ‘초자연적 사랑’이다. 이 거룩한 ‘인’은, 사랑의 불을 꺼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부여 해준다.

XV. 신부의 마지막 중보기도와 계시(아 8:8-14)

- A. 신부는 교회(아 8:8-9)와, 예수님의 재림(아 8:14)을 위해 중보한다. 아가서 8:8-9 에서, 교회를 향한 신부의 ‘사도적’ 열정을 엿볼 수 있다.
- B. 아가서 8:10 에서, 신부는 자신이 ‘성벽’(동기), ‘망대’(양육할 수 있는 초자연적 능력), 그리고 ‘화평을 얻은 자’(마음의 장애물이 제거됨)와 같다는 확신을 갖게된다.
- C. 아가서 8:11-12 에서, 신부는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고 주님 앞에 사는 능력과 즐거움을 표현한다. 신부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영원(Eternity)’이란 뿌리에 두게된다(아 8:11). 신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성숙함’에 대한 계시를 갖게 된다(아 8:12).
- D. 예수님은 신부에게 ‘마지막 위임’(아 8:13-14)을 부여 하시고, 신부는 긴박함으로 중보하게 된다.

13 너 동산에 거한 자야 (주님의 신부) 동무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예수)로 듣게 하려무나 14 나의 사랑하는 자야 (예수님)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아 8:13-14)

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데다 (계 22:17)

5장

세상의 포도주 보다 나은 하나님의 사랑 (아 1:2) (God's Love is Better than the Wine of this World)

I. 복습: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에 대한 이해

내게 (말씀으로)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옴이로구나 (아 1:2)

- A. 신부는 왕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분께 간구한다. “그로 하여금...(영어역)” 다시말해, 신부는 직접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께 요청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주님의 말씀으로 제게 입맞추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은혜를 부어 달라는 믿음의 기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이다.

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 22:37-38)

- B.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한다. 지난 3000 년동안, 랍비들은 이 구절에 있는 “입맞춤”을 “토라의 입맞춤”으로 해석해 왔다.

³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하려 하심이니라 (신 8:3)

- C. 아가서의 주제는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이 심령 깊은 곳까지 임하기를 간구하는 신부의 부르짖음으로, 가장 깊고도 친밀하게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은 신부를 향한 왕이신 예수님의 감정을 보여주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3 가지를 깨워준다 (하나님께 받는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다른 이들에게 흘러나가는 사랑).

II. 하나님 은혜안에 있는 탁월한 즐거움

- A. 주님의 말씀의 입맞춤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서, 신부는 간구하는 이유를 설명하게 된다. 신부는 삼위일체의 제 2 격이신 예수님께 직접 이렇게 말한다, “주님의 사랑(애정)이 포도주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애정을 경험하는 것이 이 타락한 세상의 포도주(즐거움)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²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옴이로구나 (아 1:2)

- B. 신부는 포도주를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데, 이것은 포도주가 사람의 “기분을 들뜨게” 하기 때문이다. 혼인에서 사용되는 포도주는 “세상의 축하주”를 상징한다. 포도주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기쁨’의 술이다. 이것은 세상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것들을 말한다.

1.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선한 포도주”가 있는가 하면, 죄악을 말하는 “악한 포도주”도 존재한다. 신부는 “주의 사랑이 죄악 보다 더 낫습니다”라는 것을 넘어선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주의 사랑이 죄악보다 나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신부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이다,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들보다도 더 나은 것입니다.”
 2. 우리가 사는 환경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축복들 중에는 물질의 축복, 인간관계의 축복, 건강의 축복, 사역의 축복 등등이 있다. 여기에 나온 ‘포도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을 말한다.
- C.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적 축복들도 좋지만, 그런 것들에만 우리의 마음이 쏠려서는 안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보다는 물질이나 명성에서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다. 환경적인 축복만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점차 식어지게되게 된다(계 2:4-5).
- ³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 2:3-5)
- D. 신부는 삶에서 복음의 “탁월한 즐거움”이 가지는 우선순위를 소개한다. 이것은 신부의 ‘삶의 신학’과 ‘거룩의 추구’를 드러낸다.
- ²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 1:2)
- ²“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기쁨을 주는 구나 (아 1:2, NIV 역)
- E. “더 나은,” “보다 우월한,” 또는 “더 기쁨을 주는”은 하나님 마음(애정)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자라나는 데서 오는 ‘탁월한 즐거움(기쁨)’을 지적한다. 이 탁월한 즐거움들은 ‘열등한 죄의 즐거움’과 대조를 이룬다. 하나님은 열등한 죄의 즐거움으로 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더 강력하면서도 탁월한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신다.
- F. 예수님의 리더십아래 축하해야 하는 즐거움의 종류는 다양하다. 즐거움에는 육적, 감정적, 정신적 즐거움들이 있다. 이것들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굶주리게,또는 갈급하게 만드셨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열망하며, 즐거움을 깊이 갈망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즐거움 자체가 죄악은 아니다. 불의한 데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죄악인 것이다.

- G. 우리를 가까이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주의 영광을 반영하는 ‘7 가지의 열망’을 우리 안에 창조하셨다. 모든 사람이 이 열망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열망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각각의 열망은 하나님의 인격을 반영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이 열망들을 소유한다.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것은 주님이 기쁨으로 가득찬 분이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주님이 행복을 느끼시기 때문이다. (“인간의 7 가지 갈망” - 순전한 나드, 참조).
- H.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는 확증을 얻고 싶은 열망, 매력적이고 싶은 열망, 아름답게 되고 싶은 열망, 위대하게 되고 싶은 열망, 부끄럼없이 친밀감을 누리고 싶은 열망, 마음을 다하고 열정적이고 싶은 열망, 깊고도 영원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열망. 이것이 바로 인간의 7 가지 열망이다.
- I. 이 열망들은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우리 안에 넣으신 갈망들이기 때문에,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안에 ‘굶주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분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이유는, 우리안에 즐거움을 위한 ‘굶주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기쁨과 고통, 아픔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 열망들 하나하나 모두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한다. 하지만, 원수도 이 갈망들을 사용해 우리를 흑암으로 인도하려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안에서 찾지 않으면, 이 열망들은 우리에게 허무함과 고통, 슬픔, 그리고 불만족만을 안겨주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안에 만드셨다.
- J.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즐거움을 모방하여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 죄는 ‘순간적’인 즐거움을 준다. 의무감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죄를 짓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우월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유혹의 힘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죄가 더 큰 만족을 줄 거라는 ‘거짓 약속’을 주기 때문에, ‘죄의 유혹’, 또는 ‘유혹의 욕심’이라 불린다.
-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엢 4:22)**
- ¹³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케 됨을 면하라 (히 3:13)**
- K.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은 ‘영적’ 즐거움이다. 신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즐거움의 ‘절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취하게’ 만들며, ‘사랑앓이’를 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것은, 삶의 즐거움을 없애는 시험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다. 거룩함은 지루하고 따분한 고역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즐거움으로의 초대다.
- ¹¹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 16:11)**
- L. 신부는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탁월한 즐거움’이라는 주제를 전개한다.

³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아 2:3)

M. 복음의 충만한 진리를 맛보기 전까지는 죄가 최고의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성령님이 주시는 ‘탁월한 즐거움’은, 열등한 죄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세대에 첫계명을 최우선 순위로 회복시키고, 거룩한 백성들을 소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요 전략은, ‘탁월한 복음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다.

N. 마지막 때 성도들은 주님의 위대함을 보며 예수님에 대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며,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순교자들은 ‘사랑의 승자들’이다. 유희과 핍박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기 때문이다.

또 내가 보니 ... 짐승(적그리스도)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 (계 15:2-3)

O.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은 ‘유희과 핍박의 물’에 꺼지거나 엉물될 수 없다는 부분이 아가서 후반부에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사랑이 ‘죄책감’이나 ‘타협’이라는 ‘홍수’에 꺼지거나 엉물되서는 않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엉물’되어, 능력을 상실한 채, 꺼진 심령으로 살아간다.

⁷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엉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찌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 8:7)

P. 바울은, 이 시대의 모든 특권을 능가하는 경험이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 말했다.

⁸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 3:8)

Q. 연인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연인은 일꾼보다 같은 일을 갑절로 해내면서도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외에는 그 어떠한 보상도 원치 않는다. 일꾼이 연인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업무 목록표를 아예 던져 버리고 쳐다 보지도 않을 것이다! 연인은 스스로 자원하기 때문에 따로 목록표를 일일이 체크할 필요가 없다. 나는 주변에서 이렇게 가끔씩 일꾼이 연인으로 바뀌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데,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다.

R. 우리는 남은 인생동안 힘을 다하며 다음의 질문에 현명하게 답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삶에 있어 다른 ‘축복들의 포도주’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III. 애정에 근거한 순종: 예수님 한분만으로 만족하며 순종하는 동기

- A. “애정에 근거한 순종”은 예수님의 사랑(애정)을 경험하면서 흘러나오는 순종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순종의 형태로 ‘가장 깊고도 지속적인 순종’의 결과를 낳는다. ‘사랑앓이’를 하는 사람은 사랑을 위해 그 어떠한 고난도 다 감수하게 되기 때문이다.
- B. “믿음의 순종,” 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순종도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에 잘 나와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할 지라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 C. “두려움에 근거한 순종,” 또는 “수치심에 근거한 순종”은 부끄러움을 당할것 같은 두려움, 또는 부정적인 대가를 치를 것 같은 두려움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이다. 이것도 성경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가를 치를 것 같은 두려움이 죄를 저항하는 동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다시말해, 순종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법은 아니라는 뜻이다.
- D.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대가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죄를 저항하는 데 더 효과적인 동기를 부여해준다. 이유는? 죄의 순간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유혹이 징계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이다. 죄의 대가에 대한 두려움은 죄를 짓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지 못한다. 오히려, 이 두려움은 우리가 더 다양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죄를 짓게 만든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이 주는 ‘쾌락’을 즐기기 때문이다. 우리의 심령이 굶주림에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 ‘거룩한 삶’을 위한 우리의 씨름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려는 상황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 E.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고아에게 멋진 바다가 보이는 리조트 호텔에 머물면서 별미를 즐기고 깨끗한 침대에서 잘 수 있는 휴가 티켓(쿠폰)을 준다고 상상해보자. 그런데, 그 아이가 비와 추위를 피하며 움추리고 자는 환자상자 밑에다 그 티켓을 그냥 아무데나 내던져 놓았다고 가정해 보자. 리조트 호텔과 멋진 바다를 즐기기는 커녕, 그 소년은 계속해서 이곳 저곳 쓰레기통을 뒤적거리며 썩은 음식만 먹고 살게 될 것이다.
- F. 미국에서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였던 씨에스 루이스(C. S. Lewis)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앞에 영원한 기쁨이 주어졌음에도, 우리는 술과 섹스, 야망으로 어리석은 짓을 하는 냉담한 피조물이다. 우리는 이 무지한 아이와 같이 빈민가를 전전공공하며 쓰레기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멋진 바닷가에서 보낼 수 있는 휴가를 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G.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 사실은 그것이 ‘썩은 음식’인데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우리앞에 놓인 ‘잔치상’으로, 죄의 헛된 즐거움을 찾는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영적 즐거움’의 잔치상이다. 죄의 심령을 자유케 하는 방법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은 죄가 주는 그 어떠한 즐거움도 초월하는 ‘탁월한’ 즐거움이다.

- H. 그 동안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소개할 때, 죄의 대가에 대한 끝도 없는 ‘위협들과 경고들’을 주는 부정적 방법으로 소개해 왔다. 하나님 말씀은 의도적으로 악한 반항(대적)에 대한 대가를 보여준다. 성경은 ‘하지말라’는 금지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율법과 규칙들이 우리의 심령을 초자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 I. 다수의 목회자들과 리더들은 사람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의 목록을 지키게 하기 위해, 수치심과 두려움을 사용하는 접근방식을 택한다. 하지만, 결국은 순간적인 죄의 즐거움에 대한 유혹이 장기간 치르게 될 대가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강력하게 되어있다. 물론, 계속해서 죄의 대가들을 제시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특별한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죄로 인한 사회적, 영적 대가를 경고해 준다고 해서 그들이 포르노와 탐욕, 거짓말과 간음등을 멈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J.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부와 권력을 갖추는 육적 즐거움을 경험했었지만, 결국 그것 보다 더 ‘큰 부’를 택하게 된다. 애굽보다 더 즐겁고 아름다우며, 초자연적으로 끌리면서,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는 특별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모세와 같이 ‘거룩함의 즐거움’을 탐구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혼을 만족 시켜주는 분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모세는 ...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최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부)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히 11:24-26)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롬 8:18)

¹⁷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후 4:17)

IV.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 A.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애정)만큼 주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3 번이나 강조하셨다(요 14-17 장). 이 진리 하나만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자”로 바라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 15: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 로소이다 (요 17:23)

이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 이니이다 (요 17:26)

- B. 우리의 소중함과 가치를 말해주는 궁극적 성명문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애정)만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 C.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정도’만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느끼시는 지를 가늠할 수 있는 정확한 ‘척도’가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깊은 갈망과 즐거움, 기쁨과 열망을 담은 강력한 실재다. 하나님의 사랑은 열정이 메마르고 차가운 종교적 개념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함축하고 있는 방대한 의미를 잠시 숙고해보자. 이러한 진리가 언급된 적은 없었다.
- D. 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다와 같은 사랑의 신비란! 복음이란 방대한 바다와 같은 거룩한 사랑안에 사는 삶으로의 초대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가 그 사랑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즐거움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넒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을 깨달아 ... (엡 3:17-19)

- E.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실한 마음을 지니기는 했지만,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이었다. 예수님은 그 날밤,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할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아셨음에도, 그 연약한 자들(제자들)에게 사랑을 확증시켜 주는 말씀을 하셨다(마 26:31). 제자들은 엄청난 죄책감과 수치심을 겪게 될 참이었다. 그 날밤, 예수님을 배반할 제자들, 미숙하고 어릴뿐만 아니라, 야망이 가득찬 제자들을 보시면서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전혀 식지 않았다. 그 상황가운데서도 그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시는 지를 알려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다. 인간을 감동시키는 계시들 중 가장 강력한 계시가 바로 이 계시이다.
- F.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에 대한 계시를 주셔서, 죄책감과 실망, 유혹과 핍박, 그리고 장래의 사역에서 받게 될 압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그들을 준비 시키셨다.
- G. 바리새인들과 로마인들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죽이면서 승리한 것처럼 보였을 때, 제자들은 실망감으로 역장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다. ‘예수와 그 제자들의 복음 운동’은 마치 끝난 것처럼 보였다. 가까운 장래에 그들은 고문 받고 투옥될 판이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과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을까?

- H. ‘유혹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을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즉,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가서를 경건의 기도로 바꾸어야 한다.
- I.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진리의 말씀들의 목상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 ‘마음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연약함이 드러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시는 지를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 계시는 주님의 사랑안에 확신을 갖게 해주며,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께 우리의 심령을 열게 해 준다. 사실, 수많은 진실한 신자들이 죄책감과 굳게 닫힌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
- J. 내가 저술한 책중에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란 책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많이 받는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더 갖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먼저 자신을 드러내신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즐기고, 좇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즐기시고, 좇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요일 4:19)**

6장

탁월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 1:2) (God's Superior Love: How God Feels about Us)

I. 복습: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리는 탁월한 즐거움들

- A. 신부는 하나님 말씀이 주는 “우월적 즐거움”을 언급했다. 이것은 ‘거룩’에 관한 신부의 신학을 나타낸다. 신부는 ‘하나님의 마음(애정)’에 대한 계시에서 오는 우월적 즐거움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는 열망들, 즉, 우리 안에 주의 영광을 반영하는 일곱가지의 열망들을 창조하셨다.

2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아 1:2)

- B. 이 단원에서, 우리는 “포도주보다 나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7 가지 원칙을 알아 볼 예정이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가운데서도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애정(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본 원칙들이다(전체 8 장의 사랑의 노래인 아가서는 신부의 여정을 통해 이 원칙들을 발전시킨다). 천국에 가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연약하고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거라고 믿는 일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요일 3:1)

- C.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요 15:9)

아버지께서 ...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요 17:23)

- D.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일 4:19)

II. 기본 전제: 영적 미성숙은 대적(반항)이 아니다

- A.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주님은 여러 감정을 느끼신다. 어떤 이들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지, 슬퍼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알지도 못한 채, 혼란한 심정으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 기뻐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 거라 생각하며, 헛된 죄책감 속에 살기를 우리는 원치 않을 것이다. 또,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타협하는 부분을 주님이 슬퍼하심에도,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기뻐하실 거라 확신하며 사는 것도 원치 않을 것이다.
- B.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의’와 ‘은총’을 받는다(롬 3:21-31).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진실한 회개가 필요하다.
- C. 회개란, 신앙 여정의 매 계절마다, 우리가 “아는 만큼의 빛”에 따라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심령의 태도 변화를 말한다. 회개란, 흑암을 따르던 것을 깨고,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 D. 그러나, 영적 미숙은 대적과는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가지를 혼동한다. 때때로, 이 두가지가 겉으로 같아 보이는 것 같지만, 마음의 근원은 서로 다른 데서 비롯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도 보시지만, 행동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
- E.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연인’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려 한다. 아직 성숙하지는 않지만 진실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주님이 빛으로 조명하시는 ‘실패(타협)의 영역’을 회개한다. 그러나, 대적하려는 사람은 즉각적인 순종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NO”라고 대답한다. 그와 더불어, 머릿 속에 생각하고 있던 죄를 짓는 사람은 이미 계획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미숙함 가운데 잘 모르고 짓는 사람의 죄보다 하나님께는 훨씬 더 심각한 죄가 된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마 26:41)

- F.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의 회개와 순종,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약하고, 금방 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진실한 것이라는 것이다. 연약한 사랑은 절대 거짓 사랑이 아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연약한 사랑까지도 소중하게 여기신다.
- G. 그러나,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은 성숙한 순종을 달성한 것과는 다르다. 온전한 순종을 위해 달음질하는 것과, 달성하는 것은 다르다는 말이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기뻐하신다. 물론, 우리의 순종이 성숙해 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소요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고 해서 금방 성숙해 지는 것은 아니다.
- H.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그 죄를 속히 회개하고, ‘죄와의 전쟁을 선포’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진실성을 보여야 한다. 물론, 진실로 회개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삶을 부여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영적 미숙함을 주를 대적하는 것으로 치부하지는 말라.

- I. 위선자란,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 좃을 의지나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자를 가리킨다. 비록 연약(미성숙)하지만 싸워나가는 자는, 아예 포기하여 가망성을 잃은 위선자(대적자)와는 다르다.
- J.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진정한 갈망과 부르짖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진정한 갈망은 죄를 이기는 ‘승리의 초석’이 된다. 이러한 갈망을 갖게되는 것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다.
- K. 하나님은 대적과 영적 미숙을 혼동하지 않으신다. (구약 율법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했다: 진흙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양과 돼지).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의 예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양(정한 동물)과 돼지(부정한 동물) 둘 다 진흙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 L. 이것을 혼동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그들을 죄책감에 빠뜨릴 수 있게 되며, 그들의 믿음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성령의 깨달음으로 확신을 얻어 하나님 안에 더 깊이 가게 하는 결과와는 다른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된다.
- M. 주님은 ‘제자들의 영적 미숙함’을 ‘바리새인들의 대적’과 아주 다르게 보셨다. 다윗의 죄가 사울의 죄보다 더 심각한 것처럼 보였음에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끊이지 않았다. 이유는?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도 마음이 아팠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사울은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잡힐 때까지 계속 죄를 지으려 했다. 실제로는 계속 대적하면서 겉으로만 외적 회개를 보였던 것이다(삼상 15:22-23).

6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시 23:6)

- N. 하나님의 자비로 회개한 후, 곧바로 우리는 다시 ‘일등 시민’으로 하나님과 새출발 할 수 있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의의 선물,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려는 진정한 마음의 부르짖음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 O. 진정으로 회개한 후, “지움 버튼”을 누르면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르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앞에 설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삶에 존재하는 죄의 ‘견고한 진’들의 생성절차와 근원을 찾아 “지움버튼”을 누르는 것(내적 치유, 축사 사역-역자주)과는 매우 다르다.

- P.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인’이다. 죄책감은 우리의 행동이 틀렸다고 지적한다. 수치심은 우리(우리의 인간됨)가 틀렸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다음의 질문을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려 고투하는 죄의 노예인가 아니면, 죄와 씨름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인인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패를 보고 자신을 정의한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역사로 인해, 우리는 아무리 악한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더 나은 자들이다.

III. 원칙 #1: 하나님은 불신자들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 A. 불신자들이 하나님에게 전혀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마 5:45).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 5:8)

- B. 하나님은 악한 자들도 축복하신다. 그러나, 주님이 축복하신다고 해서, 주님이 그들의 죄악을 인정하신다는 뜻은 아니다.

45…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마 5:45)

- C.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며, 회개치 않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에서, 사울, 등등).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23**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22-23)

IV. 원칙 #2: 하나님은 미숙한 성도들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 A. 하나님은 불신자도 사랑하신다. 그러나, 오직 믿는 자들만을 즐거워하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부터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영적 성숙을 달성하기 아주 오래전 부터,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통한 성장과정을 보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미소를 지으신다.

4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아니하느냐 **5**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7**…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눅 15:4-7)

- B. 예수님은 탕자들이 회개하는 날, 그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보이신다. 가장 값비싼 의복을 그 아들에게 입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을 나타내셨다(눅 15:22). 물론, 회개하며 돌아온 탕자는 아직 미숙할 뿐만 아니라, 삶의 많은 영역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내가 ...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 죄를 언윳사오니 20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면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2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눅 15:18-22)

- C. 하나님은 우리의 미(성)숙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뻐 하신다. 주님은 다윗이 회개한 날 그를 기뻐하셨다.

...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 하셨도다(시 18:19)

- D.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우리의 최선의 노력에도 금이 가게 마련이다. 그러나, 연약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다.

5 내가 비록 (마음이) 겉으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아름다우니 ... (아 1:5)

- E. 예수님은 역사상 그 어떤 인물보다도 ‘즐거움의 기름부음’으로 사셨던 분이다. 즐거움은 주님 마음 속 가장 중심에 자리 잡은 감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분노로 가득차신 분, 또는 슬픔에 잠긴 분만으로 잘못 생각하며 관계한다.

9...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주어 네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히 1:9)

- F.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진정 회개하며 살 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길 바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달아나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가게 될 것이다.

...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딤후 7:18)

24 여호와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 (렘 9:24)

- G.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다시 “일등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새출발을 허락하신다. 여호와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애 3:22-23)

- H.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알고 기억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의 징벌을 가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감정(사랑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10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11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4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시 103:10-14)

I. 요약: 하나님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특정 영역의 죄를 다루시는 동안에도,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시며, 미소 지으신다. 우리 안에 있는 미숙한 영역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전체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의의 선물,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의 부르짖음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한다.

V. 원칙 #3: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은 무조건적 승인이 아니다

A.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은 그분이 우리 안에 변화가 필요한 영역들을 그대로 간과하신다는 의미를 말하지는 아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허락하는 것과는 다르다. 주님은 잘못된 영역들을 교정하신다. 주님의 계획은 우리 안에 ‘사랑(거룩함)’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 하는 것이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히 12:10)

B.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성도들을 일정기간 온유함으로 인내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승낙’으로 혼동해서는 않된다. 예수님은 타티라에 있던 이세벨과 그 제자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21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22...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계 2:21-22)

11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전 8:11)

C.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정직하고 온전하게 직면하려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덜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여러 면에서 손실을 입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즐거움과 계시의 영, 거룩한 친교와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최소화 시켜 버리게 된다.

D.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신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롬 2:4)

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 7 모든 것을 참으며 ...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전 13:4-7)

VI. 원칙 #4: 하나님의 훈육은 거절이 아니다

- A. 하나님의 교정은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사랑의 증표’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 하시지만, 교정받는 자를 기뻐하신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잠 3:12)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히 12:6)
- B. 예수님은 회개가 필요한 자들을 책망하셔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계 3:19)
- C. 교정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장기간 같은 죄를 계속 짓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 죄를 계속 짓게 놔두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교정하신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표이다(롬 1:24-28).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롬 1:24)

32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11:32)

- D.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37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이스라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으로다 38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시며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발하지 아니하셨으니 39 저희는 육체 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으로다(시 78:37-39)

VII. 원칙 #5: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짓는 백성들의 죄를 보고 슬퍼하신다

- A. 요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미적지근’한 신앙을 가진 자들을 입에서 토해 내실 거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은 버린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시며, 아파하고 슬퍼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16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계 3:16)
30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 (엡 4:30)
19 성령을 소멸치 말며 (살전 5:19)

B. 하나님은 교정받는 자들을 보시며 가슴 아파 하시지만,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스럽게 보신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 그 사랑과 그 긍휼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사 63:9)

...내 마음의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였노니 (렘 12:7)

C. 우리가 죄를 온전히 대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여러 면에서 손실을 입히게 된다. 구원의 즐거움과 계시의 영,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의 친교,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받는 능력을 최소화시켜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충성된 순종과 하나님을 정직하게 구하는 삶을 통해서만이, 이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의 최고의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

11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살후 1:11)

D. 우리를 향한 사랑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과 거룩한 질투를 보이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마음을 다하는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주님이 열렬히 주장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가지며 놀랄만큼 성숙하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야 4:5)

VIII. 원칙 #6: 영적 훈련들이 하나님의 은총(FAVOR), 호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A. 영적 훈련(기도, 금식, 묵상 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게 도와준다. 이 훈련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훈련들이다. 그렇지만, 영적 훈련들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더 큰 은총(favor)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능력은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 임재의 모닥불”안에 있는 것이지, 그 앞에 갖다놓는 우리의 ‘차가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B.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도에 따라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사모하는 만큼 주님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마 5:6). 다시말해, 우리의 ‘영적 갈급함’에 따라 주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면서 주님은 우리와 주님과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신다(갈 6:8).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과 같이 순종하는 성도를 10 억년이 지나도 똑같이 기뻐하고, 즐거워 하신다(말 3:6).

IX. 원칙#7: 영적 성숙을 통해 주님께 더 사랑받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더 얻게 된다.

- A.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성숙한 자에게 더 많은 능력을 위임하신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정하신 만큼의 능력을 결정하신다. 달란트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마 25:15). 그러나, 순종은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도와준다.
- B. 사역이나 비즈니스에서, 더 뛰어난 능력이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사랑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 짐에 따라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실 것이다.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다. 참고로, 성령의 은사들은 믿음을 통해 얻는 것이지(행 3:11-12; 갈 3:5), 영적 훈련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영적 성숙은 기름부음으로 사역하는 영역에 대한 사단의 반격으로 부터 우리자신을 더 보호해 주게 된다(눅 14:30-32). 성령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함에 따라 다음의 네 가지도 증가하게 된다(하나님의 열심, 사단의 분노, 사람들의 요구, 감정의 수용력).

7장 (상) 예수님의 향기 (아 1:3) (The Fragrance of Jesus)

I. 복습: 타락한 세상의 포도주보다 나은 예수님의 사랑

- A. 아가서의 주제는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이 심령 가장 깊은 곳까지 감동시켜 주기를 바라는 신부의 부르짖음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깊이, 가장 친밀한 방법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신부의 부르짖음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신부를 향한 왕의 마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3 가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워준다 (하나님에게 받는 사랑, 하나님에게 드리는 사랑, 타인에게 흘러나가는 사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 1:2).

- B. 신부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월적 즐거움’을 경험한다. 주님의 사랑(애정)은 (이 타락한 세상의 포도주인) 죄의 열등한 즐거움보다 “더 낫다,” 또는 “더 즐겁다”(NIV역).
- C. “애정에 근거한 순종”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애정을 경험하고 다시 그 사랑을 주님께 되돌려 드리는 ‘사랑의 교환’을 통해 흘러나오는 순종으로, 가장 강력한 순종의 형태다. 결과적으로, 가장 깊고 지속적인 순종을 낳게 된다. ‘사랑없이 하는 자’는 그 사랑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감수하기 때문이다.
- D. “의무에 근거한 순종”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서 의무감으로 하는 순종이다. 이런 상태에서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E. “두려움에 근거한 순종,” 또는 “수치심에 근거한 순종”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 내지는 부정적 대가를 치를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하는 순종이다. 이것도 성경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데에는 매우 비효과적인 방법이다.

II.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네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를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주)를 사랑하는구나(아 1:3)

- A. 장미의 향기는 그 내부의 속성에서 나온다. 마찬가지로, 아가서에 나오는 왕의 향기는 ‘내면의 삶’, 또는 ‘생각과 감정들’을 상징적으로 말한다. ‘하나님의 향기’는 그분의 마음과 생각, 특별히,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애정을 말한다. 주님의 신부는 달콤한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즐긴다. 주님의 향기를 맡게 될 때, 우리는 마음까지 강력하게 흔들리게 된다. 볼 수 있고 손에 짚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기가 지닌 엄청난 영향력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B.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향기’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다. 그렇지만, 문자 그대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보좌 주위에 날리는 향기는 분명히 굉장한 것이다. 하늘 전체가 하나님의 다양한 향기들을 영원토록 음미하게 될 것이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후 2:14)

C. 아가서에서는 신부의 사랑을 말하고 있기에 ‘향기’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신부는 “주의 향기로 나의 마음이 동하나이다”라고 말한다. 만약, 과학자가 하나님께 감격을 고백하려 했다면 다음과 같은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주님께서 명철하심으로 나의 마음이 동하나이다”

D. 신부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주님의 품성)로 인해”라고 고백하는 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역사의 실재를 담고 있다.

E. 먼저,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쏟아 내실 것이다. 의역하면,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한 이름’만을 높이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결국 온 땅에 걸쳐 ‘모든 이름위에 뛰어난 이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신부는 잘 알고 있다.

9 이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 2:9-10)

1.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쏟아 내실 때, 공개적으로 주님의 아름다움, 또는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온 땅을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 채우시면서 그 이름을 지극히 높이실 것이다.

14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 그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합 2:14)

2.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교회를 채우시면서 그 이름을 쏟아 내실 것이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 (엡 4:11-13)

F.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다.

III.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쏟아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

- A.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의 이름이 지닌 아름다움을 교회에 쏟아내거다 드러내실 때, 교회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모든 성도들(처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을 신부는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름다운 향기’와도 같다. 그 이름의 비밀, 아름다움과 기이함은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3 네 기쁨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아 1:3)

- B. 아가서에 나오는 ‘처녀들’은 예루살렘의 여자들(딸들)을 말한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미성숙한 성도들로, 아가서에 걸쳐 계속 예수님을 찾지만 신부만큼 주님께 헌신하지는 못하는 사람들이다. 주님의 모든 교회는 이 땅에서 그 충만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 C.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부는 잘 알고 있다. 우리를 효과적으로 변혁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향기로운 이름” 하나뿐이다. 예수의 이름이 상한 심령과 영적으로 둔감한 자를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자로 바꿀 수 있는 “향기로운 이름”이라는 것을 믿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이름을 더욱 알려고 할 것이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이다.

2 그 날에(마지막 때에) 여호와와 짝(예수)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사 2:4)

- D.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에 드러내실 때, 우리 마음은 들뜨게 된다. 이보다 더 강력하고도 즐거운 일은 없다.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은 그분을 더 사랑하고 즐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받게 될 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도 더 뜨거워지게 된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리고, 고난을 견딜 수 있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빌 3:8)

- E.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성품)을 선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낌없는 사랑(애정)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업’이요, ‘부르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런 특권은 없다. 신부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26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26)

- F. “최고의 심리학자”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심리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죄사함을 더 많이 받은 자가, 더 받은 만큼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고.
-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눅 7:47)**
- G. ‘하나님은 잔인무도한 아버지다’라고 사단은 사람들을 설득하며 하나님을 참소한다. 사단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거절한다는 속임수를 통해,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달아나게 만든다.
- H.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귀여움 받는 삶이다. 이것은 세상의 즐거움이나 명성, 부유함보다도 더 생동력 넘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삶이다. 하나님의 마음(감정)을 직접 맛보는 경험이 주는 강력함을 신부는 잘 알고 있다.
- I. ‘하나님의 애정에 대한 계시’는 우리 안에 교만이나 종교적 율법주의와는 다른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된다. 교만 대신 감사의 마음을 주며,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갱신해 주어, 신앙생활이 단순한 종교적 활동이나 종교적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도와준다.
- J. 저술한 책들 중에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받는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요?” 답은 아주 단순하고도 간단하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이해하면 된다. 하나님의 열망에 대한 계시를 갖게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열망하고 갈망하게 되는 권능을 입게 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한다면, 당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애정)을 나타내는 진리들로 심령을 채우라!
- K. 온 땅은 이미 예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가득차 있다. 우리는 계시의 영을 통해 세상 모든 곳에 자연을 통해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향기, 또는 영광을 볼 수 있다.
- 3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기록하다 기록하다 기록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사 6:3)**
- L. 계시의 영으로 살았던 다윗은 하늘을 바라 볼 때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 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 2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4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시 19:1-4)**
- M. 아가서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향기는 신부에게 점차적으로 전달된다. 하나님의 향기는 곧 신부의 향기가 된다. 아가서의 전환점은 아가서 4:16 이다. 신부는 ‘마음의 정원’에 ‘바람’이 불어 하나님의 향기가 전달되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싶어한다.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의 향기가 신부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신부는 하나님의 향기를 분별하며, 그 향기들은 점진적으로 신부에게 전달된다.

16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아 4:16)

IV. 달콤한 하나님의 인격의 향기 - 5 가지의 동사

A. 예수님은 달콤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정과 성품의 향기를 강조하셨다(눅 15:20). 이 본문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가장 종합적이면서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본문중의 하나이다. 우리를 바라 보시고,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며, 달려오사, 안으시고, 입맞추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20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눅 15:20)

- B.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보았다 - 그분의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눈
- C.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보고 측은히 여기셨다 -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
- D.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달려가셨다 -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과 개시
- E.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안으셨다 -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
- F.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입맞추셨다 - 그분의 백성과 가까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

V. 신앙생활에 적용

- A. 먼저, 우리는 아가서의 진리들을 배워야 한다. 우리의 지성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유명한 레스토랑에 단지 메뉴만 연구하기 위해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보석을 감정하듯, 아가서를 감정하는 ‘감정가’가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다. 심령을 아가서로 가득 채워야 한다!
- B. 둘째, 배운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고백할 때, 계시가 임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배고픔과 정직한 심령을 가지고, 아가서를 오랜시간 음미하는 마음으로 묵상 해야 한다. 아가서가 주는 유익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아가서 내용 하나하나를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애정과 기도의 대화로 바꾸어야 한다. 기도의 대화로 바꾸는 단계 없이 아가서를 공부 하는 것은 비효과적이다. 심령의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아가서의 언어가 우리의 기도 생활과 생각 가운데 깊이 들어와야 한다.

- C. 개인적으로 내게는 깊이 자리잡은 아가서의 구절들이 약 10 개 정도 된다. 초창기에는, 운전이나 산책할 때 보기 위해 구절들을 엽서에 써서 다니기도 했다. 이 구절들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천천히 속삭이곤 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주의 말씀으로 내게 입맞추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지탱시키시고, 새롭게 해 주세요” (아 1:2; 2:5).
- D. 주님의 사랑이 ‘타락한 세상의 포도주’보다 낫다고 고백해 보라.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하나님의 성품)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든다고 선포해보라.
- E. 시간을 들여 일지를 작성하되, 아가서를 “기도하면서 읽을” 때에 떠오르는 생각들, 기도들, 묵상들을 기록하도록 하라. 주님이 당신 마음에 주시는 진리들을 붙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7장 (하)

아가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향기 (*The Perfume of God in the Song of Solomon*)

I. 아가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향기

- A. 아가서 1:3 에서, 신부는 주님의 마음이 ‘아름다운 향기’같다고 지적하면서, 예수님의 향기의 실재를 보게된다.
- B. 아가서 1:13-14 에서, 신부는 몰약의 향낭과 고벨화 송이, 다발과 군집과 같이 풍부하게 아가서 1 장 3 절의 향기를 세분화하여 전개시킨다(아 8:14)
- C. 아가서 2:3 에서, 예수님은 (아가서 8:5 과 같이) 상쾌하게 하는 ‘사과의 향기’를 가지셨다.
- D. 아가서 2:12-13 에서, 예수님은 신부에게 구애하기 위해 자신의 향기를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향기로 신부에게 구애하신다. 그리고, 신부는 ‘산’으로 갈 결심을 하게된다.
- E. 아가서 3:6 에서, 예수님은 몰약과 유향과 각종 향품(석류는 아가서 2:3, 5의 사과안에 함축되어 있다)과 백향목(아가서 3:9; 8:9에 함축되어 있음)의 향기와 같다.
- F. 아가서 4:6 에서, 신부는 몰약의 산과 유향의 동산(아가서 8:14 의 증표)에서 오는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
- G. 아가서 5:13 에서, 예수님의 향기는, 향기로운 꽃밭과 풀언덕과도 같은 뽕과,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아 2:12-13 무화과와 포도와 같은 향)이 뚝뚝 떨어지는 입술에서도 발견된다.

II.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의 향기

- A. 향기로운 산에 머물렀던 결과로, 신부는 향기에 흠뻑 젖게된다(아 8:14).
- B. 아가서 1:12 에서, 신부는 자신에게 부여된 향기를 처음으로 감지하게 된다.
- C. 아가서 2:1 에서, 신부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향기(백합화 /수선화) 안에 있다
- D. 아가서 2:2 에서, 신부의 향기를 확증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처음으로 나타난다.
- E. 아가서 2:16; 4:5; 6:3 과 7:2에서, 신부는 백합화와 같다
- F. 아가서 4:3 에서, 성도의 향기는 석류(아 6:7)와 같다.
- G. 아가서 8:13 의 정원(동산) (아 2:16; 6:3,11; 7:2, 12-13)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포도원은 정원, 골짜기, 호두, 포도, 석류(아 7:12), 합환채(아 7:13), 그리고 다른 실과를 모두 포함한다.

8장

신부의 삶의 비전 (아 1:4) (The Bride's Life Vision)

I. 소개

A. 이 단원에서 신부는 자신의 영적 목표와 삶의 비전을 제시한다(아 1:4).

4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 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아 1:4)

B. 복습: 아가서 1:2-4 의 구절은 아가서의 주제와 신학을 ‘거룩한 열정을 위한 과정’으로 요약한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낫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신부는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을 부르짖는다. 신부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의 실재와 효과를 선포하고 나서,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갈망하며, 은혜를 받아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섬기며 달음질 하고자 하는 삶의 비전을 선언한다.

C. 아가서 1:2-4 에서, 신부는 세가지를 말한다

1. 아가서 1:2 초반부에, 신부는 하나님 아버지께 말한다. “주의 말씀으로 당신의 아들이 내게 입맞추게 해 주세요”
2. 아가서 1:2 후반부부터 4 절까지, 신부는 예수님께 고백한다. “주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주의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주의 이름이 쏟은 향기를 같으므로 처녀들이 주를 사랑하나이다.” 신부는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갈망하며, 주의 은혜로 사역을 주님과 함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3. 아가서 1:4 후반부에, 신부는 같이 충실하게 달려가는 다른 이들과 함께 예수님께 고백한다.

II. 신부의 열심을 나타내는 표현: 삶의 비전 2 가지

A. 신부는 두 가지 삶의 비전을 또는 자신의 목표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형태로 표출하고 있다. 삶의 비전이란 가정, 직장, 사역에 관련된 단기적, 장기적 목표를 말한다. NAS 성경역본은 “주를 따라 가도록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번역하고 있다.

4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 가리라(아 1:4)

B. 신부는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 이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적 예배자로서, 깊은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이다.

37...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마 22:37)

- C. 신부는 “우리가 주를 따라 달려가리라”라고 기도한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함께 달려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가까이 인도하심은 단수형이지만, 주님과 함께 달려감은 복수형이다. 신부는 예수님과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며 사람들을 섬기고자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달려간다’는 것은 공허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대변한다. 이것은 행위가 뒤따르는 순종이며, 타인을 돌보며, 행하는 믿음의 삶이다. 우리는 그 속도를 정하시는 예수님 뒤에 서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달려간다.

39 들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마 22:39)

- D. 균형잡힌 신앙의 삶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람들을 향한 공허’를 갖는 삶이다. 신앙생활하는 일생동안 우리는 “가까이 인도받는 것” 그리고 “달려가는”사이에서 오는 지속적 갈등을 겪게 된다. 초기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친밀감 없이 사역에 ‘달음질’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1. 달려가는 가운데, 충돌과 거절, 핍박은 생기기 마련. 그래서, 아가서 1:5-7 에 나오는 처녀들처럼, 많은 이들은 얼마가지 않아 ‘영적 탈진’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그와는 정반대로, 달려가는 사역의 비전도 없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만 집중하기도 한다.
 2. 친밀감을 위해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받기를 원하는” 신부의 기도를 예수님이 응답하실 때, 이 본문에서 신부는 사역에 “달려가는 일”을 일시적으로 거부하게 된다(아 2:8-13). 그래서 처음에 신부는 영적 균형을 잃어 버리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체 8 장의 아가서를 통해, 신부의 삶의 비전에 대한 이 두 가지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신부를 인도해 가신다.
- E.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영적 계절과 시기에 맞게 친밀감의 인도를 받으며, 동시에 달려가야 한다. 친밀감을 위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그렇다고, 사역에 바빠 쫓겨 달려가기만 하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적 계절에 따라 어느 한쪽을 더 강조하시기도 하신다. 그렇지만, 그 계절에 있더라도 다른 한 쪽을 절대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참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계절에 한 쪽면을 더 강조하신다면, 특별히, 주님과 친밀감의 계절에 거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판단하는 말이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안에 깊이 거하라고 충고해 주고 싶다.

- F. 하나님 나라의 일반적인 질서는 먼저 친밀감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에서 흘러넘치는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달려가는 것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번째 계명을 통해 권능을 받게 되면, 둘째 계명인 타인을 관계하고 섬기는 일을 더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신부의 두가지 삶의 비전은 바로 ‘큰 계명’(마 22:37-40)과 ‘지상 최대 명령’(마 28:19-20)을 담고 있다. 우리의 삶의 비전은 반드시 이 두가지, “친밀감과 달려감”의 측면을 항상 담고있어야 한다.
- G. 나는 개인적으로 18 세때, 삶의 비전을 갖게 되었다. 삶의 비전은 직업이나, 가정환경, 부유함 등과는 상관없이 성립된다. 나는 **하나님의 헌신적인 예배자가 되고, 사람들을 흑암에서 건져내는 기름부음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두가지 큰 계명(마 22:37-39)을 성취하리라 결단했다. 나는 하나님의 헌신적인 예배자로, 또, 사람들을 흑암에서 건져내는 기름부음받은 자로 살기위해, 성경을 배우고, 성령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했다.

18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거니와 ... (잠 29:18)

18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거니와 (잠 29:18, NKJV역)

- H. 초점이 있는 삶은 삶의 모든 영역, 즉, 우리의 신앙생활(기도, 금식, 성경공부 등); 인간관계(가족, 친구 등); 직업(일터의 부르심); 사역(교회안과 밖); 재정 (소득, 지출, 현금, 저축, 투자); 몸(운동, 건강, 음식 등); 그리고 나머지 (레크리에이션, 휴가, 놀이, 문화생활, 스포츠 등)과 같은 삶의 주요 영역들마다 삶의 목표가 있는 총체적 삶의 비전을 갖는다.
- I.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단기적, 장기적 목표(단기적 목표는 3 개월에서 3년, 장기적 목표는 10년 이상되는 것)를 세워 행하는 행동계획(액션 플랜)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각 행동계획에 맞는 스케줄을 만들어, 주어진 시간을 우선 순위화하며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한다.

III. 열정의 성장: 침공의 경험

4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 가리라 ... (아 1:4)

- A. ‘왕의 침공’은 신부의 ‘침공’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은밀한 삶’을 개발해 나가는 시간들을 말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가까이 인도하신 ‘은밀한 삶의 간증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침공’에서의 시간들을 통해, 속사람이 형성되고 자라나게 된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구애하시고, 경고하시며, 약속을 주시며, 대면하셔서 우리가 성령안에 자라나게 하신다. 왕의 침공은 장래의 소명을 우리가 힘차게 주님과 함께 이뤄 나갈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빚으시는 시간이다. 이것은 곧,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게 준비시켜 주는 시간을 의미한다.

- B. 어린 신부는 주님 곁으로 가까이 인도해 달라고 부탁했고, 예수님은 신부를 침궁으로 인도하사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주님은 신부를 ‘침궁’으로 인도하신다.

4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아 2:4)

- C. 예수님은 어깨에 잃었던 양을 데리고 오는 은혜의 목자를 ‘선한 목자’로 평하셨다.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눅 15:5)

- D. 침궁의 경험은, 성령 안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새로운 계시와 만남, 나누어주심)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주께로 가까이 인도하시는 시간들을 말한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 나는 이런 “침궁의 경험”을 두번이나 경험하면서 놀라게 되었다. 성령에 대한 이해나 갈급함도 없었을 때였기 때문이다. 1972년 2월에 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1978년 10 월에는 내가 소원한 기도도 아니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보는 환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

IV. 열성의 확실성: 예언적 확증

- A. 신부는 예루살렘의 여자들(딸들)에게 담대함과 믿음의 확신으로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삶의 모든 계절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 이 고백은 삶의 다양한 계절을 통과 하는 여정가운데 신부가 확고하게 붙잡는 결단의 신앙고백이었다.

4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 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애정)이 포도주에서 지남(을 기억하리라)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아 1:4)

- B.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세가지 면에서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한다. 먼저, 죄책감에 사로 잡히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온유한 자비를 기억하며 기뻐해야 한다. 둘째, 죄의 ‘포도주’보다 월등하신 주님의 아름다움과 감동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기뻐해야 한다. 셋째, 고난과 연단의 시기에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리더십을 기억하며 기뻐해야 한다.

11...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롬 5:11)

- C. 절망과 연단의 시기 가운데서 고백하는 이 신앙고백은 선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마귀의 속임수를 공포하는 ‘영적 전쟁의 표현’이 된다. 이 신앙고백은 어린양의 혼인잔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고백들을 장차 올 위대한 혼인 날에 하게 될 것이다.

7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계 19:7)

V. 주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 A. 선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기억할 때, 세가지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령을 깨우게 된다(하나님께 받는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타인에게 흘러 넘치는 사랑). 신부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잘 알고 있다.

4 네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아 1:4)

- B. 신부는 ‘침공의 경험’을 통해 받은 열성을 어떻게 유지하는 지 보여준다. 침공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격려와 확신을 얻는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 때 받은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거기에 맞게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 책임이 주어지게 된다.
- C. 흑암이 우리의 마음을 맹렬히 공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영적전쟁에 임해야 한다. 침공의 경험을 통해 얻은 은혜들을 하나라도 잃어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늘 갱신하고 새롭게 해야 한다.
- D. 즐거움에는 두가지 차원이 있다. 하나는, 고난속에서도 우리의 신앙고백을 지키며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는데서 오는 즐거움이다. 다른 한가지는,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솟구쳐 올라오는 즐거움이다. 신부는 여기서 이 두가지 즐거움을 다 고백하고 있다.
- E. 믿음에서 오는 즐거움은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에 맞춰 살아야 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1. 삶의 고난속에서 걱정과 염려에 빠져들지 말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사랑의 리더십을 고백해야 한다. ‘깊고 어둔 밤중’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침공에서 받았던 계시와 은혜들을 기억해야 한다.

4...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리더십)로구나(아 2:4)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2. 유혹이 다가올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사랑과 약속이 타락한 ‘세상의 포도주’보다 낫다고 고백하라!
- 믿음으로 모세는...25 도리어 ...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 11:20-30)

3.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될 때에도, 죄책감 속에 휩싸이지 말고, 온유한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해야 한다. 원수의 참소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 사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거절한다고 믿게 하여, 많은 연약한 자들을 주님으로 부터 도망가게 만들기 때문이다.
- F. 고난과 유혹, 실패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과 영원하신 주님의 자비(인자하심)를 선포해야 한다(대상 16:34, 41; 대하 5:13; 7:3, 6; 20:21; 스 3:11; 렘 33:11; 시 52:1; 100:5; 106:1; 107:1; 117:2; 118:1-4, 29; 138).
- 11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선하시므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에스라 3:11)**

9장

심령은 검으나 하나님께 사랑스런(아름다운) 존재 (아 1:5) (*Dark in Heart but Lovely to God*)

I. 우리의 신앙 여정은 은혜의 역설로 시작된다: 검으나 아름다운 존재

5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심령이) 검으나 (하나님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 (아 1:5-6)

A. 신부의 신앙 여정은 (아 1:5)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종류의 대조되는 신앙고백과 같이, 대부분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영적 위기’로 시작되는데, 나는 이것을 “은혜의 역설”이라 부른다. 신부는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스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신부가 죄성을 가진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스런 존재라는 진리를 신부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 이런 어린 신부는 순수하고 진실하지만 아직까지 연약한 자들을 가리킨다.

B. 우리의 죄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될 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께 사랑스런 존재라는 진리를 인식하는 일은 우리의 영적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다. 이 두가지의 진리를 우리 안에 넣을때, 우리는 확신과 감사 가운데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더 자라게 될 것이다.

1. 그리스도의 지체 가운데에는, ‘시커먼’ 우리의 마음, 즉,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 사랑스런 존재라는 진리를 강조하지 않고, 우리의 악함만을 강조하게 되면,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확신을 파괴하게 되며, 수치심에 이끌리는 삶을 낭게된다. 이러한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한 후에도, 수치심으로 인해 예수님과의 관계가 감정적으로 마비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2. 사람들은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양 만큼의 ‘빛’가운데 걷는다. 하나님께서 충만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때 그때 주어진 만큼의 충만한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은 더 환한 빛을 우리의 삶에 비추실 것이며, 그로인해, 전에는 보지 못했던 우리 안에 존재하는 어둠의 영역들을 보게 하실 것이다. 아무리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은 금이가고 깨지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진실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아닐 거라는 생각과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할 때에도 인자하신 분이시다.

- C. 예레미야는 인간의 죄악의 깊이와 거짓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있었다. 죄를 범할 수 있는 영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의 영역의 깊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땅 속 깊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갈라져 있는 단층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죄의 영역들은 ‘표면 아래’ 우리 심령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9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렘 17:9)

22 너희는 유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엡 4:2)

- D. 성숙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중의 괴수’라 표현한 바 있다. 이것은 그가 그릇된 겸손으로 과장하고자 한 말이 아니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빛을 심령안에 품고 살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우리안에 숨겨져 있는 ‘흑암’의 영역들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15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딤펴 1:15)

- E. 비록 우리 존재성의 전부를 나타내는 진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인정하는 것은 인간이란 존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악의 깊이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지금 발견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지금 발견하시는 게 아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선포하실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무게를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기로 헌신한 분이시다.

- F. 죄를 짓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놀라기도 한다. 그래서, 슬픔에 잠길 수도 있다. ‘나도 이런 죄를 지은 나 자신에 대해 놀랐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셨을까’라고 생각하게 된다.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셨으니, 하나님이 이제 나와 관계를 재고하지는 않으실까,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라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

- G. 그러나, 지속적인 영적 성숙을 거듭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검은 마음’을 발견하면서도,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동기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우리의 약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관계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신다. 나는 오랜세월 동안 자신들의 ‘검은 마음’에만 치중하는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지켜 보아왔다. 이들은 회개도 지나칠 정도로 진실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H. 그들은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순수하고 진실하지만 하나님 앞에 닫힌 심령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닫힌 심령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시고, 거절하지 말아 주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라고 고백한다. 다시말해, 주님을 예배하면서도 주님과 관계를 끊임없이 협상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아름다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나는 검으나, 아름다운 자입니다.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주님이 나로 인해 마음이 빼앗기셨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에게 강력한 확신을 주게 된다.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질 때,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갈 수 있게 권능을 부여해 주기 때문이다.

II.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이유 4 가지

A. 의의 선물: 우리의 사랑스러움은 ‘의의 선물’을 받는데서, 또는 예수님이 소유하신 아름다운 ‘의의 옷’을 받았다는 데서 온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은, 인간 스스로 선하거나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역사로 인한 것이다.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18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 19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 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후 5:17-21)

B. 자원의 심령(순종의 마음): 거듭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원의 심령”을 불어 넣으신다. 행동으로 순종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마음으로 순종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마음’은 주님께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요동은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성령님의 역사다. 다윗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불뎌받게 되기를 기도했다.

12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시 51:12)

41... 마음(심령)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 26:41)

- C.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다양한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애정과 열정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잘 보여준다. 아름다움은 바라보는 자의 눈에 있다. 우리를 사랑과 열정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이 평상시에 분노의 감정으로 사는 분이시라면,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이 있다고 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를 바라 보시는 주님의 관점은 주님의 마음에서 흘러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느냐에 따라 아름다움의 대상이 결정되게 된다. 만약, 다른 사람이 주님처럼 우리의 깊은 속까지 다 안다면, 우리를 보며 아름답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의 관점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7...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능력)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삼상 16:7)

7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8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9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 55:7-9)

- D. 영원한 신부의 부르심: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10 억년 동안(영원토록) 살게 될 ‘신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신다. 주님의 영원한 신부. 이 부르심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말해주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III. 베드로의 초창기 싸움: 겹으나 아름다우니, 연약하지만 자원하는 심령(마 26:41)

- A.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을 부인하게 될거라고 경고하셨다(눅 22:31-34). 그러나, 겹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구속받은 자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하셨다. 그것은 ‘심령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에 대한 것이다.

41 ...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 26:41)

- B.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한 육신”으로 걸려 넘어졌지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열망했다. 예수님은 밤이 늦어 피곤한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일반적인 죄성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 C.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질문이다. 믿음의 위기가 이 이슈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IV. 주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실패에 절망한 베드로

- A.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 이유를 아는가? 예수님의 죽음 후 바로(십자가의 사건 8 일후) 사도들의 재정난을 돕기위해 다시 자신의 직업전선에 뛰어든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는 가룟 유다가 훔친 돈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밤을 맞으며 고기를 잡았다는 사실은 베드로가 여가를 즐기기 위해 낚시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3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요 21:3)

- B.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적 리더십’의 역할을 포기하고 자신의 집안 사업으로 돌아간 것이다. 자신의 본래 직업으로 돌아간 것이다. 예수님의 사도(제자)로 부름받기 전 성공적으로 잘 나가던 자신의 직업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린 여종의 압력에도 견디지 못해 불충을 보인 자가 어찌 일생동안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사도로서 충성해야 하는 압력을 받으며 사느니, 차라리 편하게 어부로 살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 것이다.
- C. 베드로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면서 자신의 실패에 상처 받았고,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렸다는 실패감에 사로잡혔다. 주님을 다시 볼 면목이 없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 달려가기 보다는, 도망가거나 떠나버리게 될 것이다.
- D. 죄의 육신을 발견하는 위기 속에서, 어떤 이들은 실패감 속에 사로잡혀 고통을 겪으며,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될 거라 단정지어 버린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고귀한 비전을 가진 자들도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계속 실패를 맞보느니, 차라리 자신의 비전과 부르심을 아예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비전을 낮춰 고통이나 실패를 느끼지 않으려는 것이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귀한 비전’을 가지면서 실패의 고통을 겪기보다는, 차라리 주님과 “이등 시민의 관계”를 가지며 안주하며 사는 것이 더 쉬워 보이기 때문이다.
- E. 그런 사람들은 주님과 이등 시민의 관계에 적응하면서 거기에 익숙해 지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주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런 수치심 속에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할 면목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부끄럼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 F.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화가 나고, 실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슬퍼하시면서 심지어는 짜증 나셨을 거라는 상상도 하게 된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는 순종과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포기하고 죄책감속에 살게 된다.
- G.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세번이나 반복 하셨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 또 두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

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 세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 (요 21:15-17)

- H. 하나님은 질문을 던지실 때는, 주님이 모르는 정보를 얻으려 하시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은 베드로 자신이 스스로에 대한 정보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셨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안에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라셨다. 주님은 부인하기 전에 가졌던 예전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를 부르신 것이다.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드러내고 계셨다.
- I. 주님은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 8 일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네게 육신이 약하나 자원하는 심령을 가졌다고 말했잖니. 네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는 못했지만, 네게는 자원하는 심령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단다. 너는 내게 순종하려는 ‘심령’을 가지고 있단다. 내가 걸려 넘어지기 전에 나는 네 안에 그 심령을 보았단다. 내가 너를 바라볼 때, 연약한 육신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도 본단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제자로 불렀을 때 네 안에 보았던 자원하는 심령을 난 지금도 여전히 본단다.”
- J. 예수님은 우리 보다 우리안에 있는 자원의 심령(순종의 마음)을 훨씬 많이 보신다. 이 본문에서, 주님은, 세번 부인하면서 쌓여버린 베드로의 수치심을 철저히 깨부수고 계셨으며, 세번의 문답을 통해 베드로의 영혼을 온전히 씻겨 내셨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셨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확신을 회복하면서 베드로의 수치심은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

V. 영적 승리의 3 단계

- A. 첫 단계,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의도: 영적 승리를 위한 첫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을 갖는 것이다. 순종하고자 하는 의도는 성숙한 순종을 실제로 달성한 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순종의 의도가 영적 승리의 첫걸음이 된다. 순종하고자 하는 진정한 갈망을 주시는 분은 (마귀도, 우리의 육신도 아닌) 성령님이다. 우리의 삶을 측정하고 정의하는 부분적인 하나님의 방법도 바로 이러한 의도들을 통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기뻐 하신다. 스스로 달성한 업적만을 보며 자신들의 삶을 측정하는 사람들은 죄책감에 빠지기 쉽다.
- B. 두번째 단계는, 부분적인 돌파구를 마련. 그러나, 아직도 계속되는 싸움은 존재한다: 전반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지만, 아직 특정 영역에서 육신과의 싸움을 계속한다 (롬 8:2-13; 갈 5:16-17).

- C. 세번째 단계는, 변화된 갈망과 함께 중대한 돌파구를 경험한다: 우리의 갈망이 극적으로 변화되면서, 특정 영역에서의 죄와의 씨름이 거의 사라지게 된다(롬 6:14-23).

VI. 거룩한 열정으로 가는 여정은 두 가지의 계시로 시작된다.

5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심령이) 검은 (하나님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찌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6내가 일광에 찌어서 거무스름할찌라도 흘려보지 말 것은(아 1:5-6).

- A. 어린 신부가 아 1:5 에서 직면한 영적 위기는 베드로가 겪었던 위기와 유사하다.
1. 검은 마음 (죄의 정욕):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하나님께 검다.
 2. 하나님께 아름다우니 (예수님께 진실로 순종하려는 마음):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은 하나님께 아름답다(사랑스럽다).
- B. 아가서에 걸쳐, 신부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고 자라날 수 있는 영적 원칙들을 가르쳐준다. 예루살렘 여자들은 영적으로 아직 미숙한 자들을 말한다.
- C. 계달의 검은 장막은 ‘검고 어둔 육신’을 말한다. 계달의 장막은 야생 염소들의 검은 가죽으로 만들어 검은 색을 띤 장막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비유를 쉽게 이해했다.
- D. 솔로몬의 휘장은 성막안 성소에 있던 휘장이었다. 솔로몬의 휘장은 신부의 삶에 있는 ‘내적 은혜의 역사’를 말한다. 이 휘장의 아름다움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며, 오직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만이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다.
- E. 신부는 말한다, “겉은 검은 장막 같을지라도, 안은 성소안에 있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답습니다.” 신부의 겉모습 만을 보며 사람들은 계달의 검은 장막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적으로 하나님은 솔로몬의 빛나는 휘장과 같은 신부의 모습을 보신다.
- F. 신부는 “내가 일광에 찌어서 거무스름할...”라고 말한다. 솔로몬의 책, 잠언서에서 솔로몬은 “태양 아래 사는 삶”을 자주 언급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의미한다. 신부는 태양아래, 또는 ‘죄의 연약함 가운데 태어나 사는 삶’에서 받게되는 영향력을 말하고 있다. 아담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그렇듯,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신부에게 크게 영향을 끼치며, 신부를 검게 만든 것이다.
- G. 신부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흘려보며 “너는 마음이 검잖아” 라고 고개를 흔들며 수치심을 부추기지 말라고 부탁한다. 신부는 “그래, 나도 사람이기에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살았어.”라고 대답한다.
- H. 신부는 그들에게 자신을 흘려보지 말라고 부탁한다(6절). 신부는 이미 자신의 검은 마음에 압도되어 있기 때문이다.

VII.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 A.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회개하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역사와 자원의 심령을 주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존재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 B. 그런가 하면,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름답다는 진리만을 붙들고, 진정한 회개나 마음을 다하는 삶을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며 염치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
- C. 이슈는 자신의 죄성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연약한 육신과 검은 마음을 발견했다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이 영적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을 좌우한다.
- D.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께 밋보였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으로 부터 멀리 달아나 버린다. 이들은 베드로가 저지른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치심(수치심의 견고한 진)에 휩싸여 살게된다.
- E. 그러나, 수치심의 삶은 죄의 삶을 가져오게 된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추한 자라 느낀다면, 추한 자의 삶을 살게된다. 주님은 우리가 ‘이등 시민’으로 강등하기를 자처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여인의 삶이란 어떠한 삶인가? 자신이 깨끗하고 고귀하며,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며 사는 여인의 삶이다. 이런 여인은 끈질긴 사랑을 갖고 사는 강력한 여인이 된다. 주님은 “하나님은 나를 순결하게 보시며, 나를 사모하시고, 고귀히 여기시며, 좃으시고, 나를 기뻐하십니다”라고 느끼는 주님의 신부를 그리스도 지체안에 세우고 계신다.

10장

신앙(영적)의 위기로 시작되는 신부의 여정 (아 1:5-11) (Her Journey Begins With Spiritual Crisis)

I. 여정의 시작: 은혜의 역설: “겂으나, 아름다우니 ”

5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심령이) 겂으나 (하나님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6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 (아 1:5-6)

A. 신부의 영적 여정은 아가서 1:5 에 나오는 신앙고백처럼, 순수하고 진실한 신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영적 위기로 시작된다. 나는 이것을 “은혜의 역설”이라고 표현한다.
왜냐하면, 신부가 자신의 죄를 발견함과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성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도 보게 하신다. 순수하고 진실하지만, 아직 연약한 신자의 모습이다.

B.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이유에는 4 가지가 있다. 첫째, 우리는
'의의 선물'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아름답다(사랑스럽다) (고후 5:17-21). 둘째, 거듭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을 넣으신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요동 하나하나 모두 '자원의 심령' 이라고 하는 성령님의 역사다(시 51:12; 마 26:41). 세째,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때문에 우리는 아름답다. 즉, 하나님의 애정과 열정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정을 말하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은 바라보는 자의 눈에 있다. 하나님은
대상을 바라볼 때 우리와 전혀 다르게 보신다(삼상 16:7; 사 55:7-9). 네째,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 보실 때, 우리의 영원한 부르심인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신다.

C.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영적 승리의 3 단계를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진정한 의도가 바로 승리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두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부분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만, 아직 계속되는 싸움속에 산다. 전반적으로 승리의
삶을 누리지만, 특정 영역에서 육신과의 싸움을 계속한다(갈 5:16-17). 마지막으로 세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변화된 열망을 통해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한다(롬 6:14-23).

II. 신부의 영적 위기: 거절감과 수치

6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마음)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7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예수)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고하라
내가 네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아 1:6-7)

- A. 신부는, 아가서 1:6-7 에서, 영적 위기로 인해 받는 5 가지 압박을 기술한다. 실패로 인해 주위 사람들은 그녀를 흘겨보고, 화난 오빠들에게는 거절당하고, 다른 이들의 포도원은 지키지만, 자신의 포도원(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신선한 사랑을 유지하지 못해 멀리서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수치심 속에 살게 된다.
 - B. 신부는 자신의 오빠들을 ‘어미의 아들들’이라 표현한다. 아가서 전체에 걸쳐 (아 1:6; 3:4,11; 8:2, 5), ‘어미’는 교회를 뜻한다. 성령의 역사가운데 우리는 교회를 통해 거듭나게 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과 여러 성경 기자들은 교회와 지도자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어미’라 표현했다(갈 4:19, 26; 살전 2:6-7).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어미요 형제라(마 12:46-50)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아버지요, 교회는 어머니로 표현된다. 교회의 근본이신 예수님은 ‘여인의 씨앗’을 통해 태어나셨다(창 3:15). 구속받은 이스라엘은 인자(Son of Man)이신 예수를 낳은 ‘어미’로 대표되었다(계 12:5).
 - C. 그 아들들은 신부의 열성에 화가 났다. 이 아들들은 늙고 ‘영적으로 무딘’ 율법주의적 또는 종교적 지도자들로, 영적으로 열성인 젊은이들을 좋아 하지 않는다. 이유는? 첫째, 열성적인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딘(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이들은 영적 열성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영적 깨달음을 가져다 준다. 둘째, 절제하지 않는 열성과 그들의 교만이 영적으로 무딘 지도자들을 종종 화나게 만든다. 그렇기에, 우리의 열성은 지혜와 겸손으로 다듬어 져야 한다. 이제 막 새롭게 예수님을 향한 열성에 불이 붙은 자들은 자기의 생각과 교만에 빠져들어, 다른 이들에게 자기처럼 전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부담을 주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기 교만에 빠져, 자신 처럼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는 우를 범하게 되기도 한다.
 - D. 그녀의 열성을 이용해, 화난 아들들은 포도원들을 그녀에게 떠맡기며 과도하게 일을 부과하고 학대한다. 그 속에서 그녀는 영적으로 탈진해 버리게 된다. 영적 탈진은 과도한 일보다는 성령과의 교통없이 일하는 ‘종교적 멍에’에서 더 크게 오게 된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주목을 받으려는 심정으로 과도하게 많은 책임을 떠맡는 것이 영적탈진의 주 원인이 된다.
 - E. 어린 신부는 다른 이들의 포도원은 지켰으나, 정작 자신의 포도원(마음)을 지키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살면서 갖는 우리의 최우선적 책임은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동행’이다. 원래, 신부가 가장 바랬던 소원은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포도원, 즉, ‘마음의 정원(동산)’이 영적 냉랭함과, 죄, 그리고 수치심이라는 ‘잡초’로 인해 숨을 쉬지 못하게 되었다. 자신의 포도원을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키워 나가면서 그분의 뜻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6...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샅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아 1:6)**
- F. 신부는 멀리서 예수님을 섬기는 아픔을 겪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주님을 섬기면서 성령과의 교통이 없을 때 일어난다. 마치 멀리서 얼굴을 가리운 채, 목자(예수님)를 섬기는 여인과 같은 신세가 된 것이다.

7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예수)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고하라 내가 네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아 1:7)

1. 고대에, 여인들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들과 일할 경우 얼굴을 베일로 가리웠다. “왜 예전처럼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목자(예수님)를 멀리서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신부의 아픔을 말한다.
2. 신부는 주님이 계는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제를 잃어 버리게 된 것이다. 계속해서, 신부는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 그리고 주님과 ‘침궁’의 친밀한 경험을 열망한다.

III.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자 하는 신부의 필사적 절규

7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예수)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고하라 내가 네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아 1:7)

- A. 영적 위기 속에서도, 신부는 필사적인 기도를 하며 부르짖는다. 신부는 주의 말씀의 입맞춤과 침궁의 경험을 기억한다. 신부는 ‘위대한 목자(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양떼 먹이는 곳을 알려주세요.” 이 부르짖음은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사랑스럽다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1. 신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부르짖는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내게 고하라.” 신부는 주를 향한 자신의 연약한 사랑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랑이 거짓 사랑은 아니다. 신부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정한 연인이다. 원수가 참소하며 신부를 속이려 해도, 신부는 전혀 가망이 없는 위선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신부는 자신의 연약한 사랑이 신앙의 위기와 영적 무감각 속에서도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2. 신부는 “가망없는 이 위선자에게 고하소서”라고 말하지 않았다. 신부는 “내가 하나님의 연인이라는 것을 난 잘 압니다”라고 외친다.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과 비슷하다. “주님, 내가 주를 배반했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 B. 신부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증에 목말라 한다. 이 갈증은 더 큰 사역이나 승진도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 신부는 주님이 양떼를 먹이시는 곳을 알기 원한다. 이것은 “나를 주곁으로 가까이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신부의 기도 표현이다.
- C. 양은 배가 부르면, 정오나 날이 한창 더울 때 눕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만을 원하지는 않는다. 주님과 친교를 통해, ‘한창 더운 날’, 즉, 삶에서 받는 압력들 속에서도 주님안에 안식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양은 배가 부를 때에만 정오에 눕게 된다.

2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시 23:2)

- D. 신부는 목자의 언어를 사용해 기도한다. “이 한창 더운 낮 시간에 어디서 나를 만족시켜 주시겠습니까?” 신부는 정오에 안식하기를, 즉, 예수님으로 다시 만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신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른 이들이 나를 지금까지 먹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를 먹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의 갈증을 어디서 만족시켜 주시겠습니까?”
- E.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바라신다. 주님은 우리가 포기하거나, 영적으로 무감각한 삶에 굴복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망없는 ‘위선자’나, ‘부적합한 자’로 취급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예전처럼 내 심령을 먹이시옵소서. 내가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었나이다. 멀리서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나의 포도원에는 잡초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잘못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패를 보면서, 사람들은 내게 화를 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외칠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 모든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불’이 다시 자신을 소멸하게 되기를 신부는 바라고 있다. 주님이 다시 영적으로 자신을 먹여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은 신부의 부르짖음이다.

IV. 예수님의 영광스런 대답 7 가지

여인 중에 어여쁜 (가장 아름다운)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아 1:8)

- A. 신부의 필사적인 기도를 들으신(아 1:7) 예수님은 신부에게 대답하신다(아 1:8-11). 주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7 가지로 말씀해 주신다. 먼저, 주님은 신부가 주님께 아름답다는 확증을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응답(8절)과 함께 사랑의 확증(아 1:9-11)을 세 부분으로 나눠 말씀하신다. 그리고 나서, 신부는 주님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아 1:12). ‘거룩한 열정’을 위한 신학적 필수 요소가 예수님의 대답 안에서 발견된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신부에게 자신의 첫번째 모습을 보여주신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정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실제적으로 제시해 주시는 ‘모사’(wonderful counselor), 또는, 목자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신다.
- B. 예수님은 신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여인중에 어여쁜 자야”(fairest of women). ‘fair’이란 단어는 대부분의 성경번역에서 ‘아름다운, 어여쁜’(beautiful)으로 번역되어 있다 (NAS/NIV 역). ‘여인중에 가장 아름다운 자야’(O most beautiful of women)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네 (마음의) 동산에 잡초가 자라고, 멀리서 나를 섬기지만, 나를 사랑하는 네 마음의 부르짖음을 내가 안단다”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주님 안에 소유한 신부의 아름다움으로 신부의 마음을 구애하고 계신다.

- C. 예수님은 “네가 아직 모르고 있었다면 사실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된다. 왜냐면, 이런 경우 우리는 보통 주님의 책망을 기다리기 때문이다.그러나, 우리 자신의 ‘동산’(마음)을 잘 돌보지 않고 멀리서 주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도 잘 아신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실패의 구덩이 속에 있을 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화난 아들들에게는 밭에 보여도, 주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책하고 경멸해도, 우리는 주님께 가장 아름다운 존재다. 수치심과 거절감을 느끼던 신부에게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셨다.
- D. 예수님은 신부를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 부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여인들,’ 즉, 예수님을 경멸하는 ‘거짓 종교들’과 비교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성숙한 사도들과 비교하신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에게 무관심한 50-60 억의 사람들과 비교해 우리를 보신다. 우리는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로,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며 사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눈에 이들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는 없다.
- E. 아가서 1:4 후반부에서, 신부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다음을 가르쳐 줬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리라.” 신부의 연약함을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 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신부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끔 하셨다. 영적 위기속에서, 주님은 먼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자”라고 인자하게 부르신 다음, 어떻게 해야 할 지를 가르쳐 주신다.
- F. 주님이 양떼를 먹이시고 친밀한 관계를 세우시는 곳에 대해 예수님은 세가지로 대답하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지체의 삶’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이 세가지 대답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유혹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지체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지 말해준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아 1:8)

 1. 지체의 삶에 헌신(8절): ‘부정(不淨)의 고립’을 거절한다
 2. 섬김의 사역에 헌신(8절): ‘부정(unsanctified)의 나태함’을 거절한다
 3. 영적 권위에 헌신(8절): ‘부정의 독립’을 거절한다
- G. 주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 가는 것은 개인적 친밀감을 말하기 때문에 ‘단수형’을 사용한다. 그렇지만, 달려가는 것은 사역을 말하기에 ‘복수형(우리)’을 사용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역하며 함께 달음질 하는 데 있어, 고립이나 나태함, 독립적 정신으로 하길 원치 않으신다.

H. 첫째, 우리는 부정적 고립을 거절하며, ‘지체의 삶’에 헌신해야 한다(아 1:8). 주님은 신부가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을, 즉, 지체의 교체에 동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양떼의 발자취’는 모든 양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주님은 신부에게 지체가 동행하는 곳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체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렴, 너를 판단하고 학대하는 화난 아들들에게 너무 과민반응할 필요가 없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체로부터 자신을 고립 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거절감과 쓴뿌리, 그리고 수치심에서 나온 것이다. 마귀는 우리를 고립시켜 파괴하기를 원한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 (히 10:25)

I. 둘째, 우리는 부정적 나태함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을 다해야 한다(아 1:8).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양떼를 먹여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어린 자들, 또는 양떼들을 먹이는 책임을 다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더 드러내실 것이다.

J. 세째, 우리는 부정의 독립을 거부하며, 영적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아 1:8). 신부는 진정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지체를 섬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위임하신 목자들(리더들)을 향해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세운, 또는 세우실 리더가 완벽한 리더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신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하지 못한 리더들과 관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목자들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을 드러내신다. 이들의 부족함이나 흠을 보게 될 때, 과연 우리가 배우는 자세로 그들의 장막 곁에 남아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험도 받게 된다. 그러나, 순종은 겸손이며, 권위에 대한 열린 마음을 말한다.

K. **요약:** 예수님의 세가지 대답은 지체 안에 머물면서 오는 세가지의 주된 유혹(시험)을 다루고 있다. 첫번째 시험은 우리가 화난 아들들에게 거절받고, 학대받고, 죄로 인한 수치심을 느낄 때, 쓴 뿌리를 가지고 고립하고 싶은 유혹이다. 이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지체안에 머무는 것이다. 둘째는, 이기적인 마음과 두려움에 대한 유혹(시험)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자들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타인을 섬길 때,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잘 발견하게 된다. 세째는 영적 권위를 따르지 않으려는 유혹(시험)이다.

V. 신부의 진심을 재확인 시켜 주시는 주님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10 네 두 뺨은 땅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11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아 1:9-11)

- A. 아 1:9-10 에서, 주님은 신부를 세가지에 비유하신다. 하나님 앞에 신부가 소유한 진실한 마음과 자원의 심령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지를 재확인시켜 주신다. 먼저, 주님은 신부를 ‘내 사랑아’라고 부르시며 말씀하신다. 사랑으로 신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 B. 의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진실하고도 강력한 신부의 바램을 하나님은 잘 아신다. 신부는 ‘바로 의 병거의 준마’와 같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 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아 1:9)

- 1. 준마는 말이다. 말은 힘과 강인함을 상징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義)’로 가지게 되는 신부의 힘을 말한다. 바로 의 준마들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말들로, 잘 조련된, 노련한 말들이었다. 주님은 신부의 힘을 이 준마들에 비유하셨다.
- 2. “바로 의 병거 가운데” 라는 표현은, 이 말들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면서 강인한 전투용 말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애굽의 말들은 당대에 가장 유명한 말들이었다. 바로는 세상에서 가장 고도로 숙련되고 조련된 말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바로는 그 말들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말들을 뽑아 자신의 병거를 끌게 했다. 바로 의 병거를 끄는 준마들은 최고 중의 최고였다. 거대한 마구간에 수 천마리의 말들을 사육하면서 바로 자신의 병거에 준마를 사용했다. 솔로몬 왕은 그 당시 세계 최고 갑부로서, 바로의 수많은 말들을 사들였다. 솔로몬 왕은 바로의 말들을 살 수 있는 몇몇 안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 C.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끌린다. 주님은 그분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신다. 예수님을 향한 신부의 진실한 헌신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신부의 마음을 만져 주신다.

네 두 뺨은 땅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11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아 1:10-11)

- 1. 아가서 전체에 걸쳐, 뺨은 감정을 말한다. 뺨(또는 얼굴)은 분노나 기쁨같은 사람의 감정, 심리상태를 드러낸다. 사람의 뺨을 통해, 그 사람이 기쁜 지, 화가 났는지, 슬픈 지를 파악할 수 있다. 사람의 감정은 뺨을 통해 표현된다.
- 2. ‘장식용 사슬(땅은 머리털)’은 물건을 아름답게 만드는 예술가의 노련한 작업을 통해 탄생된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예술가이시다(사 61:3). 주님은 우리의 정욕이나 분노를 다 아시지만, 예수님을 향해 자라나는 우리의 열정 또한 보신다. “네 마음이 아름답구나, 내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원의 심령’을 네 안에 아름답게 작업 해왔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감동하신다.

- D.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권위에 복종하는 마음과 예수님께 순종하려는 결단의 의지를 보신다.

10 네 두 뺨은 땅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11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아 1:10-11)

1. ‘목’은 상징적으로 ‘의지’를 말한다. 성경은 목이 ‘뺨뺨한’ 사람들에게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은 고집센, 또는 반항적인 사람들을 뜻한다. 목은 ‘거룩한 복종’을 말하기도 한다. 우리는 목을 사용해 고개를 원하는 방향으로 돌린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 정복한 장군은 패배한 왕의 목을 위에서 발로 누르게 되는 데, 이것은 굴복하라는 것을 뜻했다.
2. ‘금사슬’은 왕족의 권위를 말한다. 오직 왕족만이 금사슬을 소유할 수 있었다. 당시에는 왕 이외에 금사슬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금사슬은 귀하면서도 값비싼 물건이었기에, 오직 왕족들만이 금사슬을 차고 다녔다. 특별히, 왕의 상징이 새겨진 금사슬은 왕자가 마을들을 지날 때, 왕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차고 다녔던 귀중품이었다.

VI. 우리(삼위일체의 하나님) 안에 시작하신 것을 마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

11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장식)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아 1:11)

- A. ‘금장식’은 ‘거룩한 인품’을 말한다. 신부는 정금과 같은 인품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은 ‘불의 연단’을 통해 정결케 된 자들을 말한다(말 3:1-4). ‘은박’은 ‘주님의 구속’을 말한다. 신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속’을 가져다 주는 데 사용될 것이다. 사람들을 속박에서 건져내기 위해 신부는 주님께 양육받게 될 것이다.
- B. “우리가 너를 위하여 … 만들리라”는, 신부안에 시작하신 역사를 주님께서 완성 하시겠다는 ‘거룩한 약속’이다. 주님은 7 절에 “나를 어디서 먹이실 겁니까?”라는 신부의 질문에 대답하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은 신부에게 특별히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다. 정금과 같은 거룩한 인품을 택하는 자(금)가 되도록, 또 사람들을 속박에서 건져내는 ‘은’이 되도록 주님은 신부를 양육하실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삶의 영역에서도 승리하게 될 거라는 약속을 주시며, 사람들을 건져내는 구속역사의 ‘요원’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 말씀 하신다.

11장

신부의 패러다임(영성): 기초 진리(아 1:12-17) (The Bridal Paradigm: Foundational Truths)

I. 아가서 복습과 개관 1:5-17

A. 신부는 예수님께 묻는다, “저를 어디서 먹이시렵니까?”(아 1:7). 주님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며 7 가지로 대답하신다(아 1:8). 그리고는, 세가지 교육(아 1:8)과 세가지 사랑의 확증(아 1:9-11)을 주신다.

B. 주의 상에서 먹이시는 예수님께 신부는 세가지로 응답한다(아 1:12-14). 신부는 마음이 어두워 자신의 ‘포도원’을 잘 돌보지 못하는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안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

왕이 살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13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낭이요 14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송이로구나(아 1:12-14)

C. 신부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보시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계시를 더 많이 받게 되면서(아 1:15) 5 가지로 주님께 응답한다. 신부는 멋진 예수님(아름다운 하나님), 사랑하는 자(나의 사랑하는 자), 자신에게 쉼을 주시며, 영원한 영광으로 삶을 인도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아 1:16-17).

II. 십자가에 대한 묵상: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누리는 유익(아 1:13)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낭이요(아 1:13)

A. 신부는 십자가를 통해 받은 유익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를 받게된다(롬 3-8).

B. 몰약은 인도, 아라비아와 동아프리카에서 다양한 나무와 관목에 의해 생산되는 향기로운 고무질 점성의 삼출물이다. 몰약은 값비싼 용품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향수를 만들고(잠 7:17), 거룩한 기름부음의 오일로 분향을 태우며(출 30:23), 또 사람을 장사 지내는 데 사용되었다(요 19:39-40). 몰약은 아주 쓴 맛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드린 선물중의 하나가 몰약이었는데, 이것은 그분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예고한 것이었다(마 2:11). 십자가에서 몰약을 받으신 예수님(막 15:23). 이것은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주님의 의지를 뜻한다(시 45:8).

C. 몰약은 향품이지만, 육신의 죽음을 받아 들이는 고통스런 실재를 말한다.

D. 에스더의 단장이 나오는 본문을 보면, 단장의 한 과정으로 몰약과 다양한 향수로 목욕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던 것을 볼 수 있다(에 2:12). 몰약은 아가서에 8 번에 걸쳐 나온다(아 1:13; 3:6; 4:6, 14; 5:1, 5, 13).

- E. 고대에 일부 부유층 여성들은 몰약이 담긴 커다란 목걸이를 그대로 목에 건 상태로 잠을 잤다. 몰약의 향기가 밤새도록 방을 가득 채우게 하기 위해서 였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이 값비싼 선물을 선사했다.
- F. 신부는 밤새도록 마음에 남아있는 ‘몰약 향낭’같은 예수님을 선포했다. 십자가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신부에게 주신 너무나도 값진 선물이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주님의 “아낌없는 사랑의 헌신”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인내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계시해주는 사건이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과 고난의 인내를 통해 우리의 소중함을 배울수 있다. 우리가 존재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소중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창세기 1 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사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고,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누리기 위한 길을 여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사건이다.
- G. 몰약은 ‘밤새도록’ 신부의 마음에 남아있다. ‘밤’은 신부의 일편단심과 함께, 유혹과 시험의 밤을 말한다. 몰약은 항상 신부의 마음 안에 남아있다.
- H.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죽임 당하신 어린양을 보며, 영원토록 그 감격을 금치 못하게 될 것이다(계 5:8-12).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진실로 깨닫게 될 때,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함으로 넘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목)에 걸쳐진 ‘몰약향낭’이신 예수님을 영원히 만나게 될 것이다.
- I. 우리는 밤낮으로 마음에 ‘몰약향낭’을 담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십자가를 목상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아 1:4). 가장 순종적이며, 가장 깊은 예배의 마음을 지닌 사람들을 보면 역시 십자가를 가장 많이 목상한다. 십자가는 그들의 지속적인 목상과 고백의 주제이다. ‘십자가에 대한 목상’은 우리 삶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한다. 만약 십자가가 삶에서 고루해 졌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III.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기쁨에 대한 계시(아 1:14)

- A. 신부에게 예수님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고벨화 송이’ 같다. 고벨은 향기로운 꽃을 지닌 관목이다. 주님의 마음에 대한 계시를 지닌 자들에게 예수님은 고벨화 송이 같은 분이다. 우리 주님은 종교가 거짓으로 선포하는 것처럼, 부담되고 고루한 하나님이 아니다.

14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아 1:14)

- B. 예수님의 명령들은 부담을 주는 명령들이 아니며, 그분의 멍에는 진리만 바로 이해하면 쉬운 것이다.

3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요일 5:3)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 11:30)

- C. 예수님의 성품은 만발한 꽃들의 ‘송이(다발)’와 같다. 꽃 한송이가 아니라 송이(다발)인 것이다. 이것은 주님이 소유하신 다양하고 풍성한 아름다움을 강조한다. 엔게디 포도원은 당시 풍성한 향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향기를 갖고 계신다.

16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아 5:16)

- D. 우리는 ‘만발한 고벨화 송이’와 같은 예수님의 진리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 이 진리를 바로 이해하게 되면, 사람들은 더 쉽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크신 인자함을 지니신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해 설교해야 한다. 주님은 좋은 소식(복음)으로 우리를 ‘취하게’ 만드시는 향기롭고 달콤한 하나님이시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최소화하느뇨) (롬 2:4)

IV. 왕의 상에서 잔치를 즐기는 신부: 향기롭게 올라가는 신부의 경배(예배) (아 1:12)

- A.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잔치상을 준비하셔서(고전 10:21), 십자가를 통해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의의 선물(고후 5:21)을 통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신부는 그 상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구원에 대한 ‘진리의 양식’을 먹게 된다. 이 진리를 통해 신부는 향기처럼 올라가는 경배(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된다. 이 진리는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상에 함께 앉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탕자의 비유’와 병행되는 진리이다(눅 15:20-28). 예수님에 대한 두번째 계시는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이다.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아 1:12)

- B. ‘나도기름(향수)’의 향기와 같이 신부의 경배는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 감송(나도)은 이름 그대로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나도(감송)는 인도가 근원지인 동양식물로, 값비싼 향유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 C.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통해, ‘영적 향유’와 같은 경배가 우리 안에서 솟어나게 된다.
- D. 주님의 상에서 주시는 양식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 부터 솟아 오르는 향기와 같은 예배를 주님은 기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그리고, 이 향기는 감사와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된다.

14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고후 2:14-16)

- E. 누가복음 7 장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달려 들어간 한 창녀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녀는 주님 발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린다. 그 방울 가득 채운 향기는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을 담은 향기였다.
- F.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도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상에 놓인 양식들을 즐길 수 있고 즐겨야 한다. 왕의 상에 있는 영적 양식으로 우리 자신의 심령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수치심과 죄책감에 짓눌려 ‘영적인 아사’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6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 23:5-6)
- G.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후 5:21). 우리는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한 자들로, 살아있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드려야 한다. “주의 의로 나를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자신을 주께 드려야 한다. 죄책감에 휩싸여 빌빌기는 ‘거지’처럼 주님께 나아가지 말라.
-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13...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 (롬 6:11-13)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1)

- H. 당신에게는 어떤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가? 확신과 감사의 향기가 올라가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내 맘이 겹다”에만 치중하여, “난 하나님께 사랑스럽다”라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며 산다.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 때, 우리의 향기로운 예배(경배)가 주님께 상달되게 될 것이다.
- I. 예수님은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위대한 왕이시다. 왕이신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주님은 통치하는 왕이시기에, 그분의 모든 계획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될 것이라는 신뢰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다름아닌,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사랑으로 결단한 것을 성취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가장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계획은 성취되게 되어 있다.

J. 신부의 세가지 반응 요약 (아 1:12-14): 첫째, 신부는 왕의 상에서 영적 양식을 먹으며, 나도기름의 향기와 같이 올라가는 자연스러운 경배와 예배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아 1:12). 둘째, 신부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 ‘몰약’인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시면서 성취하신 역사를 지속적으로 목상하면서 영적 공급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아 1:13). 세째, 신부는 주님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맛보게 된다(아 1:13).

V. 신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안에 있는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한 계시(아1:15)

15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아름답고) 어여쁘다(아름답다) ... (아 1:15)

15 Behold, you are beautiful... My love ... (아 1:15, NAS/NIV역)

A. 이 본문에서, 우리는 신부의 패리다임에 대한 2 가지 근본진리를 엿볼 수 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지니게 되는 신부의 아름다움과, 두번째는 ‘내 사랑’이라고 신부를 부르시는 주님의 애정에 대한 계시다. 신부는 영적 미숙함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안에 확신을 갖는 모습을 보여왔다(아 1:12-14). 이 근본 진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닌 아름다움에 대한 진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시켜 준다.

B.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계절 내내 하나님께 아름다운 존재이다. 첫째, 우리의 사랑스러움은 ‘의의 선물’을 통해 온다(고후 5:17-21). 둘째, 거듭날때, 성령님은 우리안에 하나님께 ‘순종’ 할 수 있는 자원의 심령을 넣으셨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순종의 마음도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다(시 51:12; 마 26:41). 세째, 우리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지니신 마음들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과 열정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의 눈을 보여준다. 아름다움은 바라보는 자의 눈에 있다. 대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의 관점과 매우 다르다 (삼상 16:7; 사 55:7-9). 네째,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영원한 부르심을 통해 보신다.

C. 예수님은 믿는 자 한사람 한사람을 ‘내 사랑’이라고 부르신다. 예수님은 우리 한사람 한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좇기로 결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다, “나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요, 주님의 총애를 받는 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요 15:9)

20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 (요 21:20)

D.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내가 사랑 받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은 벅차오르게 된다. “예수님 때문에, 난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아름다운 존재입니다”라는 확신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신속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신부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가르친다.

4 네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것을 기억하리라) (아 1:4)

- E. 신부의 여정은 두 가지의 신앙고백으로 시작 되는데(아 1:5), 난 이것을 ‘은혜의 역설’이라 부른다. 신부는 죄성을 가진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이 아름다운 존재라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할 때, 우리 자신이 더럽고 추한 존재로만 느껴지게 된다. 우리가 추한 존재라고만 생각하고 살면, 우리는 추한 일들을 계속 반복하며 살게 될 것이다. 자신이 더럽다고 느끼는 사람은 말 그대로 더럽게 살게 된다. 그러나, 미숙하지만 자신이 주님께 아름다운 또,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고 주님께 달려가게 된다.
- F.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수록, 우리는 다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더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지닌 아름다움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신다. 복잡한 인간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사로잡힌 하나님의 마음(아 4:9)을 보면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아 1:4).
- G. **복습:** 도입부분에서, 신부는 “나는 마음이 검으나 하나님께 사랑스러우니(아름다우니)”(아1:5)라고 고백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는 어여쁘다(아름답다), 내사랑, 네 두뺨은 사랑스럽구나”라고 대꾸하셨다(아 1:8,1:9,10). 그 후, 신부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아 1:12-14). 또다시 맞장구를 치듯, 주님은 신부에게 “아름답다”라고 거듭 강조하신다(아 1:15).

VI. 비둘기의 눈을 가진 신부

15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아름답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아 1:15)

- A. 성경에서, 비둘기는 보통 ‘성령’을 상징한다. 여기서는 몇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 B. **일편단심:** 비둘기는 주변 시야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오직 정면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에 전혀 방해받지 않는다. 쉽게 말해, 비둘기의 눈을 소유한다는 것은 ‘좋은 눈(한 마음을 품는 것)’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마 6:22)

- C. **충실함:** 비둘기는 평생 한 짝만을 두고 산다. 짝이 죽으면, 다른 짝을 찾지 않는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충실함을 말한다. (참고- 배우자가 죽어 재혼하는 것을 불충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 D. 15 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아름답다’라는 계시를 가진 신부는 그에 힘입어 더 커다란 비전을 지니게 된다.

- E. ‘비둘기의 눈’을 가진 궁극적인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한 마음을 품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충실하신 분이시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님께 ‘비둘기의 눈’을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 F. 관점: 우리는 성령님의 관점으로 예수님과 우리 삶을 보아야 한다. 고벨화 송이와 같은 예수님, 향기롭고 아름다운 예수님을 보며, 일편단심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켜, 모든 정죄를 거부하고 주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VII. 신부의 경배와 믿음: 다섯가지 응답

16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멋있고) 화창하다 우리의 칙상은 푸르고 17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아 1:16-17)

- A. 하나님께 사랑 받는 아름다운 존재라는 계시(아 1:15)와 비둘기의 눈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된 신부는 기쁨으로 예수님께 화답한다. 신부는 예수님을 ‘어여쁜 자(아름다운 하나님)’, ‘사랑하는 자’, ‘삶을 안식과 평강으로 인도하는 분’, ‘다가오는 시대에는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분’, ‘화창한(즐거우신) 분’으로 고백한다.
- B. 신부는 예수님께 고백한다, “나의 사랑하는자, 당신은 멋지십니다.” 다시말해, “당신은 아름다운 하나님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 볼 수록, 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 할 수록, 신부는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더 큰 영적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16절). 아가서 2:3-5 은 이것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름다운 분, 즐거운(화창한) 분으로 보게 될 때, ‘온전한 순종’이라는 말을 더 쉽게 납득할 수 있게 된다.
- C.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사랑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의 동행이 기쁘고 즐거우며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동행이 될 거라는 약속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주님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아 1:12-17). 주위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 지라도,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1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함이니라(요 15:9-11)

VIII. 예수님의 사랑안에 거하는 신부: 안식과 확신, 그리고 영광(아 1:16-17)

16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칙상은 푸르고17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 1:16-17)

- A. 예수님의 사랑안에 거하면서, 신부는 풍성한 안식과 삶의 확신을 회복하게 된다(아 1:16). 신부는 ‘비옥한 침상,’ 또는 ‘푸른 침상’에서 안식하고 있다. ‘푸른 땅’은 때때로 ‘비옥한 땅,’ 또는 풍성한 성장을 주는 땅을 의미한다. 주님의 침상은 호화롭고, 푸르르며, 생명이 가득찬 침상이다. 광야(바삭 메마른 땅)와는 대조된다. 이 비옥한 침상과 같이, 우리의 확신은 풍성함으로 넘쳐야 한다.
- B. 주님의 침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갖게 되는 안식과 확신을 두가지로 말해준다.
1. **죄사함(용서)의 안식:** 예수님 안에 값없는 선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다.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으로 우리는 안식한다(고후 5:17).
 2. **친밀감의 안식:**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추구하면서 안식을 누린다. 삶의 제일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친밀감의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예수님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지혜를 담고 있다. 성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지 않는 한, 인간은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때만이, 우리는 인생의 궁극적 목적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죄사함의 확신만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 날 후회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 아직도 삶의 목적을 찾는데 고군분투하고 있다.
- C.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정죄의 두려움도, 후회의 두려움도 없어야 한다. 신부의 패러다임으로 살면, 교회가 우리를 종교적이라고, 또는 세상이 우리를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할 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지혜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
- D.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하며, 아름다움과 능력이 가득찬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신부는 “침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오직 ‘구원’이라는 깊은 연합을 통해 나온 표현이다(고전 6:17).
- E. 신부는 그들의 ‘집’이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 되어 있다고 말한다(아 1:17). 들보와 석가래는 집의 뼈대 구조를 잡아준다. 집의 뼈대 구조는 겉에서 보이지 않는다. 백향목과 잣나무는 솔로몬 시대 당시, 건물의 목재로 사용 되었는데, 뛰어난 내구성과, 아름답고 향기로운 목재로 매우 값비싼 나무였다. 백향목과 잣나무는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사용되어, 그 구조의 부패를 오랫동안 막아 주었다. 성전에 쓰인 목재는 ‘인류’를 상징한다.

F. 하나님은 영원한 집을 짓고 계신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할 처소는 강하고 영원하며 내구성이 매우 뛰어난 처소이다. 예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기에, 주님의 신부를 위한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실 수 있게 되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튼튼한 집이요,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집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만드신 아름답고 튼튼한 집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신부는 그 집을 ‘우리의 집,’ 또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는 처소라 고백하고 있다.

19 ...너희가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5 너희도 ...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벧전 2:5)

12장

하나님의 사랑안에 있는 신부의 정체성(아 2:1-7) (The Bride's Identity in God's Love)

I. 신부의 영적 정체성: 두가지 고백

- A.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영원한 동반자’를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다(엡 5:31-32; 계 19:7-9).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사랑의 멍에’를 자원적으로 지려는 신부야말로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학수고대하며 기다리신 최고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재산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사랑을 얻기 위해 예수님은 죽음을 감당하셨다. 우리가 창조되고 구속받은 이유도 ‘주님의 기업’으로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기 위함이다.
- B. 여기서, 신부는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픈 아름다운 ‘장미’,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기를 바라는 정결한 ‘백합화’로 그려진다. 주님은 먼저, ‘주님의 의’로 신부를 아름답고 정결케 하시고, 성령을 통해 신부 안에서 일하신다. 신부는 ‘장미’이다. 여기서 장미와 백합화는 신부를 말한다. 예수님은 그 다음 구절에 신부를 ‘백합화’에 비유하신다(아 2:2).
- 나는 사론의 수선화(장미)요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아 2:1)**
- C. 신부는 시적 표현을 사용해 ‘예수님의 기업’인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한다. 하나님이 사모하는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반영하기 위해, 신부는 이 두가지 고백을 사용하는 데, 이 계시는 아가서 1:12-17 에 나타난 근본 진리를 따른다. 신부의 첫번째 고백은 “나는 검으나, 아름다우니”였다(아1:5). 신부는 연약함 가운데서도 자신이 하나님께 아름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고백후에, 예수님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다시 확증시켜 주셨다(아 1:8, 15).
- D. 장미는 그 색과, 아름다움, 그리고 향기때문에 ‘꽃의 수장’으로 선택되었다. ‘사론의 수선화(장미)’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얼마나 아름답게 바꿔 놓으실 지를 설명하는데 사용되기도 했다(사 35:1-2).
- E. 신부는 자신이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취하게 만드는 장미’, 즉 ‘예수님의 기업’이라는 진리를 알게 된다. 주님이 사모하는 상급은 딱 한 가지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속한 ‘기업’인 우리가 형용할 수 없을만큼 ‘아름답게’ 되는 것이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약속한 바로 그 기업입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할 때, 우리의 심령은 변화를 거듭하게 될 것이다.
- F.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이다”라는 계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 ‘예수님을 위한 장미’가 되게 하시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셨기 때문이다.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엡 1:17-19)

- G. 신부는 자신을 ‘어둔 골짜기에서 자란 정결한 백합화’로 본다. 백합화는 ‘정결’을 뜻한다. ‘골짜기’는 비천하고 어둔, 이 타락한 세상을 말한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의 ‘골짜기’에 한 송이의 백합화를 두셨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로 정결케 되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백성들로, 주님께는 매우 특별한 존재이다. 물론, 신부는 여전히 ‘검은 심령’을 가지고 살지만 말이다(아 1:5).
- H.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한 자들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 가득한 ‘가시들’과 같은 ‘거짓 종교들’ 가운데 거하는 ‘정결한 백합화’이다. 진실한 교회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득권’인 정결함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 가도록 힘쓰는 교회이다.
- I.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데에는 네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우리는 의의 선물을 받았다 (고후 5:17-21). 둘째, 우리는 거듭날때 자원하는 심령을 받았다(요일 3:9; 마 26:41). 셋째, 하나님의 성품, 즉, 주님이 일반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사시는 지에 따라 결정된다(사 55:7-9). 넷째, 하나님은 수십억년 동안(영원토록) 예수님의 신부로 살게 될 우리의 부르심을 통해 보신다.
1. 우리는 의의 선물로 정결케 된 ‘순결한 처녀’와 같다(고후 11:2-3). 이 정체성은 거룩함을 위한 여정에 꼭 필요한 마음가짐으로, 우리 삶의 성공여부를 가름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죄책감을 거부하고 이 진리위에 굳게 서야 한다.
 2. 주님이 간절히 사모하는 대상은 바로 우리들이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동반자, 주님의 신부로 택하셨다. 이 진리는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가치를 깨닫는 데에 꼭 필요한 진리이다. 거절감을 거부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대상이라는 진리위에 굳게 서야 한다.
- J.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가치/성공)을 찾을 수 있게 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진리가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며, (하나님/타인을) 사랑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 K. 주님은 우리를 ‘장미’, ‘백합화’로 선포하신다. 이 진리는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과 실패감, 열등감을 제거해 주며, 우리 삶의 진정한 성공을 재정의 해준다.

- L.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성공을, 달성한 업적이나 사회적인 영향력을 통해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존재’라는 진리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통해 찾아야 한다. 실패의 두려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나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진리위에 서야 한다.
- M.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변화, 그리고 계시가 얼마나 자랐는지를 보면서 삶의 성공여부를 측정해야 한다. 세상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성공여부를 가려야 한다.
- N.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적 성공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다. 그래서, 실패감 속에 목표와 목적을 상실한 채로 살아간다. 우리는 결코 세상적인 성공을 모방할 필요도 없으며, 세상적인 견해들에 압박을 받을 필요도 없다.
- O. 주님을 향한 아주 조그마한 (순종의) 마음의 움직임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권능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미세한 마음의 요동도 기억하시고, 칭찬하며, 상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조금씩 가꾸어 나가는 우리의 노력을 주님은 매우 높게 평가하신다. 사도 바울이 지녔던 열정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계시에서 비롯된 것이다.

11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고후 5:11)

- P. 이 계시를 가지고 살아가려는 신부의 모습이 신앙 여정 말머리에 나와 있다. 아가서 8 장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것을 참조하라. 이 계시는 우리의 신앙여정을 시작하는 데 있어 귀한 초석이 된다.
- Q. 우리는 하나님께 ‘매우 특별한 존재’이다. 참고: 하나님의 목적에는 오직 한송이의 장미와 한송이의 백합화만이 있다.

II. 신부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확신시켜 주시는 예수님 (아 2:2)

- A. 예수님은 신부를 ‘정결한 백합화’로 귀하게 여긴다고 선포 하시면서, 신부의 고백을 확신시켜 주신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아 2:2)

- B. ‘가시’는 죄를 뜻한다. 가시는 아담의 죄, 곧 그 저주의 결과로 나왔기 때문이다. (히 6:8)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18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 낼 것이라 (창 3:17-18)

III. 예수님의 특별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이해하게되는 신부(아 2:3)

- A. 신부는 뛰어난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을 ‘수풀가운데 사과나무’ 같다고 선포한다. 다시말해, 이 땅의 모든 남자들 중에, 예수님 홀로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는 ‘사과나무’라는 것이다.
3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아 2:3)
- B. ‘사과 나무’는 ‘시원케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5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음이니라(아 2:5)
- C. 신부는 이 땅에서 자신을 가장 상쾌하게 해주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2 왕(예수님)은 인생(인자들)보다 아름다와 ... 그러므로 하나님은 왕에게 영영히 복을 주시도다 (시 45:2)
16 ...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다 (아 5:16)
- D. ‘숲의 나무들(수풀)’은 다른 나무들보다 우뚝 솟은 나무들로, 이 땅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을 말한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자와 거만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13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사 2:12-13)
10...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11(네브갓네르사르 통치때)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14 그(천사)가 소리 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 (단 4:10-14)

IV. 예수님 안에 누리는 영적 안식과 즐거움(아 2:3-4)

- A. 주님의 상에서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늘’ 아래 안식한다. 우리가 성취한 업적을 보면서도 우리가 안식할 수 없다. 우리의 그늘이 아닌, 주님의 그늘 아래 안식해야 한다. 우리에게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무는 ‘주님의 나무’ 밖에 없다. ‘새롭게 되는 심령’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낼 수는 없다. 우리 자신의 외적 성숙도를 보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려 한다면 우리는 결코 새롭게 될 수 없다.
3...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아 2:3)
- B. 우리는 예수님의 잔치 상에서 말씀을 먹으며 커다란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커다란 기쁨”과 “달콤한 실과”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이며 기쁨이다.

- C. ‘달콤한 실과’는 아름다운 신랑이요, 왕이신 예수님과 관계에서, 그리고, 주님 말씀에 대한 계시에서 오는 열매를 말한다. 죽어버린 종교, 잔인한 종교들은 우리의 ‘입맛’을 쓰게 한다. 지속적인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기본이다. 수십년에 걸친 지속적 영적 성장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겨야 한다.
- D.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주는 ‘뛰어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에 대한 진리,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능력’으로 말씀에 대한 계시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다. 이 기쁨으로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극복할 수 있다.
- E. 신부는 “어디서 양떼를 먹이십니까?”라고 주님께 물었다(아 1:7). 주님은 왕의 상에서 신부를 먹이셨다(아 1:12). 신부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양식을 먹었다. 신부는 그 상에서 아가서 1:12 -2:3 에 나오는 진리들로 풍성한 잔치를 벌이고 있다.
- F. 우리는 원수(죄, 실망, 고난 등등)의 목전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시 23:5)

- G.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잔치 상’에 초대받았다. 이 잔치의 완성은 ‘어린양의 혼인잔치’에서 성취된다(계 19:7). 성찬(식)상도 상징적으로 이것을 가리킨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포도주의 집” 또는, ‘하나님의 포도주가 흐르는 곳’으로 해석한다. 향연이 벌어지는 포도주의 집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맘껏 즐기는 곳을 의미한다.

4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아 2:4)

- H. 주님의 상이 있는 잔치 집, 즉, 주님의 사랑을 맘껏 즐기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왕은 신부를 침궁으로 인도했다(아 1:4). 예수님은 길을 헤매이는 자, 잃어버린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눅 15:3). 안타깝게도, 길을 잃고 헤매이는 하나님의 양들 중에는 이 진리를 거부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 I. 예수님은 잔치집을 “주님의 사랑을 축하”하는 자리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 상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 주님은 긍정적, 부정적 방법을 모두 동원하신다. 주님은 우리 안에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달콤한 말씀을 통해, 꿈이나 환상을 통해, 또는, 새로운 우정의 기쁨을 통해 우리는 자발적으로 주님의 리더십을 따르며 주님의 상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문들을 닫으시고 우리의 계획들을 좌절 시키셔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훈련시키시며 주님의 상으로 인도하기도 하신다.

V. 신부의 삶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깃발: 사랑의 리더십 (아 2:4)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아 2:4)

- A. 예수님의 현명한 리더십, 사랑의 리더십은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준다. 고대의 군대는 특정한 기, 또는 깃발을 들고 대대적 행진을 벌였다. 작은 단위의 소부대들도 자신들의 깃발을 가지고 있었다.
- B. 우리 삶 위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깃발’은 ‘사랑의 리더십’으로, 삶의 여러가지 면에서 나타난다. 먼저, 이 깃발은 하나님의 자비로 갖게되는 ‘확신’을 말한다. 우리가 실패할 때, 주님이 주시는 깃발은 절대 거절감이 아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 받는 자입니다”라고 당당히 고백해야 한다. 둘째, 이 깃발은 우리 삶의 부정적인 환경도 뒤엎으시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말한다(롬 8:28).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깃발을 절대 무시해서는 않는다. 세째, 이 깃발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죄가 주는 ‘거짓된 위안’이 아니다.
- C.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다. “예수님은 나의 실패와 고통 속에서도 나를 새롭게 하시며, 유희와 삶의 압박 가운데서도 ‘지혜롭고 사랑스런 리더십’이라는 깃발을 내 위에 세우시는 ‘사과나무’입니다.”

VI.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누리고 싶어하는 신부의 절규(아 2:5)

- A. 신부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누리고 싶어 부르짖는다. 아 1:12-2:4 의 뜻을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더 증가되게 된다. 주님은 “나를 인도하소서”(아 1:4)라는 신부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5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음이니라(아 2:5)

- B. ‘사과’가 시원케 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처럼, 마른 포도인 ‘건포도’는 성령의 역사를 말한다. 포도는 상징적으로 ‘성령의 포도주’를 말한다. 다시말해, 신부는 “성령을 더 부어 주셔서 나를 도우시고, 예수님이 더 내게 임하셔서 나를 시원케하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다.
- C. 신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을 누리고 싶은 삶의 비전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앓이’를 하며 사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신다. 신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가, 그녀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하는 고통스러울 만큼의 ‘배고픔(목마름)’을 창출해 냈다. 이것을 일단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 예전의 “평범했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된다. ‘예수님의 사랑’ 속에 폭 빠져 들게 되기 때문이다.
- D. 영적 사랑앓이의 두가지 측면.
 - 1. “사랑의 감정들”- 신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사랑으로 권능 입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느낌을 좋아한다.

- 2. “영적 굶주림의 고통들” -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하도록 새로운 비전을 일깨워 주실 때, 그것을 쉽게 충족시켜 주시지는 않는다. 그것을 통해 생기는 배고픔은, 고통스럽고도 절박하며, 심지어는 뼈를 깎는 듯한 고통까지 느낄 정도의 굶주림이다. ‘사랑앓이’의 해법은 오직 인내 밖에 없다. 우리에게 절박한 굶주림의 고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증거를 나타낸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 5:3-4)

VII. 하나님의 품으심 경험하기 (아 2:6)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아 2:6)

- A. 신부는 자신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두가지 활동을 잘 알고 있다. 이 두가지 활동은 하나님의 ‘왼손과 오른손’을 말한다.
- B. 하나님의 ‘왼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활동과 역사를 말한다. 왼손은 머리 밑에 감춰져 있기에 볼 수가 없다. 주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많은 영역들 가운데 일하신다. 축복과 공급, 보호를 위해 많은 것들을 묶어 놓기도 하시고, 풀기도 하신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전혀 알 수도 없는 여러 문제들과 고통으로 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하신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고위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시며, 보이지 않게 우리의 장래의 배우자를 예비하시기도 하신다.
- C. 하나님의 ‘오른손’은 보이는 하나님의 활동과 역사를 말한다. 솔로몬이 신부앞에 서서 신부를 안으려는 모습을 생각해 보자. 신부는 솔로몬을 보고,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느끼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달콤한”임재의 경험을 말한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오른 손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VIII. 전략적인 영적 계절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아 2:7)

7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아 2:7)

- A.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님은 때때로 전략적인 계절들을 위임하신다. 이 계절 가운데, 성령님은 ‘주님의 마음에 대한 새롭고 깊은 계시’를 우리 안에 확립하고자 하신다. 하지만, 이렇게 삶의 한 계절을 구별하여 하나님과 말씀안에 깊이 들어가야 하는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을 한 번 보라. 그는 인봉책을 먹도록, 다시말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도록 지시를 받았던 것을 볼 수 있다(계 10:9-11).
- B. 이 계절동안 성령님은, 신부 안에 주를 향한 사랑앓이를 일깨우고, 말씀에 깊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이끄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 신부는 예수님의 그늘 아래 안식하며, 잔치상에 있는 ‘사과와 포도’로 자신의 영적 필요를 충족시킨다.

- C. 이 계절동안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신부를 깨우거나 방해하지 말아 줄 것을 정중하게 부탁하신다. 영적 계절이 바뀔 때가 되면 예수님이 알아서 직접 우리를 깨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 아 2:8 은 이것을 잘 보여준다. ‘예루살렘 여자들’은 성령님의 다양한 활동과, 하나님께서 위임하시는 계절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신자들을 말한다.
- D. 솔로몬은 ‘노루와 들사슴’으로 그들에게 부탁한다(아 2:7). ‘노루’와 ‘들사슴’은, 이 영적 계절에 머물고 있는 어린 신부를 사람들이 온유하고, 민감하게 대해야 함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다. 노루나 사슴은 쉽게 놀라는 동물이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쉽게 시선을 빼앗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영적 계절에 있는 사람들을 온유함과 민감함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인식해야 한다.
- E. 이것에 대한 좋은 예는 베다니 마리아의 이야기다. 동서분주하며 주의산만했던 마르다. 동생 마리아를 자기와 같이 만들려던 마르다를 예수님은 교정하신다(눅 10:38-42). 마리아는 주님 발아래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낌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순종해 나가는 부르심을 신중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나온다(42절). 우리도 이 ‘좋은 편’을 택해야 한다. 우리 대신 결정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은 ‘주의 발아래 앉는 것’(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역자주)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기 위해, 그것을 ‘필요한 한가지’와 삶의 ‘좋은 길’이라고 표현하셨다. 이것을 통해, 여러가지 논쟁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종지부’를 찍으신 것이다. 마리아의 결정은 우리의 영원한 부르심을 함축적으로 말해준다.
- F. “내 사랑이 원하기 전까지”에서, ‘내 사랑’은 히브리어로 그것, 그, 또는, 그녀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 NAS 성경역본은 이 구절을 “그녀가 원하기 전까지는 사랑을 깨우지 말라”라고 정확히 번역하고 있다. “그것이 원하기 전까지는”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가’라고 번역하면, 예루살렘 여자들이 주님을 깨우는 결과가 되는데, 주님은 노루나 들사슴 같이 쉽게 놀라거나, 보호받아야 하는 분이 아니다. 방해받지 말아야 할 사람은 어린 신부다. 아가서 전체를 통해, 예수님은 이 구절을 세번 반복하신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까지 깨우지 말라”(아 2:7; 3:5; 8:4). 8장 4절에서는 “그녀를 방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8장에 나오는 구절에서도, 주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부를 품으신다. 그러나, “노루나 들사슴”이라는 표현은 생략하신다. 그것은, 신부가 성숙하게 되어, 예전처럼 쉽게 놀라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엡 4:14).

- G. 삶을 사는 동안,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영적 계절을 부여 하시는데, 이것을 사계절에 비유할 수 있다. ‘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진리(계시, 도전, 초청, 등)의 씨앗을 심으신다. 봄은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계절로 우리를 흥분시킨다. ‘여름’은 심겨진 진리의 씨앗들과 경험들을 가꾸는(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가지를 치는) 계절이다. 성장의 계절이지만, 뜨거운 태양아래 많은 수고가 요구되는 계절이기도 하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 열매가 무르익고, 다른 이들이 함께 그 유익을 누리며 축하와 잔치의 계절이다. 마지막으로, ‘겨울’은 죽음의 계절이다. 추수가 끝난 후, 겨울이 오면 모든 것이 죽게된다. 그러나, 겨울은 다음 해의 추수를 위해 땅이 준비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13장

도전받는 안락의 지대 (아 2:8 -17) (Challenging the Comfort Zone)

I. 신부의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 예수님의 기업이 되는 것

- A. 신부는 이제 자신의 영적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예수님은 의무적 순종,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 다시말해, 순종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영원한 동반자(신부)'를 갈망하신다.
- B.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재산은 인간이 소유한 '사랑의 마음'이다. 예수님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원치 않으신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속하시고, 인간의 사랑을 얻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 C. 예수님은 각 사람을 향한 특정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신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상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다시말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축하하며 잔치하기 위함이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리더십의 목표(우리를 향한 것)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눠 주시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부르심이 있다(아 1:2,4).

4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아 2:4)

- D. 신부가 사랑앓이를 하고 있기에, 신부의 삶에서 예수님의 리더십은 더 큰 효력을 발휘한다. 신부는 예수님을 향한 더 큰 갈급함으로 부르짖는다.

5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음이니라(아 2:5)

- E.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사과나무 그들 아래 혼인 잔치상에 앉아 있는 신부를 방해하지 말아 줄것을 정중히 부탁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흘러, 신부를 새로운 계절로 이끄시기 위해, 직접 신부를 깨우시게 된다.

7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방해하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아 2:7)

II. 아가서 2:8-17 개관

- A. 이 본문은 술람미 여인의 삶에 주목할 만한 ‘전환점’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다. 아가서 4-8 장에 나오는 신부의 깊은 헌신은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통해 생기게 된다. 여기서, 예수님은 열방을 다스리는 ‘주권적인 왕’의 모습을 신부에게 보여주신다(아가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세번째 계시). 신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양떼 먹이시는 ‘목자’(아 1:7-11)로, 잔치 상에서 사랑으로 포도와 사과를 먹이시는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로(아 1:12)만 알아왔다. 이제, 신부는 모든 ‘산들(장애물)’을 쉽게 뛰어 넘어 오시는 ‘왕’이신 예수님, 즉, 새로운 면모를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된다.
- B. 아가서 1:4 에서 술람미 여인은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주를 따라 달려가리라”라고 기도했다. 신부의 두번째 영적 위기는 예수님이 “함께 달려가자”라고 소개하시는 새로운 계절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신부는 자신의 두려움을 발견하며, 두번째 위기를 맞게 된다. 첫번째 신앙의 위기는 자신의 ‘죄성’을 발견한 아가서 1:5-7 였다.
- C. 예수님은 신부에게, 머물고 있는 ‘안락의 지대’를 떠나 함께 깊이 동역하자고 신부를 초청하신다. 그러나, 신부는 두려움 때문에 순종을 거부하고, 예수님 혼자 돌아 가시라고 응답하게 된다(아 2:17).
- D. 자신의 삶 위의 주님의 깃발(목적)이 사랑이며, 그 사랑을 주님이 나눠주신다고 고백하던 신부를 예수님은 시험하시게 된다. 여기서, 신부의 딜레마는 예수님의 리더십이 선하다는 것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점이다. 다시말해,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할 때 엄청난 대가와 고통이 따른다 할 지라도, 주님께 백퍼센트 순종할만큼 주님의 리더십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이다.

III. 신부에게 주권적 왕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산을 빨리 넘어 오는구나
9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 (아 2:8-9)

- A. 술람미 여인은 ‘주권적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얻게 된다. 신부는 ‘높은 산’, 즉, 고난의 산들을 쉽게 정복하시는 “열방의 주,” 예수님을 보게 된다. 여기서, 신부는 산들을 쉽게 정복하며 뛰어 넘는 ‘노루와 어린 사슴’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다. 노루나 사슴에게는 무한한 에너지로 산을 쉽게 질주하며 오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B. 왕이신 예수님은 모든 흑암의 세력과 정사들을 물리치셨다(엡 1:22). 예수님은 모든 장애물(육적인 것과 악한 것)들을 다 이기셨다. 우리는 ‘역경의 산들’에게 옹기우라고 명령할 수 있다. 산보다 높이가 낮은 언덕은, 삶에 직면하는 ‘작은 어려움들’을 말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막 11:23)
- C. 스톱바벨은 그 앞에 놓인 역경의 산들에게 ‘은혜’를 외쳐야 했다.

7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들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슌 4:7)

- D. 신부는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인식한다. 안락의 지대를 벗어나 위험한 ‘산들’로 함께 가자고 부르실 때, 예수님은 사랑과 인자함으로 말씀 하신다. 신부는 예수님을 가리킬 때마다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른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언급할 때도 신부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한다. 아가서에서, 예수님은 신부를 부를 때마다 애정을 표현하는 “내 사랑,” 또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어여쁜 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신다. “내 사랑”이라는 표현은 아가서에 22 번이나 나오며,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도 22 번이나 나온다.

IV. 안전, 보호의 벽

9...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 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아 2:9)

- A. 이 구절에서는, 서서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은, 원수를 밟으시고 승리하사, 안식하며 앉아 계신 모습으로 나오신다(시 110:1). 그러나, 스테반이 순교를 당할 때, 주님은 일어서서 채로 그를 맞으셨다(행 7:55). 예수님이 일어서 계실 때에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 B. 예수님은 ‘벽 뒤에 서서’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있는 술람미 여인의 집을 엿보신다. 요한 계시록에서 우리는 문 밖에 서서 라오디게아 교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계 3:20).
- C. 신부는 그 벽을 “우리의” 벽이라 기술하고 있다. 주님이 신부를 깨우시기 전(아 2:7)까지, 주님의 상에서 방해받지 않고 머무르게 해 준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었기에, 그 벽은 ‘자신의’ 벽이 아니라, ‘우리의’ 벽인 것이다.
- D. 예수님이 ‘창문 틈 사이’로 신부를 엿보는 것은, 신부를 구애하여 더 깊은 주님과 관계로 인도하기 위한 시적 표현이다.

V. 깊은 동역을 위해 안락지대 밖으로 신부를 불러내시는 예수님

10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 2:10)

- A. 예수님은 신부와 깊은 동역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부에게, 안락한 지대에서 나와, 함께 이 타락한 세상의 산들을 정복하자고 신부를 불러내신다. 예수님은 열방을 주께 복종시키는 데 신부가 함께 동역할 것을 신부에게 위임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마 28:19)

- B.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산’이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높은 산들은 우리의 안전과 안락에 도전을 주는 산들로, 어려운 과제와 관계를 수용해야 하는 도전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신부는 그 위험과 ‘높은 산들’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그늘 아래 앉아, 사과를 즐기며 안식하기만을 바란다(아 2:3).
- C. 신부는 ‘행하는 믿음’과, 영적 전투의 ‘위험성’을 좋아하지 않는다. 존 워버는 “믿음이란 ‘RISK’(위험감수)란 글자를 대변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믿음(하나님 안에서의 확신)이 곧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 D. 신부의 고민은 “안락의 지대에서 나와 예수님과 함께 그 위험을 감행하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이다. 주님께 100 퍼센트 순종하는 ‘도박’을 감행할 것인가? 육의 생각으로는, 배 밖에 나와 물위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배 안에 머무는 것이 더 안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실제적으로 지녀야 할 진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E. 예수님과의 성숙한 동역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안락의 지대’를 떠나야 한다. “안락한 지대에 머무르는 기독교”로도 천국에 들어 갈 수 있을 지는 모르나, 주님과 깊은 동역은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를 깊은 동역으로 이끄시기 위해 예수님은 아가서 2:8-10 에서 7 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오시고, 뛰어 넘으시고, 건너시고, 서시고, 보시고, 엿보시고, 말씀하신다.

VI. 추수를 위한 예언적 징조

- A. 예수님은 추수(열매)의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솔람미 여인을 격려하신다.
11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12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13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가자 (아 2:11-13)
- B. 추수의 계절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시며, 주님은 ‘때의 징조’를 강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부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 C. 주님은 ‘지난 겨울’에 보여주셨던 신실함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신다. 겨울은 차가운 비가 내리는 ‘어두운’ 계절이다. 겉으로 볼 때, 거의 모든 것이 죽은 듯한 ‘고난’의 계절이다. “삶의 고비를 과연 넘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향한 깃발이 ‘사랑’이라는 것을 재증명해 주신다. 예수님은 ‘지난 날’에 보여주셨던 주님의 개입하심과 신실함을 지금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른다. “겨울도 지나고 차가운 비는 그쳤어도, 네 마음은 내 안에 아직도 살아 있잖니!” 예수님은 신부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신다(아 1:4). 이것은 아가서의 핵심 내용중의 하나이다.

- D. 예수님이 과거 고난의 시기에 신실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다가오는 시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산’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실 거라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는 ‘벽’ 뒤에 숨을 필요가 없다.
- E. 예수님은 다가오는 추수의 예언적 징조를 강조 하시면서 미래에 대해 말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의 징조들을 보며 격려받아야 한다. 이 징조들은 곧 ‘풍성한 수확’이 있게 될 거라는 것을 보증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수의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곧 준비해야 한다는 긴박성을 느껴야 한다. 세월을 낭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 F. 예수님은 추수의 때가 가까웠다고 지적하시면서 제자들을 격려하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어업을 내려 놓았다. 그 후 3 년이 지나기도 전에, 사도행전의 부흥이 터졌고, 그것은 곧 예루살렘의 부흥으로 이어졌다.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제자들에게 필수 조건이었다.

35...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요 4:35)

- G. 예수님은 추수의 징조를 지적하신다. 포도나무에 꽃이피는 것을 보면, 포도수확의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확연히 드러나는 “부흥의 꽃”이 현재 열방에 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다.
- H. 이스라엘에는 추수의 때가 되면 산비둘기의 소리가 들린다. 무화과 나무는 무르익기 전에 푸르른 무화과 열매를 맺는다. 잔잔한 포도의 향기는 수확이 가까웠음을 알린다.
- I. ‘노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추수의 시작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이 우리 앞에 임박해 왔다. 이 ‘노래’는 전세계적으로 기도의 집이 세워지고, 수많은 무리가 스타디움에 모여서 수일간 찬양하고 예배(세계 기도의 날:Global day of Prayer, 더 콜:The Call 등등) 하면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
- J. 예수님은 신부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아름다운) 자”라고 인자하게 부르시며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신부가 주님의 부탁을 거절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신부가 자신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을 때(아 1:7-8)에도 그랬듯이, 주님께는 아직도 신부가 아름다운 존재이다. 주님께 우리가 사랑받고 아름답다고 느낄 때, 우리는 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동기를 갖을 수 있게 된다. 주님은 절대 화난 비난의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는다.

13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아름다운) 자야 일어나서 함께가자(아 2:13)

VII.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안전하다

14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아 2:14)

- A. 우리가 두려움과 씨름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인자한 사랑을 드러내신다. 신부를 “나의 비둘기”라고 부르시면서, 신부의 진실함을 확증시켜 주신다. 비둘기는 순결함과 충성을 말한다. 성령님은 ‘순결한 비둘기’로 그려진다.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신부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아 2:17 에서 신부가 타협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나의 비둘기야”라고 신부를 부르셨고, “교활한 독사”라 하지 않으셨다.
- B. ‘바위의 틈’과 ‘낭떠러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을 누린다. 바위의 틈은 완성된 ‘십자가의 역사’를 말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며, 연약함 가운데서도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야한다.
- C. 모세시대에 예수님은 ‘신령한 반석’이셨고, 현재는 ‘교회의 반석’이시다.
4...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전 10:4)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8)
- D. 하나님은 모세를 (산의 넓은 지대에) 반석 틈에 숨기시, 하나님의 얼굴과 영광을 봄으로 죽게 되는 위험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셨다.
**20 또 가라사대 네가(모세)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21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위에 섰으라 22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출 33:20-22)**
- E. 바위(반석)의 틈에 숨는 것은 일종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었다. 바위의 ‘틈’은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상처받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 ‘반석의 틈’, 또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게 되었다.
- F. “낭떠러지의 은밀한 곳”은 예수님의 ‘부활의 비밀’을 말한다. 인자가 하나님께로 올라간 바로 그 궁극적인 은밀한 장소를 말한다. 낭떠러지는 밑에서 위로 보면, 마치 야곱의 사다리(창 28:12-17)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위로 쪽 벌어 있다. “낭떠러지의 은밀한 곳”은 킹제임스 역에 “계단의 은밀한 곳,” NAS 역에는 “가파른 길의 은밀한 곳”으로 번역되어 있다.
- G.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반석의 틈과 낭떠러지의 은밀한 곳, 즉, 부활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장소에 서서 주님을 경배하게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히 서야한다.

H. 연약할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도, 경배와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 우리는 그 속에서 위선자가 된 듯한 두려움을 훔훔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죄와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시고, 우리를 밟게 보실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달아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사랑의 확신으로 주님께 달려가길 원하신다.

14...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 2:14)

I. 갯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세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이것은 베드로 안에 있던 두려움, 그리고 그의 연약한 육신에 기인한 것이었다.

34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4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 26:34, 41)

J.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날 밤 넘어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다 아셨음에도, 그의 자원하는 심령을 보셨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게 기도하렴. 내가 네 음성을 듣고 싶구나.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K. 주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응답하는 심령을 기뻐 하신다. 아직 성숙하지는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예수님이 신부를 ‘어여쁘다(아름답다)’라고 부르실 때에도, 신부는 여전히 ‘나무아래’와, ‘벽’ 뒤에 있다. 예수님은 주님께 순종하려는 우리의 진심을 잘 아신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사랑이 성숙한 신부와 같이 성숙해지게 되리라는 것도 주님은 잘 아신다(아 4:7).

VIII. 타협에서 해방되는 기도

A. 신부의 얼굴을 보고,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권고에 신부는 SOS 요청을 보낸다. 자신의 삶에 존재하는 타협의 ‘작은 여우들’을 잡아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는다.

15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아 2:15)

B. 여우는 밤을 이용해 포도원을 망쳐놓는 교활한 동물이다. 대낮에 공격하는 사자만큼 담대하지는 않다. 그러나, 작고 빠르며, 교활하기 때문에 여우를 붙잡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C. 우리 마음의 포도원 안에 있는 “작은 여우들”은 두려움과 죄의 생각들, 태도, 말,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계속 헛되게 사용하는 작은 타협들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안락의 지대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 하는 신부의 마음을 가리킨다.

- D. 마음의 포도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다. ‘영글지 않은 포도’는, 아직 미성숙한 신부의 삶을 말한다. 아가서 1:6 와는 다르게, 이제 신부는 자신의 ‘포도원’을 지키려 한다. 그러나, 작은 여우들은 신부의 열매들을 계속 파괴하려 한다.
- E. 신부에게는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 가고픈 열망들이 있다. 신부는 사랑앓이를 하는 자신에게 주님이 오셔서 힘을 돕고, 시원케 하시기를 갈망하고 있다(아 2:5). 그러나, 신부안에는 성령의 역사를 막는 작은 영역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 가는 것을 막는 작은 타협의 영역들의 심각성을 신부는 잘 알고 있다.
- F. 우리는, 부끄러운 죄를 단순히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더 충만함을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포도원이 ‘성숙한 열매’로 가득차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섬김과 겸손과는 반대되는 불건전한 말의 사용, 정결치 못한 생각과 태도들은 주님과 친밀감을 파괴하는 ‘작은 여우들’이다. 예수님은 신부를 안락의 지대 밖으로 불러내시지만, 아직도 ‘작은 여우들’은 신부의 포도원을 파괴하고 있다.
- G. 신부는 “여우를 잡아주세요”라고 주님께 기도한다. 다시말해, 우리는 그 여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삶에서 이 작은 여우들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신부는 계속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요청을 떨시치 않고,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IX. 예수님을 향한 신부의 진실한 사랑 고백

16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 2:16)

- A. 여기서 신부는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고백한다. 자신이 ‘하나님의 연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죄와 씨름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연인이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진리를 절대 놓쳐서는 안된다. 우리의 얼굴은 여전히 하나님께 아름다우며, 우리의 음성은 주님께 여전히 달콤하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절대 상처받지 않으신다.
- B. 신부는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자’로 표현하면서, “난 주의 것”이라고 선포한다. 이것을 통해, 신부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주권이 결국 신부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 신부의 마음은 주의 것, 즉, 주님께 속했다. 하나님을 향한 신부의 사랑은 실패속에서도 표현된다. 죄와 씨름한다고 해서, 주님께 버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신부는 ‘가망없는 위선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신부의 당당함은 줄어들지 않는다. 신부는, “주님은 내 것이며, 나는 주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라고 고백한다. 지금까지 신부의 여정을 볼 때, 신부는 순수하고 진실하긴 하지만, 아직 성숙하지는 않다.

C. 신부는 여러번 예수님께 자신을 ‘먹여달라’고 부탁한다(아 1:7, 12; 2:4-5). 예수님은 대가가 요구되는 ‘백합화 가운데’, 즉, 신부의 순종과 정결함이 거하는 곳에서 신부를 먹이시고자 한다. 백합화는 정결함(아 2:1-2; 5:3, 13; 6:2-3)을 말한다. 신부의 삶의 목적은, 작은 여우들을 잡으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결한 백합화’같이 사는 것이다(아 2:1-2). 신부는 이것을 잘 알고 있다.

D. 아가서 2:1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요”에서, 백합화는 ‘단수형’으로, 주님 안에서 발견한 신부 자신의 정체성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백합화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 자신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말한다.

33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4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회중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전 15:33-34)

X. 신부의 고통스런 타협

A. ‘산’으로 주님과 함께 가자는 예수님의 명령에 신부는 주저하며(아 2:13), 일어나지 않았다. 주님께 “혼자 노루와 같이 산으로 돌아가세요”라고만 대답한다. 반항이 아니라, 미숙함으로 인한 ‘두려움’때문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아 2:17)

B. 슬픔에 깊이 잠긴 신부는, 예수님이 아 2:8 의 ‘노루’와 같이 가셔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참고로, 아가서 끝 부분에서, 신부는 예수님께 다시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오세요’라고 기도한다(아 8:14).

C. 자신 안에 존재하는 ‘어두운 그림자’를 신부는 인정한다. 어두운 그림자는 아직 빛에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삶의 영역들’이다. 아침에 해(빛)가 뜨면서 날은 밝게 된다. 이제는 신부의 삶에 있는 어둔 그림자나 ‘회색의 영역들’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왔다.

D. 날이 밝아 새 빛이 자신에게 비출 때까지, 신부는 예수님께 혼자 돌아 가라고 말한다.

E. 아가서 4:6 에 이르러, 신부는 산으로 함께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하며 일어나게 된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신부의 삶에 있는 “두려움의 여우”를 잡으시면서 신부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고상한 곳’에서 아낌없는 사랑으로 헌신하는 ‘신부’로 주님과 동역하며 살도록 창조되었다.

F. 타협이 자신의 포도원의 열매를 파괴하는, 다시말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막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신부는 잘 알고 있다. 신부의 응답에, 예수님은 홀로 돌아가 한 계절동안 잠시 모습을 감추시게 된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려는 우리의 결정을 예수님은 존중하신다. 우리가 누리는 예수님과 관계는 ‘자원적인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 G. 옛 히브리어 단어 베테르(Bether)는 “분리”를 뜻한다.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서들은 ‘베테르’ 대신, “분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산’은 분리를 가져오는 장애물이다. 신부는 예수님이 “분리를 가져오는 산들”로 가실 때, 주님과 분리(이별)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아가서 3:1에서, 주님은 신부가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순종을 부르짖을 때까지 신부에게서 모습을 감추신다(아 3:2).
- H. 자신이 연약해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신부는 잘 알고 있다. 신부는 계속해서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예수”라고 부른다.

XI. 영적 진보에 열쇠가 되는 네가지 고백

- A. 아가서에 4 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다. 성숙의 진보를 알기 위해 이 구절들을 점검해 보는 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
- B. 아가서는 ‘자기 중심의 단계’에서 ‘하나님 중심의 단계’로 바뀌어 가는 신부의 영적 진보를 네 번에 걸친 신부의 고백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아가서 전체에 걸쳐, 신부는 네 번 정도 영적인 변화를 거듭하며, 자신의 경험을 재정의하게 된다. 이기적인 사람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성숙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전략적인 부분에 나오는 신부의 고백들을 통해, 우리는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의 ‘성숙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 수 있다. 이 고백들은 영적으로 진보해 가는 신부의 성숙함을 보여준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는 신부의 고백들을 참조하라(아 1:14; 2:16; 6:3; 7:10). 초기에는, 예수님을 즐기는 자신의 기쁨에만 신부가 집중하고 있었다. 신부는 ‘자신이 주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오히려 인식하지 못한 채, ‘주님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만을 표현하며 그 기쁨을 누렸다. 그렇지만, 아 2:16 과 6:3, 그리고 7:10 에서, 신부는 자신이 예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표현하기 위해, 같은 문장을 순서만 바꿔 고백하게 된다. 예수님은 신부의 기쁨이다.
- C. 처음에, 신부는 자신의 영적 기쁨과 즐거움에만 초점을 맞춘다. 예수님은 이러한 신부의 시작을 너그러이 받아 들이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사랑받으며, 주님 안에 누리는 자신의 기쁨이 존재한다는 데에만 집중하며, 자신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13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아 1:13-14)

- D. 두 번째 고백에서 신부는 “주님은 나의 것, 주님은 제게 속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나도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신부는 이제 자신의 삶에 새롭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자신이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직 성숙에는 관심이 없다.

16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아 2:16)

- E. 세번째 고백에서 신부는 아 2:16 에 나온 말을 그대로 사용한다. 한 가지 다른 점은 문장의 순서를 바꾸었다는 것이다. 신부는 “나는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이 제게 속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은 제게 속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것입니다”라고 고백한다. 이 세번째 영적 진보는 동일한 두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두번째 고백과 그 순서가 뒤바뀐다. 다시말해, 신부는 “주님의 계획이 먼저입니다, 나의 계획은 두번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관심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신부를 통해 주님이 누리는 기업이 이제 신부의 첫번째 관심사가 되었다. 주님을 통해 누리는 신부의 기업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이차적인 것이 되었다.

3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아 6:3)

- F. 최종적인 네번째 고백에서 신부는, “나는 주님께 속했고, 나의 관심사는 이제 오직 주님이 바라시는 것에만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모하신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도 내가 100%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사가 저의 관심사입니다.”

10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 7:10)

14장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훈육 (아 3:1-5) (God's Loving Discipline)

I. 아가서 2:8-17 복습

- A. 솔람미 여인은 ‘산들’을 정복하신 “만유의 주,” 또는 주권적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새롭게 받았다. 주님은 모든 산들(장애물들)을 승승장구하며 뛰어넘어 오는 노루와 같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산을 빨리 넘어 오는구나 9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숫사슴)과도 같아서(아 2:8-9)
- B. 예수님은 일어나 함께 ‘산(고귀한 곳)’으로 가자고 신부를 부르신다. 더 큰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새 과제를 신부가 떠맡아야 한다는 뜻이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안정과 안락에 도전이 온 것이다. 솔람미 여인이 예수님께 드렸던 첫 기도는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라”였다(아 1:4). 예수님은 신부가 ‘안락’의 지대에서 나와 성령의 인도로 ‘도전의 지대’로 나아가 주님과 더 깊은 동역을 맞볼 수 있도록 초청하신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 2:10)
- C. 그러나, 이 부르심에 신부는 순종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수님 혼자 산으로 돌아가시라고 대답한다. 신부에게 아직 두려움(반항이 아닌 영적 미성숙)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아침에 새날(새벽)이 밝아 새 빛이 비추게 될 때, 신부의 삶의 어둔 영역들은 사라지게 된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트고) 그림자가 갈때에(때까지) 돌아와서 베테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아 2:17)

II. 아가서 3:1-5 개관

- A. 신부의 불순종에 대해 주님은 임재를 거둬 가시는 ‘사랑의 훈육’을 주신다. 신부에게 화가 나서가 아니라, ‘질투’의 하나님이신 주님은, 신부가 주님이 귀히 여기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만큼 성숙하게 되어 더 깊은 동역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 B.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신부, 성숙한 신부가 되는 데에 부족하게 되는 것을 허락치 않으신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를 속박하는 것들을 우리가 손안에 쥐고 있으면 떼어 놓으신다. 순종의 대가는 크다. 하지만, 불순종의 대가는 더욱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령의 리더십에 불순종하는 대가는 더 심각하다는 뜻이다.

C.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서 임재를 거둬가시는 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성령의 리더십을 받아들이지 않는 ‘타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경각시켜 주기 위함이다. 둘째로, 우리를 겸손케 하사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깊은 ‘목마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다.

D.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열심과 질투’로 나타난다는 확신을 가져야한다. 질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며 사는 삶’을 요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와 주님과 관계를 깊게 하며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신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야 4:5)

III. 하나님의 훈육은 거절이 아니다

A. 아가서의 메세지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진리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신다라는 뜻은 아니다. 주님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교정하시면서, 우리 안에 ‘사랑(거룩함)’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하려 하신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훈육하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히 12:10)

B. 우리를 훈육하실 때, 주님은 그분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보여 주신다. 이것은 주님이 ‘인격체로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는가?’와는 다른 문제다. 다시말해, 하나님은 인격체로서 우리를 경멸치 않으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나 영역에 불쾌함을 드러내실 수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교정을 어떤 사람들은 거절감으로 잘 못 받아들이는 실수를 범하지만, 하나님의 교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된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 뿐, 훈육받는 자를 기뻐하신다(히 12:6).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교정)하시기를 마치 아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교정)함 같이 하시느니라(잠 3:12)

C. 회개가 필요한 주의 성도들을 책망 하시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계속 사랑하신다. 책망하시고 회개로 이끄시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결국 그들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것이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1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 (계 3:19, 21)

D. 훈육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며,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다. 장기간 죄를 “계속 범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죄에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육하신다는 것은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된다(롬 1:24-28).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롬 1:24)

32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11:32)

E. 훈육받는 자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깊이 사랑하신다.

9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사 63:9)

7 내 마음의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였노니(렘 12:7)

F. 죄를 정직하고 온전하게 직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면에서 손실을 입게 된다. 구원의 즐거움과 계시의 영, 거룩한 친교의 경험과 영원의 상급을 받는 능력을 최소화 시켜 버리게 된다.

G. 회개치 않는 자들을 주님은 한 동안 인자함로 인내하신다. 주님의 인내를 ‘승인하는 것’으로 혼동해서는 안된다. 예수님은 이세벨과 그 제자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셨다.

21 또 내가 그(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22 불찌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계 2:21-22)

H. 회개로 이끄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롬 2:4)

IV. 신부에게서 임재를 거뒀가시는 하나님

A. 신부는 하나님을 찾지만, 만날 수 없는 경험을 하게된다. 신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다. 왜냐하면, 아가서 1-2 장에서는 주님을 찾을 때마다 너무나도 달콤한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2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아 3:1-2)

B. 신앙 생활을 하면서 찾아오는 ‘밤’에는 4 종류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한다.

1. **한 밤 중:** 주님을 알고자 하는 절박함으로 한 밤중에도 주님을 찾게 된다.

2. 환란의 밤: 사울을 피해 달아난 다윗, 감옥에 갇혔던 요셉과 같이,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는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3. 유혹(시험)의 밤: 실패와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4. 영혼의 어둔 밤: 불순종으로 잠시 거뒀진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기 위해, 중세시대 사람들은 ‘영혼의 어둔 밤’(아 5:6)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 C. 신부가 있어야 할 곳은 ‘안락한 침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할 ‘산’이다. 여기서 신부는 ‘우리의 침상’(아 1:16; 3:7)이 아닌, ‘나의 침상’에 있었다. 주님과 동역이 깨진 것이다.
- D.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도, 신부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순종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가망 없는 위선자’는 절대 아니다. 아직,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다 거두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분”으로 부를 수 있다. 때때로, 우리는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산’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산’이라 부른다. 산들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다. 골짜기에 거할 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연인’이다.
-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아 3:1)
- E. 과거(아 2:3-5)에 했던 것처럼, 신부는 익숙한 영적 훈련인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계속 찾지만, 주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된다. 주님이 신부에게 새로운 차원의(더 깊은)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단순한 기도와 금식이 순종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
- 4 기드온과 그 좃은 자 삼백 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삿 8:4)
- F.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 할찌라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
-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야 4:8)
-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4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 (시 24:3-4)
- G. 얼굴을 숨기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기를 요구하신다.
- 7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사 64:7)

H. 예레미아 20:7 원칙: 젊은시절, 예레미아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선지자 예레미아는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아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 사건후, 예레미아는 더 이상 예언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하나님의 불은 그 안에서 더 깊이 타오르게 되었다.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셨기에, 이제 저는 주님과 연결된 그 끈끈한 ‘사랑의 줄’을 놓을 수 없어요.” 아가서 1-2 장에서, 주님은 신부의 마음을 사랑의 끈으로 하나님과 연결 시키셨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므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 8 ... 여호와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9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렘 20:7-9)

V. 기도하며 순종하는 신부

2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3성중의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아 3:2-3)

A. 이제 솔람미 여인은 아가서 2:10 에서 들은 명령에 순종하며 일어나게 된다. 예수님은 임재를 잠시 거둬 가시면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정직하게 찾게 하시며, 우리를 두려움과 불신, 그리고 타협에서 끌어내 주신다. 우리가 순종하며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기 전까지 주님은 모습을 감추신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안전한 장소는, 믿음과 순종으로 일어나 주님과 동역하는 곳이다.

B. 주님의 부재로 아픔을 겪은 신부는 침상에서 일어나 ‘안락의 지대’를 떠나게 된다. 예수님이 모습을 감추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열망을 끄집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이다. 주의 임재없이 살 수 없는 신부의 마음을 예수님은 잘 아신다. 달콤했던 예전의 계절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부의 갈급함은 이제 절박함으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신부는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기도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C. 신부는 일어나 사람들이 활동하는 ‘도시의 거리와 광장’을 돌아다닌다. 이곳은 안락한 침상과 안전한 벽(아 1:16; 2:9) 바깥에 있는 장소로, 위협과 싸움, 그리고 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존재하는 곳이다.

D. 야곱은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다(창 32:24-30).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야곱은 돌파구가 생길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한 ‘기도의 표상’이다. 호세아는 야곱을 가리켜 ‘눈물과 간구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구한 자’로 표현했다(호 12:2-6).

- E. 마이클 쉘리번트라는 내 친구가 한 번은 꿈을 꾸었는데, 자기 아들과 씨름하면서, 아들에게 일부러 쳐주는 꿈이었다고 한다. 그 꿈에서 아들은 함박 미소를 지으며, “내가 아빠를 이겼다!”라고 외쳤고, 아들과 씨름하는 아빠는 즐거워 했다. 그 꿈을 통해, 주님이 내 친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와 씨름하면서 네게 쳐주는 게 나에게는 큰 기쁨이란다”였다. 우리가 주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이 씨름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하신다.

VI. 신부의 순종으로 모습을 다시 나타내시는 예수님

4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아 3:4)

- A. 순종하며 주님을 찾으러 일어났을 때, 신부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 우리의 작은 열심에도 바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은 애정으로 뚝뚝 뭉치신 분이시다. 모습을 오래 감추지 않으신다. 주님과 씨름에서 우리가 이기기를 바라신다!
- B. **영적 갈급함의 원칙.** 삶을 사는 데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정해진 때에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일 없어도 사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라면, 없는 상태로 살게 될 것이다. 다시말해, 하나님 뜻대로 살기위해 꼭 필요한 것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정해진 때에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 C. 우리는 영적 권태와 죄악, 그리고 불신속에 살 필요가 없다. 이러한 ‘산들’ 앞에서도, 즉, 이런 삶의 영역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씩 순종해 나가는 기름부음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겔 36:26).
- D. 고통스런 영적 싸움의 계절을 겪은 신부는 이제 예수님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결단한다. 그리고, 남은 아가서의 여정동안 신부는 “주님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
- E. 영적 ‘소용돌이’의 시기는, 우리 안에 “거룩한 침노”의 열매를 낳기도 하여, 예수님을 꼭 붙잡게 하며, 우리 삶에 타협이 다시는 자리잡지 못하도록 도와준다(마 11:12). 이제, 신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위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굳은 결단을 내리게 된다.
- F. 순종하고자 하는 술람미 여인의 결단은 자신이 가장 힘들어 하는 장소(어미의 집)까지 포함한다.

4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아 3:4)

- G. 신부는 예수님의 기름부음 받은 ‘대사’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택한 도구로, 신부는 순종을 통해서만 주님이 함께 하실 장소들에 가서 예수님을 전한다. 아가서의 끝 부분에 신부는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아 8:2).

- H. 어머니는 ‘교회’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요, 형제라 (마12:46-50) 주님은 말씀하셨다. 어머니인 이스라엘은 ‘구속받은 자들’을 낳았다(계 12:5, 17). 또한, 예수님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곳(사람들)은 종종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지들이다.
- I.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족이기에,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장소가 바로 자기 식구들이다. 선지자는 자신의 집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자신(어미)의 집’으로 데리고 온다는 것은, 일어나라고 명한 주님께 순종하는 신부의 결단의 행동이 어디에 까지 미칠수 있는 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 J. 그 외에도, 집은 자그마한 장소를 뜻한다. 비행기를 타고 멀리 선교를 가야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사역은 우리 가정이나 이웃에서 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VII. 전략적인 영적 계절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 (아 2:7)

7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방해하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아 2:7)

- A. 이 구절을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략적인 계절’을 부여하신다. 다양한 영적 계절들을 통해, 주님의 마음에 대한 새롭고 깊은 계시들을 우리 안에 확립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 계절에서 성령님은, 신부가 주님의 잔치집(아 2:3-5)에서 사과와 포도를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 갈 때, 예수님을 향한 사랑앓이를 신부안에 깨우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 다양한 영적 계절들을 지내면서 하나님 안에, 그리고 그 말씀안에 깊이 들어가도록 삶을 투자해야 하는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 사도 요한은 요한 계시록에서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즉,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계 10:9-11).
- B. ‘예루살렘 여자’들은 성령의 다양한 운행과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다양한 계절들을 ‘분별치 못하는’ 신자들을 대표한다. 성령님은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그들 자신들의 의견이나 판단으로, 현재 부여받은 영적 계절을 신부의 마음으로 지내고자 헌신된 자들을 혼란케 하거나 방해하지 말라고 정중히 부탁하신다. 아가서 2:8 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계절이 오면 자연스럽게 직접 개입하실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이 구절에서 성령님은 성령에 ‘둔감한 자들’에게 말씀하신다 - 주님의 상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힘을 얻고, 새롭게 되는 계절 안에 있는 신부를 방해하지 말라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는 정반대로 산다. 하나님을 더 찾기 보다는, 사역의 활동만을 넓히려 한다.

- C. 솔로몬은 ‘노루와 들사슴’으로 그들에게 부탁했다(아 2:7). ‘노루나 사슴으로’ 라는 표현은, 이 계절에 거하는 어린 신부를 은유함과 민감함으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노루나 들사슴은 본래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쉽게 놀란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거하지 못하고, 쉽게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 다른 영적 계절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
- D. “내가 사랑하는 자(it)가 원하기 전까지는,”의 구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는 히브리어에서 it(그것), he(남성), 또는 she(여성)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미국 NAS 역은 이 구절을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다. “내 사랑하는 자(그녀)가 원하기 전까지는 깨우지 마라”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 “그(He)”로 번역 되었다면, 주님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 데, ‘예루살렘 여자들이 주님을 깨운다?’ 주님은 누가 깨울 필요가 없는 분이며, 노루와 같이 보호 받을 필요도 없는 분이다. ‘주의산만’이 되지 않게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신부’이기 때문이다.
- E.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까지는 깨우지 말라”라는 구를 아가서에 걸쳐 3 번 말씀하신다(아 2:7; 3:5; 8:4). 아가서 8:4 에도, 주님은 이 구를 그대로 사용하신다. “그녀를 방해하지 마라.” 여기서도, 역시 주님은 신부를 안아주신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루와 들사슴으로”라는 표현을 생략하신다. 미숙하여 쉽게 요동하는 신부가 더이상 아니기 때문이다(엡 4:14).
- F. 신부가 준비되기 전까지는 굳이 일어나야 하는 ‘부담’을 주지 말라는 성령님의 부탁이다.
- G.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존재와, 부르심의 여정은 개인마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는 다른 여정을 가진 신부에게 혼란을 안겨주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주의 영적 훈육을 약화시키는 ‘거짓 자비와 위안’으로 신부가 이 계절에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을 주님은 바라시지 않기 때문이다.

15장

안전한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한 계시 (아 3:6-11) (Revelation of Jesus' Safe Leadership)

I. 아가서 2:8 - 3:5 복습

- A. 술람미 여인은 산들(장애물들)을 정복하신 “만유의 주,” 또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새롭게 얻었다. 예수님은 모든 장애물들을 쉽게 정복하며 넘어 오는 ‘노루’와도 같으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산을 빨리 넘어 오는구나 (아 2:8)

- B. 예수님은 신부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안락의 지대’에서 성령이 새롭게 이끄시는 곳으로 신부를 불러 내신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 2:10)

- C. 신부는 ‘일어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 홀로 산으로 돌아가시라고 말한다. 신부 안에는 아직 ‘두려움(반항이 아닌, 영적 미숙)’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아 2:17)

- D. ‘일어나라’는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긴다. 영적 계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더 깊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에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일단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된다. 성령 안에 우리가 오늘 더 성숙해지기를 바란다면, 어제 드렸던 순종으로는 부족하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주님의 빛을 우리 안에 증가 시키면서, 거기에 따른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면, 주님은 임재를 거둬가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게 만드신다.

- E.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술람미 여인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을 찾지만, 만나지 못한다.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아픔을 신부는 겪게 된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2이여 내가 일어나서 성증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 F. 우리가 불순종할 때, 예수님은 임재를 거둬가셔서 우리가 주님을 느낄 수 없게 하는 ‘사랑의 훈육’을 베푸신다. 우리에게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질투로 인해 우리에게 더 깊은 동역을 바라는 마음으로 훈육을 베푸신다.
- G.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이 바라시는 충만함에 우리가 못미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 웰빙(건강)’을 돌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속박들’을 떼어 주시려 한다. 물론, 순종의 대가는 크다. 그러나, 불순종의 대가는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님이 임재를 거둬가시는 것은, ‘성령의 리더십’을 받아들이지 않는 타협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자각시켜, 성령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다시는 허락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우리 스스로 내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 H. 우리를 훈육하실 때, 주님은 ‘불쾌’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보여주신다. 안타깝게도, 주님의 교정을 거절감으로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주님의 교정은 ‘사랑의 증표’이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 뿐, 훈육받는 자를 기뻐하신다 (히12:6).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교정)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잠 3:12)

II. 아가서 3:6-11 개요

- A. 이 본문에는 예수님에 대한 네번째 계시가 나온다. 예수님은 신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구세주’의 모습을 드러내신다. 다시 말하면, 신부는 ‘이 타락한 세상의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예수님의 안전한 리더십에 대한 계시를 얻게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환란을 전혀 겪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감사, 신뢰와 사랑이 자라날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신부가 이 계시를 얻게 된 시기는 주님을 다시 “붙잡았을” 때 였다(아 3:4).
- B. 우리 심령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장애물의 산들’을 직면하면서 백퍼센트의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신랑’이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계시 안에 있다. 이 계시는 ‘대환란(the Great Tribulation)’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본질적인 계시가 될 것이다.
- C. 성령님은 신부에게 질문(아 3:6)을 던지시면서, 두 가지 권면의 답을 제공해 주신다. 먼저, 예수님의 리더십아래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지를 보여주기 위해 왕의 호위대를 나타내는 ‘군사적 용어’를 사용하신다(아 3:7-8). 둘째, 왕의 ‘혼인 행차’를 통해 주님의 안전한 리더십을 보여주신다(아 3:9-10). 우리 구원의 최정점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신 왕’으로 알게되는 것이다(아 3:11).

- D. 마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신뢰할 만한 지도자가 아니라고 거짓말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안전한 리더십에 대한 계시는, 신부가 아가서 4-8 장의 여정을 두려워 하지 않고 깊은 헌신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초석이 된다.

III. 탐색의 질문을 던지시는 성령님(아 3:6)

6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이 타락한 세상의)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아 3:6)

- A. 이 구절의 질문을 누가 던지는 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리적으로 뒷받침할 수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영적 해석으로 보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무명의 인물’로 등장하시는 성령님이라고 생각한다. “누구인고”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질문이 아가서에 세번정도 나온다(아 3:6; 6:10; 8:5). 세번중 두번은, 질문을 하는 분이 성령님임을 명확히 보여준다(아 6:10; 8:5). 이것으로 유추해 볼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난해 보인다.
- B. 질문자가 신부로 보이진 않는다. 왜냐면, 아 3:11에, 말하는 사람이 혼인을 “그의” 혼인이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부였다면, 그 혼인을 “우리의” 혼인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아마도, 성령님이 이 메시지를 신부의 입을 통해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 C. 성령님은, 십자가의 고난, 부활, 승천후, 영원한 성에 왕(9절)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지적하는 질문을 하신다. 혼동을 야기하는 질문이 아니라, 놀라움과 경외심을 유발하는 질문으로, ‘그리스도의 위엄과 놀라우심’을 지적하고 있다. 구약 제사 제도에 나온 언어를 사용해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
- D. 예수님은 이 타락한 시대의 ‘거친들(광야)’를 승리하며 나오셨다. 40년의 이스라엘 광야 여정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며 다양한 영적 싸움을 겪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 아가서 8:5 에서, 신부는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며 거친들 (광야)에서 올라온다.
- E.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연기 기둥’으로 표현된다(출 19:18; 사 6:4; 계 8:4). 성막의 용어에서,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킨다. 희생 번제물의 연기가 하나님께 분향(아름다운 향기)으로 올라간 것 처럼, 하나님의 불로 예수님의 희생이 ‘연기 기둥’과 같이 올라가는 것이다.

8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 (계 15:8)

- F.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몰약과 유향, 그리고 각종 상인의 향품이 향기를 토하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한다. 고대에, 몰약은 장사 지낼 때 사용하는 향품으로 매우 값이 비쌌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그 몸에 몰약을 덮으셨다.

- G. 유향은 예수님의 향기로운 ‘중보기도’(히 7:25)를 말한다. 구약에 대제사장이 유향으로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중보기도로 채워진 ‘향’으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다. 하늘 제단에 있는 금대접의 향은 ‘우리의 기도’를 말한다(계 5:8; 8:3-5).
- H. 상인의 향품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헌신’을 말한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팔아 ‘아름다운 진주(주님의 신부)’를 얻은 상인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상인은 향품을 취급(사고 파는)하기 때문에 늘 향이 몸에 배어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깊은 헌신으로 모든 것을 다 팔은 ‘향품장사’이시다.

45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상인)와 같으니 46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마 13:45-46)

- I. 우리를 위해 고통 당하신 예수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돌보고 보호해 주시지 않겠는가? 주님의 성육신과 죽음(6절)은 우리를 향한 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 우리 삶의 광야의 여정동안, 주님은 그분의 죽음(몰약)과 중보기도(유향)를 통해 우리를 죄와 흑암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락의 지대를 떠나는 ‘위험’을 기꺼이 감행할 수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헌신된 분이시기 때문이다(상인의 향품).

31...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롬 8:31-32)

IV.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아 3:7-8)

7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육십인이 용위하였는데 8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찻느니라(아 3:7-8)

- A.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보호와 안정을, 이 본문에 나오는 왕의 호위대의 모습을 통해 엿볼 수 있다.
- B. 아가서에서, 솔로몬 왕은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솔로몬의 ‘연’, 또는 가마(9절)는 왕의 혼인 행차(행렬)에 사용된 ‘병거’였다. 왕의 호위대가 그 병거를 어깨에 매고 행차했다. 솔로몬의 연(가마)은 광야 여정을 지나신 신부가 주님 곁에 앉아 보호를 받으며 지낼 수 있는 ‘안전한 처소’다. 솔로몬의 연(가마)은 수넴(신부의 고향)에서 신부를 데리고 광야를 거쳐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온다. 고향 사람들은 멀리서 거대 행렬이 내뿜는, 구름과도 같이 흩날리는 먼지를 보며 왕의 행차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전신갑주로 무장한 용맹한 군인들이 호위하는 왕의 행차를 난생 처음 목격하고 있다.
- C. 솔로몬의 연은 “복음의 연,” 또는 ‘혼인의 병거’를 말한다. 이 연은 타락한 세상의 광야를 정복하며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다.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신 예수님께서 그 병거에 안식하고 계신다(시 110:1-3; 엡 1:20-22).

그(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 편에 앉히사 21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 (엡 1:20-21)

- D. 이 ‘병거’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졌으며, 또한 주님과 함께 좌정하게 될 것이다(계 3:21).

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엡 2:6)

- E. “복음의 연”은 광야의 여정을 지나는 우리 심령의 ‘안전도모’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 이 복음의 병거는, 왕옆에 앉은 신부로 이 시대의 ‘광야’를 지나는 우리를 죄와 사단으로부터 보호해주며 호위해 준다.
- F. 광야를 지나는 동안 적으로부터 신부를 보호해 주기위해, 솔로몬은 병거 주위에 60명의 용맹한 전사들을 붙여 놓았다. 이것은 ‘영적 전투’를 말한다. 당시, 전투 전문가인 용맹한 전사들을 60 명씩이나 거느릴 수 있었던 사람은 왕밖에 없었다.
- G. 병거를 보호하는 ‘호위대’는, ‘성령님의 보전과 보호사역’을 군사용어를 통해 말한 것이다. 솔로몬의 호위대는 막강한 성령님의 보호를, 60 인의 용맹한 전사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준다. 솔로몬은 계속 “성막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참고로, 모세의 성막은 60 개의 기둥이 지탱해 주었다.
- H. 솔로몬의 용사들은 (그 땅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태생 남자들”로, 유사시 도망가 버리는 직업 군인, 또는 해외 용병들과는 대조되었다. 이스라엘 태생 전사들은 왕의 병거를 끝까지 방어하는 충성심과 용기를 지닌 자들이었다.
- I. 병거에 앉아 있는 한, 신부는 적의 매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투 전문가인 용맹스런 전사들이 호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수는 우리를 매복하려 한다. 60 명의 용맹스런 전사들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시며, 성령님은 우리 삶의 여정동안 늘 우리곁에 계신다.
- J. 이 전사들은 모두 “검을 가지고,” 검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들로 “전투 전문가”들이다. 다시말해, 초보자가 아닌 숙련된 전사들이다. 이들은 늘 허벅지(허리)에 검을 차고 있어, 한순간의 명령에도 금방 검을 빼어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다. 자는 동안 검을 빼놓는 전사들이 아니며, 흑암의 세력과 원수의 공격이 오는 두려운 밤을 언제나 대비해 근면하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전사들이었다(엡 6:12).

8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찻느니라(아 3:8)

K. 성령님은 사단의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신 전투 전문가다(엡 6:10-12).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신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예언적인 꿈을 주시고, 삶에 어떤 문을 열거나 닫으시고,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중보 기도하게 하시며,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풀어주시고, 말씀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애정을 보여주시고, 안전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하심은 열정적이고 능숙하며, 신실하다.

L. 주님은 우리가 자포자기 하거나, 주님으로 부터 멀어지는 것을 막으실 수 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본적인 성경원칙의 선(기준) 안에만 거한다면, 주님께서 처리할 수 없는 죄는 아무 것도 없다.

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전 10:13)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자 (유 24절)

V. 우리의 심령에 커다란 안정을 가져다 주는 사랑스런 예수님의 구원 (아 3:9-10)

솔로몬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10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아 3:9-10)

A. 우리의 안전은 왕의 혼인 행차 용어로 표현된다(아 3:9-10). 복음의 연(7절)은 가마로 표현된다.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가마’를 제공하신다. 솔로몬은 이 가마를 직접 제작했다.

B. 솔로몬은 왕비를 나를 수 있는 병거를 “직접 제작”하였다. 스스로 설계한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안식할 가마를 직접 제작하셨다. 다시말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 오셨다.

C. 복음의 연(가마)은 레바논의 목재로 만들어 졌다. 성막에 쓰인 목재들은 도금처리가 되었다. 나무는 ‘인류’를 말하며, 금은 ‘신성’을 말한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데 사용되었다. 레바논 나무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향기로우며, 내구성이 강해 가장 비싼 목재였다. ‘복음’의 연은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큰 대가를 치른 육체(예수님)를 통해 만들어 졌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

- D. ‘복음의 가마’는 은과 금으로 만들어 졌다. 은은 ‘구속’을 말하며, 금은 ‘거룩한(divine) 성품’을 말한다. 은기둥은 가마의 앉는 자리 주변 가로대였다. 가마를 받쳐주는 바닥 지지대는 금으로 만들어졌다. “지지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로대”를 말한다. 지지대가 금으로 만들어 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가 보호받는다를 것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는 그 영광의 좌석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다.
- E. 보라색(자주색)인 ‘복음의 좌석’은 왕족과 하나님의 권위(권세)를 말한다.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려 할 때, 복음은 우리 삶에 ‘예수님의 권세’를 풀어준다.
- F. 가마(복음)의 내부 벽걸이 용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짜여져 있다. 실내는 예루살렘 여자들, 즉,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열적인 사랑으로 장식되어 있다. 복음의 내부, 즉, 복음의 ‘내적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인자함으로 대하신다.
- G. 복음의 동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다. “사랑으로 포장된” 복음이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애정이다. 복음의 병거 내부 안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장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 사이의 사랑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실행된다. “나를 향한 주님의 깃발은 사랑”이라고 신부는 앞서 고백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포장’되어 있다. 이 계시는, 우리 안에 주님과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심령의 안정을 누리게 된다.
- H. 킹제임스역(KJV)는 “예루살렘 여자들을 ‘향한’”으로 올바르게 번역했으며, 뉴킹제임스역(NKJV)은 “예루살렘 여자들에 ‘의한’”으로 잘못 번역되어 있다. 복음은 예루살렘 여자들을 “향한”사랑으로 포장된 것이지, 그들에 “의해” 포장된 것이 아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예루살렘 여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지, 예수님을 향한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VI. 모든 교회를 신부의 패러다임(영성)으로 권고하시는 성령님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씩은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으로 (아 3:11)

- A.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님을 ‘신랑이신 왕’으로 바라보는 것이다(히 12:2; 빌 3:8; 사 33:17). 우리는 혼인날에 모든 권세로 면류관을 쓰실, 왕이신 예수님을 목상해야 한다.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산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아 2:8-13).
- B. ‘어미’는 교회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어머니요 형제라 말씀하셨다(마 12:46-50). 우리가 거듭날 때, 주님이 사용하신 도구는 교인들의 증거였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교회는 우리의 어미로 언급된다.

- C. 예수님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면류관이 있다. 혼인 면류관은 타국을 정복해서 얻는 승리의 면류관과는 다르다. 혼인 면류관은 특별히 구별된 면류관이었다. 겿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슬픔에 잠기셨지만, 장차 올 새로운 기쁨의 날의 도래를 알고 계셨다. 이 면류관은 역사 속에 구속받은 자들의 구원이 축적된 면류관이다. 사랑의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의 무리가운데 거하는 것보다 더 존엄한 일은 없다. 우리의 위대함과 존엄성은,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쁨부음으로 살면서, 주님께 사랑의 면류관을 씌워드리는 데에 있다. 그 날에, 우리는 자원하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면류관을 던지게 될 텐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정의할 수 있다.
- D. “모친에(모친이-역자주) 씌운 면류관.” 인간적인 표현을 사용하자면, 주님의 왕권에 우리가 자원적인 사랑으로 응답할 때, 교회는 왕이신 예수님께 면류관을 씌우게 된다.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신랑이신 왕, 예수님께 면류관을 씌운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면류관도 바로 이것이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자신들의 부르심을 올바르게 보게 될 때, ‘시온의 딸들(여자들)’로 살 수 있게 된다. 주님의 혼인날은 요한 계시록 19:6-8 에 기록되어 있다. 그 날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될 것이다.
- E. 다가오는 웨딩(결혼식)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심정을 아는가? 너무도 기뻐하신다. 이 혼인은 다른 나라와의 정치적 동맹을 위한 정략결혼이 아니다. 물론, 강제결혼은 더군다나 아니다. (자원의 사랑을 통한 아름다운 결혼이다 - 역자주)
-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리라 (사 62:5)

16장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소중한 신부의 마음 (아 4:1-8) (The Cherished Heart: Equipped to Love Jesus)

I. 아가서 2:8 - 3:11 복습

- A. 예수님은 신부를 ‘안주의 지대’에서 불러내시면서, ‘산’으로 올라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초청 하신다. 하지만, 신부는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께 홀로 산으로 돌아가라고 대답했다.

8...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산을 빨리 넘어 오는구나 10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7나의 사랑하는 자야 ... 돌아와서 베테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아 2:8-10, 17)

- B. 주님은 임재를 거둬가지고, 신부는 하나님의 사랑의 훈육을 경험하게 된다. 주님을 찾아도, 발견치 못하게 된다. 이것은 주님의 노하심이 아니라, 더 깊은 동역을 질투하시기 까지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 때문이다(히 12:6)

내가 밭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아 3:1)

- C. 아가서 3:6-11에서, 신부는 장애물의 산들을 만났을 때, 100 퍼센트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안전한 리더십’을 가지신 신랑이신 왕,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얻게 된다. 신부의 사랑을 사모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신부는 깨닫게 된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 사랑으로 면류관을 씌어 드릴 수 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랑의 “혼인 면류관”은 예수님이 가장 간절히 바라시는 면류관이다.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 3:11)

II. 아가서 4:1-8 개요

1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 무리 염소 같구나 2 네 이는 ... 털 깎인 암양 ... 같구나 3 네 입술은 홍색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네 짧은 석류 한쪽 같구나 4 네 목은 ... 다윗의 땅대 ... 5 네 두 유방은 ...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 6 ... 내가 몰약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7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8 나의 신부야 너는 .. 나와 ...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 표범 산에서 내려다보아라(아 4:1-8)

- A. 예수님은 거룩한 혼육의 계절이 지나고, 순종과 믿음이 조금씩 성숙해 가는 신부를 보시면서 ‘어여쁘다, 아름답다’고 말하신다. 아 4:1-5 에서, 예수님은 어린 신부의 삶에서 “피어나는 미덕” 8 가지를 예언적으로 확신시켜 주신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주님의 ‘사랑의 확신’으로 자라게 하사,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는 사단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계 2:10).
- B.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신부 안에 가꾸어지길 바라는 8 가지 성품이 요약되어 있으며, 여기서 사용된 상징은 아가서 전체에 걸쳐 개발된다.
 비둘기의 눈: 일편단심의 마음과 계시,
 염소와 같은 머리털: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털깎인 양과 같은 이: 고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씹는 능력,
 홍색실 같은 입술: 구속의 열매를 맺는 언어사용,
 입맞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려진 두 뺨(뺨/얼굴): 하나님의 은혜에 영향 받은 감정들,
 다윗의 망대와 같은 목: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
 쌍태 노루새끼와 같은 두 유방: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그들을 양육시킬 수 있는 능력

III.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마음

- A. 아 4:1-5 에서, 우리는 신부를 소중히 아끼는 신랑이요,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된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신부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된다(아 4:6-8).
- B. 예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사 씻기시고, 자신의 영광을 교회에 풀어 주신다.
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 29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소중히 여기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엡 5:26-29)
- C. 연약한 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무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 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얼룩진 죄와 수치심을 제거하신다.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확신과 당당함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가꾸어 나갈 수 있게 된다. 다윗 왕의 삶의 비결은,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 받는 존재’라고 느끼는 데 있었다. 아가서에서 가장 돋보이는 주제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35...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시 18:35)
- D.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 삶에 ‘피어나는 미덕’을 확신시켜 주시면서, 온유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소중한 주님의 신부로 높여 주신다.

E.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내면의 싸움들을 보고 우리 인생을 정의 하시지 않는다. 우리의 실패를 넘어서 보시는 분이다. 승리한 영역들 뿐만 아니라, 심령에 심겨진 미덕의 씨앗들, 그리고 ‘심령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통해 우리를 정의하신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의 영을 보신다(마 26:41).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을 보고 우리를 정의하신다.

F. 우리의 존재를 정의하시는 예수님의 정의에 따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결정하게 된다. 주님은 우리 안에 심겨진 성품의 ‘씨앗’을 보신다. 우리 여정의 미래와 앞을 정확히 내다 보시며 우리를 대하신다.

G. 이스라엘이 막강한 미디안의 공격을 받았을 때, 기드온은 무서워 포도주 틀에 숨어 있었다(삿 6장). 그 때, 한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했다. 기드온 자신이 볼 수 없었던 면을 주님은 기드온 안에 이미 보고 계셨기 때문이다. 주님은 기드온 안에 ‘믿음과 용기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것을 보셨다. 주님은 미래의 기드온의 모습을 보시고 ‘기드온’이라 이름 지으셨다. 결국, 그는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이 되었다.

H. 베드로가 두려움으로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음에도, 예수님은 그를 ‘반석’이라 부르셨다(마 16:18). 겉으로 보기에 베드로는 타협한 자요, 비겁한 자로 불안한 모습을 드러냈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안에 용기와 확신, 그리고 신실함의 씨앗을 보시고, 베드로를 ‘반석’이라 부르셨다.

11 게바(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12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3 남은 유대인들도 저희의 의식(위선)에 유혹되었느니라 (갈 2:11-13)

I. 주님은 아브라함을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라 말하시며, 그의 삶을 “조금씩” 조정해 가셨다.

20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 (롬 4:20)

J. 다윗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한 자라 간증하셨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 36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목적)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행 13:22; 36)

K. 주님은 진실한 자들을 ‘사랑하는 제자들’이라 부르신다(요 13:23; 19:26; 20:2; 21:7, 20).

23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요 13:23)

- L. 마귀는 우리를 ‘위선자’라 참소한다. 원수는 많은 사람들을 참소하고 정죄하며 무너뜨린다. 스스로 ‘가망없는 위선자’로 느끼게 만들며, 미숙을 ‘반항(대적)’으로 혼동시켜 우리를 포기시키려 한다.
- M.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과 자책감이라는 ‘불’과 싸우며, 시간과 정력을 지나치게 낭비한다. 죄책감과 거절감을 가지고 살면 불필요하게 많은 정력을 낭비하게 된다. 그리고, 실패와 수치심에 사로잡혀 주님과 효과적 동행을 해치게 된다.
- N.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순종의 마음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성숙했는가에만 초점을 둔다. 성숙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두가지 영적 문제에 취약점을 노출시키게 된다.
1. 결과가 좋으면, 교만이 생겨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비판할 수 있게 된다.
 2. 실패하면, 죄책감에 사로잡혀 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 O.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들(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자 (믿음과 말씀의 순종에) 하는 데 마음을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주님은 주님의 때에 우리 안에 성숙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 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 2:13)**
- P.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남자가 그 아내와 자녀들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이 훈육하시는 것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보통, 부모들은 자녀들 안에 피어나는 미덕을 잘 못 해석한다. 자녀들 안에 피어나는 헌신과 위대함의 씨앗을 보지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실패만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IV.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

- A. 훈육의 계절(아 3:1-2)이 끝나자 마자, 주님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선포하신다. 반복을 통해 ‘아름다운 신부’에 대한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강조하신다. 성령님은 우리 앞에 ‘거룩한 나팔’을 불면서 말씀하신다, “보라!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주님께 사랑받는 아름다운 존재라는 계시로 변화된다.
- 1 내 사랑 너는 어여쁘(아름답)고도 어여쁘다 …(아 4:1)**
- B.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아름답다’라는 계시는 순수하고 진실한 자가 하나님 은혜로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기본진리다. ‘어여쁘다’라는 단어는 대부분 성경에서 ‘아름답다’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가서의 핵심 주제에 속한다(아 1:8, 15, 16; 2:10, 13, 14; 4:1, 7, 10; 6: 4, 10; 7:1).
- C. 아가서에서, 우리가 소유한 아름다움에 관한 주제 전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 D. 우리를 사랑하사 기쁨이 충만하신 왕(아 3:11)이시며,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보시는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 모든 희생을 다 감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아무리 힘든 ‘장애물의 산’을 직면해도 능히 이겨 낼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될 것이다.
- E. 이제, 예수님은 신부의 삶에 “피어나는 미덕” 8 가지를 확신시켜 주신다(아 4:1-5). 각 성품은 아주 ‘작은 씨앗’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확증을 통한 권면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순종의 씨앗을 확증시켜 주심으로, 사단의 고소에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 F. 예수님은 신부의 삶을 8 가지 면에서 축복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사, 그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 여기 본문에 나와있는 구절 하나 하나 모두가 우리의 심령을 겨냥한 하나님의 ‘시적인 거룩한 로맨스’다. 8 가지의 미덕은 우리에게 나눠주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한다. 우리가 그 아름다움(아 3:11)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예수님도 기뻐하시지만, 우리 자신도 기쁘게 된다.
- G. 술람미 여인은 본래 염소를 치고, 포도원을 지키는 양치기 소녀이다. 그래서, 왕은 신부에게 친숙한 ‘농경 용어’를 사용한다. 본문에 나오는 상징들은 성경을 통해 해석한다.
- H. 왕은 여인에게 ‘산’으로 가라고 말한다. 그러나, 여인은 산이 아닌, 성(도시)으로 가겠다고 대답한다(아 3:2). 그러나, 아가서 4 장 끝부분 까지, 신부는 자신이 한 말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대답만 한 것이다. 그럼에도, 주님은 점차 성숙하게 될 신부의 모습을 잘 아시기에, 신부의 대답을 높이 평가하신다.
- I. 100 % 온전한 순종을 위해, 우리의 삶에 세가지가 협력한다(아 4:6). 거룩한 훈육(아 3:1-2)과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계시(아 3:6-11),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자신에 대한 계시이다(아 4:1-5).

V. 눈: 영적 이해와 계시 (아 4:1)

1 ... 네 눈이 비둘기 같고 ... (아 4:1)

- A. 눈은 ‘영적 통찰력’을 말한다. 바울은 ‘마음의 눈’을 언급했다(엡 1:18). 눈으로 보는 것은 바울의 삶에 최우선 순위였다. ‘보는 것(깨달음)’은 영적 성장의 출입구가 되기 때문이다(빌 3:8-10; 고후 3:18). 순종은 깨달음을 통해 시작된다. 대상을 다른 각도로 바라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도 변하게 된다.
- B. 비둘기의 눈은 ‘순결’과 ‘충성’을 말한다. 성령님은 비둘기로 성경에서 그려진다. 비둘기는 짝이 죽으면 다른 짝을 찾지 않는다. 그래서, 비둘기는 충실함으로 알려져 있다. 비둘기는 두 사물을 동시에 볼 수 없으며, ‘주변 시야’도 없다. 이것은 ‘일편단심’을 말한다. 잠깐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안정을 누리다가, 타협과 죄책감으로 괴로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한 일편단심,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신부는 정욕과 실패, 또는 성공을 바라보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다.

- C. 신부는 겸손한 자세로 이 계시를 받아들인다. 신부는 베일뒤에 “숨는다.” 즉, 신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부분들이 남아 있다. 베일 뒤에 가려진 삶은, 하나님 안에서의 ‘은밀한 삶’으로, 개인적인 삶의 부분을 말한다. 풍부한 계시를 가지고 있던 바울도 교만의 유혹을 받았다(고후 12:7-9). 그는 지식이 종종 교만을 낳는다고 가르쳤다(고전 8:1).

VI. 머리털: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아 4:1)

- A. 신부의 ‘머리털’은 하나님을 향한 신부의 ‘헌신’을 말한다. 나실인의 머리털은 그들의 거룩함, 또는 헌신을 나타내는 외적 표징이었다(민 6 장). 나실인의 맹세를 취한 자들은 머리털을 자를 수 없었다. 그러나, 삼손은 머리털을 잘라 맹세를 어겼으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잃게 되었다. 머리털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아름다움’을 말하기도 한다. 여인의 머리털은 영광을 나타낸다고 바울은 말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복과 헌신을 비유로 말했다(고전 11:5, 6, 15).

1... 네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아 4:1)

- B. 무리 염소와 같이 술람미 여인은 ‘위엄스럽게’, ‘위풍당당’하게 걷는다.

29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31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 C. 우리는 당당하게, 존엄을 지닌 거룩한 지혜로 주님을 향한 헌신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헌신이 자신에게 이목을 집중 시키려는 육적 열심으로 더럽혀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 D. ‘위엄이 찬’ 신부의 머리털, 즉, 신부의 헌신은 성경말씀의 ‘양식’으로 잘 채워진 결과로 나타난다. 길르앗 산에 있던 염소들은 풍성한 먹이를 먹고 살았다. 그곳은 땅이 풍성하고, 비옥해서 염소들에게 풍성한 먹이를 제공하던 유명한 곳이었다. 신부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배부르게’ 된다.

VII. 이: 말씀에 뿌리를 둔 삶 (아 4:2)

2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아 4:2)

- A. ‘이’는 고기를 씹어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유아는 이가 없어 고기를 씹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유아들’은 고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고전 3:1-2; 히 5:12-14). 여기서는, 고기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신부의 능력을 말한다. 농경 용어의 표현을 통해 신부의 이를 서술하고 있다. 신부의 이는 강하고, 풍성하며, 효과적이다.

- B. 털깎지 않은 양의 양모는 골고루 자라질 않는다(불균형). 길이가 다른 양모는 ‘육적 열심’을 말한다. 구약시대 사독의 제사장들은 가는 베옷을 입어야 했다. 양모는 땀을 내기 때문에 입는 것이 금지 되었다(겔 44:15-18). 육적 열심은 반드시 성령의 주권으로 다스려져야 한다.
- C. ‘목욕장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더러움에서 깨끗케 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이는 마치 목욕장에서 올라온 양과 같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씻기신다(엡 5:26).
- D. 말씀에 온전히 거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한 영향력을 끼칠수 있게 된다. 신부의 이는 마치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과 같다. 신부의 사역은 영적 불모가 아닌,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쌍태를 낳는다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목욕장에서 바로 나온 양과 같이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깨끗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신부의 ‘헌신’을 말한다(딤후 4:6-16). 아가서 4:1-2 은 신부의 눈과 머리털, 이, 그리고 두 뺨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 표현들은 아가서 6:5-6 에도 나오게 된다.

VIII. 입술: 거룩과 기름부음의 언어사용(아 4:3)

3 네 입술은 홍색실 같고 ... (아 4:3)

- A. ‘입술’은 ‘언어사용’을 말하며, ‘홍색’과 같은 말은 사람들에게 ‘구속(redemption)’을 주는 말을 의미한다. ‘홍색실’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상징한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라합은 구속함을 얻기위해 창문에 홍색줄을 달아 놓았다(여 2:21). 모세는 홍색 양모에 송아지의 피를 묻혀 사람들에게 뿌렸다(히 9:19).
- B. 덕을 세우는 말과 함께 이 ‘홍색실’은 우리 입술에 있어야 한다(골 4:6). 건전하면서도 덕을 세우는 언어사용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함께한다는 증거다(엡 4:29; 야 2:3).

IX. 입: 하나님과의 친밀감 (아 4:3)

3... 네 입은 어여쁘고 ... (아 4:3)

- A. 아 1:2 에서, 입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말하는 입맞춤으로 처음 소개되었다. 우리가 갖는 예수님과의 교제는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럽다. 아가서에서, 입술은 우리의 언어사용을, 입은 친밀감을 말한다. 신부에게 확증을 주는 왕은 고루하게 반복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 B.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릴 때, 그것은 마치 ‘연약한’ 사랑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사랑이 사랑스럽다고 공포하시면서, 우리와의 친교를 기뻐 하신다.

X. 두 뺨: 감정의 메이크업(아 4:3)

3... 너울 속의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아 4:3)

- A. 두 뺨(뺨 또는 얼굴)은 사람의 ‘감정’을 드러낸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뺨 또는 얼굴, 용모로 번역될 수 있다. 대부분 번역본들은 ‘뺨’으로 해석한다. 사람의 감정은 표정, 또는 뺨을 통해 표현된다. 분노, 기쁨, 즐거움, 또는 슬픔의 감정은 표정을 통해, 두 뺨을 통해 나타난다. 그래서, 뺨은 사람의 감정을 비추는 창문이다.
- B. 신부의 거룩한 감정들은 하나님께 마치 달콤한 ‘석류 한쪽’과 같다. 석류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아주 달콤한 과일에 속했다. 이 거룩한 감정의 표현은 대제사장의 제의(의복), 또는 예복에 잘 나타나 있었다.
- C. 석류를 반으로 쪼개 안을 보면 색깔이 붉은 홍색이다. ‘붉은 색’은 수치로운 행동 앞에 부끄러워 얼굴을 붉힐 줄 아는 신부의 성향과 겸손을 말한다.
- D. 매춘부는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에도 얼굴을 붉히지 않는다. 홍색을 띤 얼굴(얼굴이 빨개지는 것)은 부끄러움에 예민하다는 것을 말한다. ‘베일 뒤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밀한 삶’을 말한다.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위한 ‘쇼’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겸손하고 온유하게 지내는 신부의 은밀한 삶을 말한다.

XI. 목: 결단의 의지(아 4:4)

4 네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같고 (아 4:4)

- A. 성경에서, 목은 보통 뺨뺨한(저항하는), 또는 복종을 의미하는 ‘의지’를 말한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원수의 목을 밧로 누르는 것은 원수의 굴복을 상징했다.
- B. 신부의 의지는 하나님앞에 확고부동한 마음을 지녔던 다윗과 같다(시 57:6). 신부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 C. 다윗의 망대들은 예루살렘 성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높은 곳에 위치해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했다. 신부의 선택과 의지는 다윗의 망대처럼 강력하다.
- D. 병기고는 전쟁을 대비해 무기들을 저장하는 곳이다(느 3:19,25). 하나님께 순종 하고자 하는 ‘결단의 의지(뜻)’는 사단의 왕국을 대적하기 위해 준비해 놓는 병기고와 같다. ‘등근 방패’는 작고 등글며 팔에 부착하는 방패였다. 1000 개의 방패는 막강한 방어선을 구축해 원수로 부터 ‘안보’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신부의 ‘의지’는 전투에 뛰어난 1000 명의 전사들이 지닌 방패와도 같다. 원수로부터 보호와 안전을 제공한다. 이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믿음의 방패’다(엡 6:16).

- E. 예수님께 순종하려는 불굴의 결단은 영적 승리를 위해 우리가 꼭 지녀야 하는 필수요소다. 우리는 '순종의 의지'를 계속 연습해야 한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주님은 순종을 강요하시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경계선을 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XII. 두 유방: 타인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아 4:5)

5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아 4:5)

- A. 두 유방은, 엄마가 아기를 양육하듯, 타인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노루 새끼는 어린 동물이다. 신부의 두 유방은 '쌍태 노루 새끼' 같다. 이것은 우유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먹이며 양육할 수 있는 '갑절의 기업과 능력'을 말한다. 노루 새끼와 같은 두 유방은 마르지 않는 엄마의 모유를 말한다. 나이가 들어 모유의 능력이 없어진 여인과 다르다는 뜻이다.
- B. 술람미 여인의 사역은 '순결'의 백합화 가운데 꿀을 먹는 노루새끼와도 같다. 주님은 신부에게 '은 장식'을, 즉, 사역을 위해 신부를 양육해 주시리라 약속하셨다(아 1:10).

XIII. 영적 성숙의 기초가 되는 헌신 (아 4:6)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몰약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아 4:6)

- A. 신부의 아름다움을 확증시켜 주신 주님께, 신부는 '몰약산'으로 가겠다는, 즉, 십자가를 지겠다는 헌신으로 응답하게 된다. '산'은 신부의 순종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가리킨다(아 2:8-9).
- B. 몰약은 비싸지만, 뛰어난 향기를 지닌 장례용 향품이다.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한다. 육적으로는 장사용 향품이지만, 우리의 영혼에는 '향기'와도 같은 것이다. 이 산은 (편안한 곳이 아닌) 몰약의 산으로, 작은 언덕(산)과는 다르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실 때, '몰약의 산'을 오르셨다. 이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져야한다(눅 9:26).
- C. 성경에 나오는 유향, 또는 향은 '기도'를 말한다(시 141:2; 계 5:8). 우리는 '유향의 언덕'에 올라가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몰약의 산을 오를 수 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힘'을 얻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마 26:40-41). 유향의 언덕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몰약의 산을 오르는 것이 벽찰 수 밖에 없다. 기도생활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주는 권능을 부여한다. '기도 언덕'의 높이에 따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의 한계에도 차이가 나게 된다.
- D. 유향의 언덕은 몰약의 산보다 낮다. 우리는 '작은'(미약한) 기도를 통해서, 높은 산을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 기도는 산을 오르려는 인간의 노력을 능가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 짧은 기도의 능력도 오래간다. 기도 생활을 통해, 우리는 기도한 것 이상의 권능을 받게 된다.

- E. 이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안락 지대를 떠나 산으로 간다. 즉, 두려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며 살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된다. “일어나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스러운 고백인지 아는가!
- F. 신부는 본문에서 “나의 길”이라 말한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각자의 길을 가야한다. 사람마다 다른 여정을 정하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사람을 다른 여정으로 부르신다. 몰약의 산으로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고난들도 따르게 된다.
- G. 신부는 날이 밝고 그림자가 도망갈 때까지, 즉, 모든 타협이 사라질 때까지 ‘몰약의 산’에 머물겠다고 헌신한다. ‘그림자’는 작은 여우들(아 2:15) 처럼, 연약한 부분, 또는 타협의 영역을 말한다. ‘아침햇살’은 힘겨웠던 밤의 싸움을 빛으로 승리하며 새날을 가져오는 ‘승리의 계절’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운데 살면서 누리게 될 ‘영원의 날(낮)’과, 이 땅에서 영광의 빛가운데 살게될 ‘승리의 날들’을 말한다.

XIV. 새로운 확증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아 4:7)

7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아름다와) 아무 흠이 없구나(아 4:7)

- A. 주님은 신부에게 “아름답다”라는 말을 아가서에서 13번 반복하신다. 지금까지, 주님은 신부에게 “아름답다, 또는 어여쁘다”라는 말을 8번 반복하셨다. “순전히 어여쁘다”라는 말은 “전체가 아름답다”라고 NAS역에 번역되어 있다. “전체가, 순전히”라는 단어를 주님이 여기서 처음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신부가 산으로 가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신부는 결단만 했을 뿐, 아직 산으로 올라가지는 않았다. 주님은 신부안에 흠이 없다고, 즉, 주님의 리더십을 의식적으로 저항하는 영역이 없다고 보신다.
- B. 결단은 했지만, 신부는 두 가지의 시험(아 5:2-8)이 오기 전까지 산으로 떠나지 않게된다. 그럼에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려는 신부의 의지를 보신다. 육신의 연약함이나 성숙함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순종의 마음)’을 보며 신부를 정의하신다.

XV. 영적 전투로의 초청(아 4:8)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굴과 표범 산에서 내려다보아라 (아 4:8)**

- A. 여기서, 왕은 처음으로 술람미 여인을 ‘배우자,’ 또는 ‘신부’라고 부른다. 산으로 가고자 하는 신부의 헌신으로, 술람미 여인은 이제 신부와 같은 마음으로 살게 된다. 왕의 신부라는 마음으로 살게된다. 아가서 5-8 장에서, 우리는 성숙한 사랑을 개발해 나가는 신부를 보게된다.

- B. 예수님의 유업은,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동일한 멍에를 지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찬 영원한 동반자, 신부다. 십자가 그 자체가 신앙의 최종선은 아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신부를,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새로운 가족을 선사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으로 순종하는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계 22:17).
- C. 영적전투가 치열한 레바논 산, 즉, 주님은 그분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신부가 따라오도록 초청하신다. 주님은 신부를 ‘겻세마네’ 동산으로 초청하신다(아 5:2-7).
- D. 이제, 신부는 ‘산’으로 가야하는 도전(아 2:10,13)을 받아들이고 순종한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 산맥 숲속 깊은 곳에 자리잡은 자신의 별장으로 신부를 초청한다. 레바논은 향기로운 꽃들이 가득했던 곳이었다(아 4:11; 호14:6). 레바논의 영광은 이사야 35:2에 잘 언급되어 있다.
- E. 지리적으로 레바논은 산맥에 걸쳐있다. 특히, 스닐과 헤르몬은 레바논 산맥에 걸쳐있는 산봉우리다. 헤르몬 산은 요르단 강 동편에 있다. 아모리 족속은 그 산을 스닐산 이라고 불렀다(신 3:8-9). 아마나 산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스닐산과 헤르몬 산(신 3:9; 4:48; 대상 5:23) 옆에 있었다고 전해내려 온다.
- F. 신부는 아마나, 스닐, 헤르몬 산 정상, 즉, 주님의 관점(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삶의 고난들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낙심하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투의 승리를 위해, 우리는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 G. 이스라엘은 요단 강 동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을 정복한 후, 동편 (헤르몬) 산 정상에 올라, 요단 강 서편에 있던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다. 이 산을 오르기 전에, 이스라엘은 두 아모리 왕들(오그와 시혼)을 정복해야 했다(신 2:1-11). 신부는 예수님과 더불어 천상에 앉혀진 자로, 영적 전투에 임하는 ‘전사적 신부’다.
- H. 산 정상에는 사자와 표범들이 살고 있다. 신부는, 사람을 잡아먹는 동물들, 사자들과 표범들을 대적하며 싸워야한다.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 ‘우는 사자’와 같기 때문이다 (벧전 5:8). 이것은 ‘영적전투’를 말한다(엡 6:10-12).
- I. "사냥감의 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몰래 접근하는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레바논 산의 짐승들을 잔해하는 부분에 대해 기록한 바 있다(합 2:17).

17장

빼앗긴 하나님의 마음 (아 4:9-5:1) (The Ravished Heart of God)

I. 아가서 4:1-8 복습

- A. 거룩한 혼육의 계절이 지나고, 신부의 순종과 믿음이 성숙해지는 과정 동안에도 예수님은 신부를 ‘어여쁘다(아름답다)’ 부르시면서 신부를 놀라게 하신다. 성품이 아직 다 자라나지는 않았지만, 순종하기 원하는 신부의 마음만을 보시고 예수님은 신부를 확증해 주신다. 아 4:1-5에서, 솔로몬은 농경 용어를 사용해 솔라미 여인의 8 가지 성품을 칭찬해 주었다. 솔라미 여인의 삶 속에 있는 8 가지 “짜트는 미덕”을 확증해 주었다. 성품이 아직 온전히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신부의 소원을 보시고 미덕들을 확증시켜 주신 것이다.
- B. 어떤 영역에 아직 승리를 거두지 않았더라도, 순종하고자 결단할 때 우리의 순종은 시작된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결단한 후, 우리는 변화되어야 할 영역에 대해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성장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인자한 자비와 기쁨을 당당히 받고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순종의 결단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 C. 우리는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께 아름다운 존재다. 혼육의 계절이 지나자 마자, 주님은 신부를 ‘아름답다’고 선포하신다. 연약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답다라는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안에 성장하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계시이다. 이 계시를 통해 변화되게 되기 때문이다.

1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아름답고)도 어여쁘다 (아 4:1)

- D. 이제는 두려워 하지 않고 신부는 결단(아 4:6)을 내린다.

6 날이 기울고(터오고).. 때에 내가 몰약 산...으로 가리라 (아 4:6)

- E. 신부는 ‘산으로 가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의 결단을 내리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확증에 응답한다(아 2:8-13). ‘몰약의 산’으로 가며 자신의 십자가를 끌어 안게 된다.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신부는 자신의 ‘안락의 지대’를 벗어나 ‘산’으로 가겠다는 확고부동의 결단을 내린다.
- F. 그러나, 여기서 신부는 대답만 했을 뿐, 아직 산으로 가지는 않았다. 산으로 가기전에 신부는 두 가지 시험을 치르게 된다(아 5:2-8). 주님은 십자가를 기꺼이 지려는 신부의 의지를 보신다. 주님은 신부의 연약한 육신이나 성숙함이 아닌, ‘자원하는 심령’을 보고 정의 하신다.
- G. 예수님은 신부를 보며, “순전히 아름답다”라는 확언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신다(아 4:7).

7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아 4:7)

- H. 여기서, 신부를 처음으로 ‘배우자(신부)’라고 부르시는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신부는 ‘영적 전투’에 동참하게 된다. 신부는 산으로 가고자 하는 헌신을 보이면서, ‘충성해 나가는 신부’의 마음으로 살게 된다. 아가서 5장 - 8장에서 우리는 성숙한 사랑을 성취해 나가는 신부의 모습을 보게된다.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굴과 표범 산에서 내려다보아라 (아 4:8)

- I. 예수님은 신부에게 그분의 소원을 나타 내시면서(아 4:9-10), 활짝 번창하는 ‘정원(동산),’ 즉, 신부의 ‘거룩한 삶과 열매맺는 사역’을 확증해 주신다(아 4:11-15). 신부는 주님의 온전한 개입하심을 위해 기도한다(아 4:16).

II. 주의 백성들에게 마음이 뺏기신 예수님

9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아 4:9)

- A. 이 구절은 아가서를 짧게 요약하는 구절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극히도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빼앗긴 (하나님의) 마음’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특별히 매력적인 대상으로 인해 기쁨, 또는 즐거움이 충만한 마음 (Webster의 Collegiate 사전).
- B. 빼앗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계시는 100% 순종을 위한 과정을 도와준다. 헌신적인 순종(아 4:6)을 결심했던 신부는 아 5:2-8 에서 그 순종을 실천해 나아가게 된다.
- C.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법적 위치’를 소유하게 되는 것 이상을 말한다(고후 5:21).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을 받드시 알아야 한다.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요일 4:19). 하나님의 마음은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차 있다.

10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 7:10)

III.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패러다임

- A.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패러다임은, 하나님께서 깊은 사랑의 감정을 가지신 분이 라는 계시에서 찾아야 한다. 전통적으로, 교회사에서 ‘인자하신 아버지’, ‘열정적인 신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생소한 개념이었다 (히 4 장에 관한 William Barclay 주석 참고).

- B. 유대인 전통에서는, **죄와는 완전히 분리된** ‘거룩한 분’이신 하나님만 가장 강조되어 왔다.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단순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다시말해, 그들은 하나님을 인간의 딜레마나 문제를 나누기에는 너무 “높은 곳”에 계신 분으로 정의해 버린 것이다.
- C. 그리스(헬라인, 희랍)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인간의 감정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으로 보았다. 당시, 가장 뛰어난 그리스 철학자들은 스토아파 철학자들 (Stoics)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 속성을 ‘냉담한 감정의 소유자’, 즉, 어떠한 감정도 느낄 수 없는 하나님으로 정의해 버렸다. 그들의 추론은 하나님께서 만약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감정에 좌지우지 되거나, 심지어는 조정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슬픔이나 기쁨을 느끼는 자들은 상처받기 쉬운 위치에 놓이게 되며, 감정을 가진 대상들에게 조정된다는 논지를 내세웠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감정에 영향을 끼친 자는 그 순간만큼은 그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자가 된다고 믿었다. 에피쿠로스 학파 (Epicureans; 희랍 철학 학교)들은 신들이 영원한 세계의 환희 가운데 ‘**인간과는 분리된 삶**’을 산다고 믿었으며, 신들은 ‘중간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믿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신들은 인간사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더없는 환희와 행복속에 산다고 믿었다.
- D.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인간과는 ‘분리된’ 거룩한 하나님으로, 스토아 학파들은 ‘감정이 메마른’ 신으로,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간과는 분리되어 있는’ 신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종교적 생각이 만연한 가운데,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기독교의 하나님, 인간의 감정과 고통, 연약함에 의도적으로 동참하시는 하나님이 나오게 된 것이다.
- E. 예수님은 인간의 경험과 삶을 직접 끌어 안고 오신 분으로, 공휼(체휼)함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 4:15)**

8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히 5:8)

- F. 거룩한 하나님께서, 인자함, 공휼, 그리고 애정을 소유한 분으로 심지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다는 것은 1세기 종교, 철학자들의 사고 방식에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당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패러다임이 얼마나 극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을지 생각해 보라.
- G.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이 진리는 심지어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장과도 우리를 구별시키는 역할을 한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사랑의 능력을 가진 천사들을 기술한 본문은 없다. 기쁨의 감정은 있지만, 애정을 가진 존재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사랑의 능력’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위치로 우리를 상승시켜 준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해로운 악의 꼴짜기 ‘밀바닥’을 경험하게 되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게 된다.

IV.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계시 (5장 복습)

- A.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애정)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진리는 우리의 ‘고귀함’을 나타내는 궁극적 성명문이며, 이 진리를 통해, 모든 신자는 자신을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자”로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안에 거하라(살라) (요 15:9)

- B. “애정에 근거한 순종”은 그 어떤 종류의 순종보다도 강력한 순종이다. 예수님의 애정을 경험하면서 흘러나오는 순종이기 때문이다. 애정에 근거한 순종은 가장 일관된 순종의 결과를 낳는다. ‘사랑앓이’를 하는 사람은 사랑을 위해 모든 고난을 감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순종은 “의무에 근거한 순종”(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순종)이나 “두려움에 근거한 순종”(불순종의 대가가 두려워 하는 순종)보다 더욱 강력하다.

- C. 아낌없는 애정과 열정을 지니신 하나님의 인격을 이해하게 될 때, 복음은 가장 번창하게 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다가오는 부흥이나 영원의 시대에 무엇을 하실 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그분의 일하심의 동기를 바로 알아야한다.

- D. 하나님의 애정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생명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 12:11)

- E.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자신의 희생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아는 영광의 상급에 비교하면 그가 포기한 것은 쓰레기(배설물)에 불과하다고 간증했다. 사랑에 빠진 자에게 그렇게 큰 희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 F. 여기서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도 있다, “왜, 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빼앗겨 있는가?” 우리 주님은 ‘사랑의 열망’으로 가득찬 인격체 이시다. 주님이 인자함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소유하신 놀라운 인격 때문이다.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와는 다르게 평가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신다.

V. 신부를 향한 예수님의 열정과 애정

9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10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지나고 ... (아 4:9-10)

- A. 나의 누이 - '누이'라 부르신 것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한다(히 2:11-17). 주님은 모든 것에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기 위해 형용할 수 없는 굴욕과 고통을 이겨내신 분이시다(히 2:17). 주님은 너무도 미천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 오셨고, 우리는 너무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 주님의 '누이'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마 12:49-50).
- B. 나의 신부 - '예수님의 신부'로 불린다는 것은, 우리와 사랑의 동역을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말한다.
- C. 주님의 누이와 신부. 이 정체성은 아가서에 7 번 강조되어 나온다 (아 4:8,9,10,11,12; 5:1,2).
- D.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 -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신 하나 하나에 감동하신다. 주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의 요동이 주님을 감동시킨다. 특정 영역에서 승리했을 때만이 아니라, 순종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순종은 시작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정이 가득하신 주의 자비를 받고 성장하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쁨을 느끼며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시선은 '사랑스런 순종의 시선'이다. 순종의 시선은 고귀한 결단에 뿌리를 둔다. 신부의 패러다임(영성)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라는 메시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 E. 네 목의 구슬 한 꿰미 - 성경에서, 목은 '의지'를 말하는데, 복종의 의지를 의미한다. 솔로몬 왕은 여인의 목을 표현하면서, 일찌기 원수를 효과적으로 패배시킬 수 있었던 다윗의 망대(아 4:4), 여인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금 목걸이(아 1:10)에 비유했다. 목걸이 한 꿰미 한 꿰미는, 신부가 주님께 드린 순종 하나 하나를 대표한다. '사랑의 결단' 하나 하나에 예수님은 감동하시며,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모두 기억하신다.

10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시라 ...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 6:10)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마 10:42)

- F.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아름답게 보신다. 사랑에 근거한 순종은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하며, 예수님께 커다란 기쁨을 안겨 준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은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아름다움)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전 3:3-4)

- G.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지나고 - 여기서 예수님은 신부가 일찌기 고백했던 “네 (주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아 1:2)를 반대로 그녀에게 고백하신다. 포도주는 기분을 들뜨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을 상징한다. 혼인에 사용되는 포도주는 ‘축하주’를 뜻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좋은 포도주”와, 죄악을 뜻하는 “악한 포도주”를 분리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특권이나 경험보다도 월등한 영광이다.
- H. 예수님은 “그분이 창조한 우주만물의 장관보다도 우리의 사랑이 더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권세아래 있는 모든 만물보다 우리의 사랑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가 아니다. 순종하려는 신부의 결단을 보시는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가득차 있다(아 4:6).

VI. 신부의 마음(생각, 말, 행실)을 보며 즐거워 하시는 예수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지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11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아 4:10-11)

- A. 네 기름의 향기 -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신부의 마음’을 가리킨다. 보이지 않는 향기가 식물의 내적 품질을 표현하듯, 우리의 생각은 ‘내면의 삶의 향기’를 나타낸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의도와, 말씀의 묵상은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간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 우리는 ...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후 2:14-15)
- B. 각양 향품보다 - 귀한 향품들은 값비싼 선물로 사용되었다. 시바 여왕은 값비싼 향품들을 솔로몬 왕에게 선물로 주었다 (왕하 10:2).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다양한 향품들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마 2:11). 향품들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희생번제물에도 사용되었다(출 30:23-24).
- C. 네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 하나님께 경배와 기도를 드리면서(아 2:14), 또, 다른 이들을 먹이고 목양하며 축복하면서 나타나는 신부의 ‘고백과 말’이 하나님께 꿀과 같이 달다는 것을 뜻한다. 신부의 ‘구속적’ 입술과 말은 ‘홍색 실’ 같다고 앞에서 기술되었다(아 4:3). 꿀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달콤한 맛을 낸다. 그러나,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꿀벌들의 엄청난 시간 투자와 고된 수고가 요구된다.
 - 1. 내 신부야 - 예수님은 신부가 주님께 말하는 사랑의 고백을 다 아신다.

2.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 ‘약속의 땅’의 번성(꿀)과, 또 유아를 위해 사용되었던 양식(젖)(베전 2:1)으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주제로 성경에 잘 나타나 있다(엡 4:29; 골 4:6). “혀 밑에는”이라는 구는 ‘마음과 생각’을 말한다. 거짓이 가득찬 입은 “혀 밑에”(즉, 마음에) 문제가 있다(시 10:7). 그러나, 신부는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말하면서 “혀 밑에”(마음에) 진리를 품고 산다. 생각과 말이 일치하기 때문에, 정직하고 진실하다.

D.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 이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신부의 ‘행실’을 가리킨다. 의복은 신부의 ‘순종적 행실’을 말한다(계 19:7-8). 예수님은 우리가 “의복을 보전”할 것을 경고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마감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이다(계 16:15).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으로부터 “흰 의복”을 사서 입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것을 권고하셨다(계 3:18). 레바논 산은 향기로운 백향목과 꽃들로 유명한 곳이었다. 다시말해, 우리 자신만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는 삶과는 대조 되는 삶이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재정적 후원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달콤한 향기’와 같다고 말한 바 있다(빌 4:18).

VII.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신부의 헌신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아 4:12)

A. 잠근 동산 - 이 동산은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사적 소유의 동산(정원)이다. 이 동산은 야생 동물들이 와서 오염시키지 않도록 울타리가 쳐있는 ‘잠근동산’이다. 왕의 정원은 곡물을 키우는 일반 정원과는 다르게, 왕에게 섬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원을 가꾸는 데에는 엄청난 돈과 노동력이 필요하다. 교회는 하나님의 정원(동산)이다(고전 3:6-9; 아 6:2; 2:16).

B. “잠근 동산,” 또는 “덮은 우물, 봉한 샘”으로 산다는 것은, 죄악과 타협의 더럽힘으로부터 자신을 차단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협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왕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처소’가 된다. 고대에, 두껍이 없던 우물은 부정한(더러운) 물로 간주되었다(민 19:15).

15 무릇 뚜껑을 열어 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니라 (민19:15)

C. 덮은 우물과 봉한 샘 - 이것은 (동물들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순전한 물의 공급을 말한다. 이스라엘은 우물이 귀했으며, 우물은 식물들이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정원에 귀한 수자원을 제공했다. 우리가 ‘덮은 우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귀하고 소중하다.

D. 읊은 거룩하지 않은 것은 아무 것도 쳐다보지 않겠다는 언약을 세웠다(읍 31:1). 이렇게 함으로, 읊은 “잠근 동산”으로 마음을 보전하며 살았다.

VIII. 젊은 신부의 열매에 대한 그림

13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초와 14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계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아 4:13-14)

- A. 신부는, 각종 즐거움을 주는 과일, 향기로운 식물, 나무와 귀한 향품으로 가득찬 ‘과수원’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신부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과 사역’을 말한다. ‘과일’은 하나님 안에 거룩함을 품는 살아있는 심령(롬 6:22;7:4-5; 갈 5:22; 엡 5:9; 히 12:11; 13:15; 야 3:18)과 타인을 위한 사역(요 4:36; 롬 1:13; 15:28; 빌 1:22; 골 1:5-6)을 가리킨다.
- B. 석류(13절)와 아름다운 과일(13절)은 달콤하며, 다른 이들에게 끼치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말한다. 향기로운 고벨화와 나도초(13절)는 우리 삶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귀하고도 풍성한 ‘역사’를 말한다. 나도와 번홍화, 창포와 계수(14절)는 신부의 사역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주님의 ‘은혜’를 말한다. 각종 유향목(14절)은 ‘기도’ 사역을 말한다. 몰약과 침향(14절)은 십자가와 자신을 부인하는 ‘죽음’을 말한다. 모든 귀한 향품(14절)은 신부의 사역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는 은혜’를 말한다(고후 2:14-16).

IX. 신부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세가지 그림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 4:15)

- A.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부는 삶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 이 경로들을 말하는 ‘물의 원천’에는 세가지가 있다. 믿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시 1:3). 굳어진 마음은 ‘메마름’을 말한다(사 1:30). 예수님은 우리가 ‘생수의 우물’ 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요 4:14; 7:38). ‘샘(분수)’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말한다. ‘우물’은 하나님 안에 살아온 우리의 역사를 말한다. ‘시내’는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흘러 내려오는 성령님과 같다.
- B. 샘(분수)은 땅속 밑에 감춰져 있는 수자원이다. 이것은 내적 공급원, 즉,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한다(골 1:27). 여기 동산들은 ‘복수형’(12절 잠근 동산이 단수형인 것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말한다.
- C. 우물은 물을 저장하여 필요할 때마다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우물은 건조기에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원천으로 저장된 물이다. 이것은 우리 과거의 경험에서 끌어내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 의 개인적 역사’로, 공급원을 저장한 ‘과거의 은혜’를 말한다.
- D. 시내는 외부로 흐르는 물이다. 시내는 땅 위에 있으며, 샘은 땅 밑에 있다. 시내는 활력적으로 흐르는 물이다. 이 시내물은 산위에서, 또는 레바논의 고지대에서 흘러 내려온다. 그래서, 높은 곳(하늘)에서 내려오는 공급원인 성령님의 “물”로, 외적 공급원을 말한다(행 8:18).

X. 갑절의 기름부음을 소망하는 신부의 절규

16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아 4:16).

- A. 신부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에 확신을 가지고, 두가지 기도를 드리게 된다. 신부는 ‘역경과 고난’의 북풍과 ‘축복’의 남풍이 함께 자신에게 불게 되기를 기도한다. 신부는 자신이 하나님께 즐거움을 선사하는 ‘향기로운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북풍과 남풍 모두가 전략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 B. 북풍아 일어나라 - 북풍은 살을 애는 듯한 찬바람으로, ‘연단과 고난’의 바람을 말한다. 이 기도는 나중에 아 5:3-7 에 나오는 “2 가지의 궁극적 시험”으로 응답되게 된다.
- C. 남풍아 오라 - 신부의 두번째 기도는 성숙케 하는 상쾌한 ‘축복’의 바람을 보내달라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지혜로 우리 삶의 각 계절에 필요한 북풍과 남풍의 조화를 잘 알고 계시며, 우리의 구조와 부르심을 알고 계신다.
- D. 나의 동산에 불어서 - 신부는 자신의 ‘마음과 사역의 동산’이 더 깊이 영향받게 되기를 바란다.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우리의 교만과 야망, 분노 등이 고난을 거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 향기를 날리라 - 신부는 하나님의 향기로운 임재로 채워지기를 소원한다. 다시말해, 신부는 주님의 사랑안에 자라고 싶어한다.
- E.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 여기서 ‘신부의 동산’이 ‘주님의 동산’이 되는 ‘대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이제 신부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소원하며, 거룩한 헌신을 위한 ‘기름부음’을 바란다. 신부는 ‘자신의 삶과 사역’을 자신의 것이 아닌 “주님의” 동산으로 본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누리시는 기업을 갖고 계신다(엡 1:18). 이 구절이 아가서의 전환점이다. 아가서 1장부터 4 장까지는 ‘신부의 기업’을 말했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의 기업’을 말하게 된다.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 신부 안에 하신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이 즐기시게 되기를 바란다.

XI. 주님의 기업인 신부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예수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 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아 5:1)

- A. 신부는 이제 예수님의 온전한 리더십과 주권아래 살게 된다. 신부의 삶과 사역의 주권을 묘사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나의”라는 소유격을 9 번(영어역)이나 사용하셨다: 내 동산,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몰약, 나의 향, 나의 꿀송이, 나의 꿀, 내 포도주, 내 젖.
- B. 내 동산에 들어와서 - 신부가 아 4:16 에서, 주님께 들어와 드시라고 드렸던 기도에 예수님은 응답하신다. 예수님은 누이와 신부의 두가지 관계를 통해, ‘자신의 기업’으로 신부의 삶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 신부의 마음안에 들어 오신다.

- C.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 예수님은 성령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것을 거두어 들이신다. '나의 몰약'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시간을 말한다. '나의 향재료'는 신부의 삶에 거하는 '은혜의 나눔'을 말한다.
- D.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 예수님은 성숙한 교회의 열매를 잔치하신다. 신부는 아 4:16 에서 '오셔서 드세요'라고 주님께 간청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교회에 풀어주신 것을 즐기신다. '꿀'은 예수님이 신부의 삶을 잔치 하시는 '즐거운 양식'을 말한다.
- E.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 예수님을 향한 신부의 사랑을 주님은 축하 하신다. 포도주는 축하주이며, 젖은 강건함을 위한 양식이다. 예수님은 신부의 사랑을 축하 하시며, 그 사랑으로 기뻐하신다.
- F.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 예수님은 교회가 '성숙한 자들의 열매'를 즐기게 되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을 말한다. 바울은 자신을 부인하는 죽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을 기눰 바 있다(고후 4:10-12). 주어진 고난을 받아 들였기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게 되었다. 신부는 주님이 잔치를 벌이고 교회를 먹이는 '산제사'와도 같다(롬 12:1). 우리는 주의 은혜로 타인들을 강건케하고 양육시킬 수 있다.
- G. 요약: 아가서 5:1 에 나오는 예수님의 활동 5 가지. 주님은 몰약을 거두고, 꿀송이를 먹고, 마시며, 신부를 다른 이들이 동참하여 즐길 수 있는 '잔치'로 제공하신다. 주님은 '자신의' 동산에 오신다, 즉, 신부에게 가까이 임하신다. 주님은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신다, 즉, 주님은 성령이 신부 안에 하신 역사의 열매를 사용하신다. 주님은 주의 꿀송이와 꿀을 드신다, 즉, 신부의 성숙의 열매를 잔치하신다. 주님은 주의 포도주와 젖을 마신다, 즉, 성숙한 신부를 축하하시고 기뻐하신다. 주님은 친구들을 잔치로 초대하신다, 즉, 주님은 교회가 성숙한 자의 열매를 보며 기뻐하고 즐기게 되기를 바라신다.

18장

성숙을 위한 궁극적 시험 2가지 (아 5:2-9) (The Ultimate 2-Fold Test Of Maturity)

I. 복습: 삶에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는 신부의 절규

- A. 신부는 ‘역경’의 북풍과 ‘축복’의 남풍이 ‘마음’의 동산에 임하기를, 그래서 은혜의 향기가 삶에 날리게 되기를 기도했다. 신부는 확신으로 차가운 북풍의 시험을 기도했는데, 이것은 아 5:3-7에 나오는 시험 2 가지 중에 하나로 응답된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아 4:16)

- B. 이제는 신부의 마음의 동산이 ‘주님의 동산’이 되는 시간이다. 신부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동산이 아니라 ‘주님의’ 동산으로 보게 된다. 예수님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 누리시는 기업을 소유하고 계신다(엡 1:18). 아가서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1장부터 4장까지 신부의 초점은 ‘자신의 기업’에 있었다. 5장부터는 신부의 초점이 ‘주님의 기업’이 되는 데 맞추어져 있다. 신부가 주님의 주권아래 살게 되면서, 예수님은 신부를 통해 당신의 기업을 즐기시게 된다. 주님은 그분의 주권을 묘사하기 위해 “나의”라는 소유격을 아 5:1에서는 9번, 아 5:2에서는 6번 사용하신다.

1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나의)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나의)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아 5:1)

II. 고난의 참여로 신부를 초청하시는 예수님 (아 5:2)

2 내가 잘찌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리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아 5:2)

- A. 예수님은 겿세마네 동산의 ‘고난’을 겪는 모습으로 신부에게 나타나신다. 예수님은 주님과 더불어 고난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빌 3:10). 신부는 순종으로 응답하며(아 5:3-5), 두 가지 시험을 치르게 된다. 먼저, 예수님은 신부에게서 자신의 임재를 거뒀다(아 5:6). 두번째로, 영적 권위자들이 신부를 학대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신다(아 5:7). 이 두가지 시험에 신부는 사랑으로 응답하게 된다(아 5:8).

내가 그리스도와 ...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빌 3:10)

- B. 예수님은, 겿세마네 동산의 기나긴 밤을 지새어 밤이슬이 머리털에 가득한 “겿세마네의 예수”의 모습으로 신부에게 다가와, ‘고난의 주님’을 친밀하게 알 수 있도록 신부를 초청하신다.

C. 예수님은 신부가 “주님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안에 새로운 깊이를 경험하도록 초청하신다. 주님은 아 5:1에서 공포하신 것처럼, 주권으로 이제 신부의 마음전체를 소유하게 되신다. 아 4:16에, ‘북풍’을 기도한 신부의 기도응답으로 예수님은 신부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더 깊이 경험하며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도요, 갈망을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더 깊이 하나님과의 교통(교제)을 누릴 수 있게 된다.

20 불찌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 3:20)

D. 북풍이 불어올 때, 신부는 하나님 사랑 안에 확신을 가지고 안식하게 된다. 폭풍이 휘몰아 칠 때 예수님이 잠잠히 주무시고 계셨던 것처럼(마 8:23-27), 이미 주님은 “믿음의 안식”을 잘 알고 계신다. 순종의 삶을 사는 신부는 이제 영적인 것들에 예민한 심령으로 깨어 살게 된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살전 5:6; 롬 3:11; 앎 5:14).

E. 곧, 신부는 아 2:8에서 처럼,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된다. 예수님은 ‘신부의 사랑하는 자’로 모습을 다시 드러 내신다. ‘신랑의 음성’은 세례요한이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을 때 들었던 음성이다.

...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 (요 3:29).

F.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신부의 모습들을 묘사하고, 신부에게 주 사랑으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예수님은 4 가지 이름으로 신부를 부르신다. 이것을 통해, 신부는 주님께 마음을 여는 권능을 받게 된다.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아 5:2).

1. **나의 누이** - 신부와 같은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셨다. 예수님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기 위해 형용할 수도 없는 고난을 이겨내셨다 (히 2:11-17).
2. **나의 사랑** - 이것은 신부를 향한 주님의 인자한 사랑을 상기시켜 준다. ‘은혜의 동기’는 두려움이나 심판이 아닌, 사랑과 감사로 동기부여 된 것이다. “애정에 근거한 순종”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형태의 순종이다. 예수님의 애정을 경험함으로써 흘러나오는 순종이기 때문이다. ‘사랑없이’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위해 모든 역경을 참아낸다. 그래서, 이 순종은 가장 ‘일관된’ 순종이라 할 수 있다.
3. **나의 비둘기** - 이것은 신부의 ‘일편단심’과 ‘충성’을 말한다. 성령님은 비둘기로 비유된다. 비둘기는 짝이 죽으면 다른 짝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비둘기들은 충실함으로 잘 알려져 있다. 비둘기는 한 번에 두 사물을 볼 수 없으며, 주변 시야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이것은 타협하지 않는 ‘일편단심’의 마음을 말한다. 신부의 눈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다.

- 4. 나의 완전한 자 - 신부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성숙하게 되는 모습을 가리킨다. 신부의 순종은 성숙하게 된다. 이 시험을 치르기 전(아 5:2)과 후(아 6:9)에서, 예수님은 모든 타협을 거부하는 신부를 ‘완전한 자’라고 칭찬하신다.

III. 100% 온전한 순종으로 예수님께 응답하는 신부 (아 5:3-5)

3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4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때 내 마음이 동하여서 5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아 5:3-5)

- A.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신부는 순종하며 일어난다. 시험이 지난 후, 신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첫 마디는 신부가 순종으로 응답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아 6:4-5).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의복으로 덮혀져 있다(사 61:10; 슥 3:1-5). 우리 자신의 의나 의복은 ‘더러운 옷’과 같다(사 64:6). 신부는 자신의 더러운 옷을 벗고 주님의 의의 의복을 입었다. 신부는 자신의 옷을 다시 입고 싶어하지 않는다. 타협하며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다. 신부는 선포한다, “어찌 다시 (나의 옷)을 입겠으며.”

¹⁰ ...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겹옷으로 ... (사 61:10)

¹⁴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롬 13:14)

6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패함이 있사귀 같으므로 ... (사 64:6)

- B. 신부는 발을 씻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발이 깨끗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요 13:6-14). 이것은 매일의 삶에 필요한 ‘영적 정화’를 뜻한 것이다. 신부는 타협으로 다시 발이 더럽혀지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아 5:3). 미국 NIV역은 이것을 마치 신부가 침대에서 나오기를 거부하는 타협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신부가 순종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 C. 하나님의 ‘손’은 신부의 마음의 ‘걸쇠와 문빗장’에 은혜를 풀어주신다(행 11:21-23). 신부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 신부는 ‘겻세마네의 예수님’께 문을 열기 위해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이 갈급해진다. 예전에 이와 비슷한 초대가 있었을 때, 신부는 예수님께 올바르게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아 2:13, 17).

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걸쇠)으로 손을 들이밀때 내 마음이 동하여서 5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아 5:4-5)

- D. 예수님이 ‘결쇠’에 손을 들이미시는 것은, 신부가 마음의 문을 열도록 도와 주시기 위해서다. 신부의 ‘마음의 문빚장’은 결단에 영향을 주는 ‘생각들과 감정들’을 말한다.
- E. ‘몰약의 즙’이 손과 손가락 사이에 흐르며, 신부의 마음의 문빚장에 액체처럼 흐른다. 이것은 다가오는 두가지 시험의 고난을 이겨내도록 도와주는 ‘풍성한 은혜’를 말한다. 몰약은 장사를 지내는 데 사용되는 향품이었다. 이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죽음과 십자가를 지는 헌신을 말한다. 몰약의 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몰약이 손가락 사이에 흐른다는 것은, 신부가 몰약의 산으로 가려고 헌신할 때 역사하는 ‘믿음의 행위’을 말한다(아 4:6).

IV. 첫번째 시험: 신부에게서 임재를 거둬가시는 예수님 (아 5:6)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아 5:6)

- A. 주님은 아가서에서 두번에 걸쳐 신부에게서 모습을 감추신다(아 3:1-2; 5:6). 이 본문에서, 주님은 신부가 100%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려 할 때 임재를 거둬가신다. 이 계절은 신부가 불순종의 결과로 받았던 아 3:1-2의 훈육과는 다르다.

- B. 아가서 5 장에서, 예수님은 신부를 “나의 완전한 자”라고 부르시는 데(2절), 이것은 사랑으로 병이난 (사랑앓이를 하는) 신부가(8절) 주를 갈급하고(4절), 사모하며(5절) 주께 마음을 여는 ‘순종’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다.

- C. 신부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아 1:2-4; 2:3-6).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 중 가장 크고 강력한 즐거움이다.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 나는 ...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 15:1)

- D.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히 13:5). 그러나, 신부가 아 4:16 에서 기도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성숙한 사랑을 지니게 하기 위해, 때때로 임재를 거둬 가시는 시험을 주신다. 이것은 죄로 인함도 아니요, 마귀의 공격도 아니다. 때때로, 주님을 향한 더 큰 갈급함을 유도해 내기 위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감추기도 하신다.

...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 13:5)

E. 중세 카톨릭 신자들 중에서, 임재(관상)기도 했던 사람들은 “영혼의 깊고 어둔 밤”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오는 ‘거룩한(신적) 시험의 계절’을 가리킨다. 이 용어는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시기를 가리켜 사용된 용어였다. 이 구절은 16세기에 살았던 성 크로스 요한(St. John of the Cross)이란 사람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구절의 뜻에 대한 신학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F. 읍은 고난을 겪고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확립했을 때, 의로운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읍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읍 1:8)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읍 42:5)

G. 본문에서, 신부는 더욱 열심히 주를 찾지만, 만나지 못한다. 이 ‘거룩한(신적) 침묵의 계절’은 주를 향한 사랑을 자라게 하기 위해 받는 훈련이다. 시험의 계절에서도, 우리 믿음의 고백은 한결 같아야 한다. “내 삶을 향한 주님의 깃발은 사랑입니다”(아 2:4).

V. 두번째 시험: 꺾박하고 거절당하는 신부 (아 5:7)

7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웃을 벗겨 취하였구나 (아 5:7)

A.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행순 하는 자들)’은,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벽을 지키는 ‘리더들,’ 즉, ‘영적 권위자’들을 말한다. 그러나, 이들은 신부를 치고 상처를 준다. 그들이 신부를 거절하고 꺾박하고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신부와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이다. 전혀 모르는 자가 당신을 정죄하고 참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정작 당신과 가까운 친구들이다. 친구들과 함께 있는 집에서 상처를 받는 것은 예수님도 겪으셨던 경험이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훈련의 일부다(시 55:12-21).

B. 리더들이 신부의 ‘웃’을 취해간다는 것은, 신부의 영적 커버링, 즉, 지체를 섬기는 신부의 역할과 기능을 거둬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전 11:10).

VI. 겸손과 사랑으로 반응하는 신부 (아 5:8)

A. 신부의 겸손은 미숙한 예루살렘 여자들을 겸허한 마음으로 대하는 데서 나타난다.

8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아 5:8)

B. 신부는 두 가지의 시험을 주신 주님께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여 병이 나게 된다.

‘누구든지 나(예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마 11:6)

- C. 신부의 삶의 비전 두 가지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역에 주님과 함께 매진하는 것이었다(아 1:4).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약속들도 이 비전과 연관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신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 여기서, 이슈는 신부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겠는가? 이다.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하나님을 찾았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 순종할 것인가? 주님은 삶의 고난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 순종할 사람들을 찾으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업’이 되는 데 있어 나타나는 주된 이슈가 바로 이것이다. 주님은 ‘사랑으로 주님과 동일한 명예를 지는 신부’를 바라신다.
- D.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의 위기 7 가지: 죄의 위기(아 1:5-6); 두려움의 위기(아 2:8-9); 거룩한(신적) 훈육의 위기(아 3:1); 온전한 순종의 위기(아 4:6, 16); 주님의 부재로 인한 위기(아 5:6); 교회 안에서 겪는 거절감의 위기(아 5:7); 그리고, 핍박과 분열의 위기(아 6:13).

19장

두 가지 시험에 대한 신부의 반응 (아 5:8 - 6:5) (The Bride's Response To The 2-fold Test)

I. 복습: 삶에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는 신부의 절규

- A. 신부는 역경의 복풍과 축복의 남풍이 모두 심령의 동산에 불어 ‘은혜의 향기’와 ‘하나님의 임재’가 삶에서 날리게 되기를 기도했다.
¹⁶복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아 4:16).
- B. 이 기도는 성경에 나온 성숙한 사랑과 헌신을 위한 기도 중 가장 위대한 기도이다. 우리의 삶에 향기가 날리도록,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타인을 향한 사랑이 성숙해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 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이다.
- C. 아가서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아가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아 1-4장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아 5-8장은 우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복풍을 위한 기도의 응답은 아 5:3-7에 나오게 된다.
- D. 주님은 “겻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신부에게 찾아오면서, 더 깊은 차원의 친밀감을 경험하도록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신부를 초청하신다.
1. 신부는 순종으로 응답하며(아 5:3-5), 두가지의 시험을 치르게 된다. 먼저, 예수님은 신부에게서 임재를 거둬가신다(아 5:6). 그리고, 주님은 신부가 영적 권위자들(종교적인 지도자들)로부터 학대받는 것을 그대로 놔두신다(아 5:7).
 2. 이에 대해, 신부는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응답한다(아 5:8). 사랑의 성장(아 5:9-6:13)과 열매맺는 사역(아 7:1-8:4)을 위해, 우리는 아 5:2-9의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 E.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거둬 가신다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는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에도,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주위 환경으로 낙심할 때도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믿음의 근육”을 길러, 고난 가운데서도 심령을 주님께 다시 맞추며, 사랑의 성장을 거듭해야 한다.
- F.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또는 주위환경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며 우울해지는 경향을 갖는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사랑의 성장을 위해 이러한 ‘성장통’을 겪는다는 진리를 심령에 거듭 새겨야 한다.

II. 아가서 5:8-6:5 개관

- A. 고난 가운데서도, 신부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다(아 5:8-16). 하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향해 ‘사랑앓이’를 하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 “예수님, 제가 처한 고난은 사랑의 성장을 위한 것임을 압니다. 주님은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 5:8-10).

예루살렘 여자들아 ...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아 5:8)

- B. 신부는 영적으로 아직 더 미숙한 예루살렘의 여자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겸손을 보이며, 하나님께 사랑으로 응답한다(신부는 자신에게 상처 준 교회를 경멸하지 않는다).
- C. 미숙한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부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째, “그가 누구이길래 그렇게 사랑하는가?(아 5:9). 그는 네게서 임재를 거뒀고(6절), 리더들이 너를 상처주게 그냥 놔두지 않았는가(7절)”. 그러나, 그들은 예상치 못했던 대답을 신부로부터 듣고, 두번째 질문을 던지게 된다. “너처럼 우리도 그를 만날 수 있겠는가?”(아 6:1).
- D. 시험이 끝난후, 예수님은 고난의 씨름(시험)을 치르는 신부를 바라보며 느낀 마음과 생각을 아낌없는 사랑의 말로 신부에게 표현하신다(아 6:4-10).

III. 첫번째 질문: 그가 누구이길래 그를 그렇게 사랑하는가 (아 5:9)

9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가장 아름다운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아 5:9)

- A. 영적으로 미숙한 예루살렘 여자들은 아가서 전체에 걸쳐 신부에게 여러 질문들을 던지게 된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불평과 우울함으로 가득찬 신부가 아닌,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병난 신부를 지켜보고 있다. 예수님을 향한 신부의 깊은 사랑이 신부의 지혜나 은사보다도 그들을 더욱 자극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혜나 능력보다는, ‘사랑’을 통해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어 졌다(베전 3:3-4).
- B. ‘행순하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논쟁”(아 5:7)은 신부를 바라보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들은 신부를 “극히 어여쁜,” 또는 “가장 아름다운” 자라 부르게 된다(아 5:9). 그들은 신부의 헌신과 순결을 보고, 신부를 깊이 존경하게 된다. 이것은 ‘사울형’의 리더들(행순하는 자들)이 신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대조된다. 사울은 다윗의 영적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다.
- C. “너의 사랑하는 자가 다른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신부가 처한 극한 시련가운데서도, 신부 안에 있는 사랑을 깨워주는 특별한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왜 그렇게 그에게 충성하는가? 그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알려달라!”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부의 극단적인 헌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 D. 예루살렘 여자들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연인”이 존재한다. 믿는 자들의 삶에 있는 다른 연인이란, 사람, 친구, 사역, 물질, 여가, 쾌락, 권력, 유명세, 안위 등과 같은 것이다. 많은 거듭난 자들이 예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한다.
- E. 영적 성숙은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첫 사랑’이 될 때 정의된다. 성령님은 지금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안에 ‘첫계명’을 ‘최우선 순위’로 회복하고 계신다.
- F. 같은 질문이 반복 되면서 강조되고 있다. 질문을 반복한다는 것은 답을 듣고자 하는 그들의 간절함을 표현한 것이다. 그들이 심각하게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음 질문인 아 6:1을 통해서 알 수 있다.
- G.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의 질문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 16:15). 바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여호와가 누구관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출 5:2).
- H. 모든 사역의 가장 강력한 차원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다(고후 2:14-17). 사람들이 당신 안에 있는 ‘주를 향한 헌신’을 보고 도와 달라고 하는가?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지키며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사람들이 당신의 삶가운데 보며 배울 수 있도록 비전을 세워봐라.

IV. 신부의 응답: 위엄한 광채의 예수님 (아 5:10-16)

- A. 신부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의 질문에 답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소유하신 인격의 속성 10 가지를 전달하기 위해, 인체 각 부분들을 비유로 사용하신다. 각각의 속성은 두 가지로 기술된다.
- B. 아 5:10-16 은, 성경에 나온 예수님에 대한 계시들 중 가장 강력한 계시를 보여주는 본문에 속한다. 신부는 먼저, 주님의 아름다움을 한 문장으로 진술하고 나서 10 가지 속성을 전개한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 요약문을 다시 진술한다.

¹⁰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눈부신, NAS역)... 만 사람에게 뛰어난다 11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블고블하고 ... 12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 13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 입술은 백합화 같고 ... 14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물은 아로새긴 상아에 ... 15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 16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아 5:10-16)

- 1. 그의 머리 - 만물위에 계신 주의 주권적 리더십
- 2. 그의 머리털 -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에 대한 헌신
- 3. 그의 눈 - 주의 무한한 지식과 지혜, 통찰력과 분별력
- 4. 그의 뺨 - 주의 다양한 감정들

5. 그의 입술 - 주의 말씀
6. 그의 손 - 주의 거룩한(신적) 활동
7. 그의 몸 - 주의 인자한 긍휼의 마음
8. 그의 다리 - 주의 목적을 위한 걸음과 운영
9. 그의 형상 - 주의 백성들에게 나눠주심
10. 그의 입 - 주의 친밀함
11.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 주의 종합적 아름다움
12. 그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친구다

C. 신부가 ‘사랑앓이’를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두가지 시험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부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찾는데 초점을 둬므로, 자신에게 또는 문제에 초점맞추는 것을 극복한다. 우리가 주님의 속성들에 대한 계시를 얻게 될 때, 인생의 ‘폭풍우’를 지나면서도 심령에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된다.

D. 삶이 혼란스러워 질 때, 나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다루는 책들을 읽곤 하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들(The Existence & Attributes of God, Steven Charnock),’ ‘거룩한 분을 아는 지식(Knowledge of the Holy, AW Tozer),’ ‘하나님을 아는 지식(Knowing God, JI Packer),’ 그리고, ‘하나님의 즐거움(The Pleasuer of God, John Piper)’ 등이 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에 대한 주제로 내가 저술한 책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연인을 사랑하는 즐거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V. 광대한 아름다움을 지니신 예수님 (아 5:10-16)

A. 신부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일반적 진술을 내놓으며 시작한다(아 5:10). 고난 가운데서도, 신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자신이 사랑하는 분으로 언급하고 있다. NIV 역은 “희고도”를 “빛나는”으로 번역한다. 그분은 ‘붉으시다’. 이것은 인성을 지니신 주님을 가리킨다. 예수님이 ‘만 사람위에 뛰어나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보다 비교도 안될만큼 ‘탁월한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한 것이다.

¹⁰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아 5:10)

B. 예수님의 ‘머리’는 모든 창조물 위해 계신 주님의 ‘주권적 권위’를 말한다(엡 1:21). 그것은 신부에게 정금과 같다. 금은 ‘거룩한(신적) 성품’을 말한다. ‘정(금)’이란 품질과 수준에 있어 최고를 말한다.

머리는 정금같고 (아 5:11)

- C. 예수님의 ‘머리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의 백성들에 대한 예수님의 ‘헌신’을 말한다. 나실인의 맹세를 한 자들은 자신들의 머리털을 자를 수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께 외적 표징으로 보이는 헌신을 뜻했기 때문이다(민 6장).

¹¹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아 5:11)

1. 주님의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즉, 주님의 헌신은 청춘의 열정과 열심을 지닌 자만큼 왕성하다. 인생의 황금시기에 있는 청년의 고불고불하고 검은 머리는, 활력과 그 솟을 잃어버리고, 가늘고 흰머리카락을 지닌 노인과 대조된다. 다시말해, 하나님 아버지와 그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거룩한 헌신은, 꺼지지 않고 영원토록 불타는 ‘활력적인 열정의’ 헌신이다.
2. 머리털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아름다움’을 말하기도 한다. 바울은 여인의 머리털을 영광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아름다움으로 말한 바 있다 (고전 11:5, 6, 15).

- D. 예수님의 ‘눈’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즉, 주님의 전지(全知) (무한한 지식, 지혜, 그리고 분별력)를 말한다. 비둘기와 같은 주님의 눈은 ‘일관된 비전’을 말한다 (아 1:15; 4:1).

¹²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아 5:12)

- E. 예수님의 ‘뺨’은 주님의 열정과 즐거움을 포함한 ‘주님의 감정들’을 말한다. 우리의 감정은 뺨에 노출된다. 뺨은 우리 감정의 창문과도 같아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지, 슬퍼하는지, 화가 났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 예수님의 감정은 ‘향기로운 꽃밭’ 같다. 향기로운 풀 언덕은, 풍성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향기를 지니신 주님의 ‘애정’을 말한다.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과도 같고 (아 5:13)

- F. 예수님의 ‘입술’은 달콤하면서도 백합화 같이 순전한 주님의 ‘말씀’들을 말한다. 입술은 ‘몰약’을 담고 있는 데, 이것은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권고를 말한다.

¹³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똑똑 떨어진다 (아 5:13)

- G. 예수님의 ‘손’은(또는, 팔, NIV 역) 주님의 ‘역사와 활동들’을 말한다. 주님은 전능하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황금 노리개는 ‘거룩한(신적) 성품’을 말한다.

¹⁴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아 5:14)

- H. 예수님의 ‘몸’ (또는, 배, KJV 역)은 주님의 인자한, ‘공홀의 마음’을 말한다. 아 5:4에서, 신부는 “내 마음이 동하여서(열망하여)”라고 말하는 데, 여기서는 ‘몸’이라고 번역되었다. 이것은 깊은 감정, 또는 인자한 공홀의 마음을 말한다. 예수님의 공홀한 마음은 상아와 같이 귀한 것이다 (아로 새긴 상아처럼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다).

¹⁴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듯하구나 (아 5:14)

- I. 예수님의 ‘다리’는 주님의 목적을 위한 주님의 ‘걸음과 운영’을 가리킨다. 다리를 통해 몸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예수님이 주님의 목적들을 성취하고, 계획들을 운영하는 방법은 마치 화반석(대리석) 기둥 같다. 기둥은 힘, 질서, 아름다움을 말한다. 화반석(대리석)은 건물을 지을 때 단단하고 영구적인 재료로써 사용되었다. 예수님의 방법은 강하고, 사랑스러우며, 영구적이지요, 세우는 것이며, 질서 정연한 것이다.

¹⁵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아 5:15)

- J. 예수님의 ‘형상’은 주 백성들에게 나눠 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말한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형상)을 들어 우리에게 비취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기도였다. 레바논은 ‘장엄함과 고귀함’을 상징한다.

¹⁵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아 5:15)

- K. 예수님의 ‘입’은 아가서 전체를 통해, 그분의 백성과 친밀감을 누리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아 1:2 에서, 입은 아가서 처음으로 주님의 입맞춤으로 나오는 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리킨다. 주님의 입은, 말씀을 나타내는 주님의 입술과는 구별된다(아 5:13).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가장 달콤한 것이다. 이것보다 신부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¹⁶입은 심히 다니 (아 5:16)

- L. 예수님은 그 전체가 사랑스럽다. 이것은 전체 요약문이다. 신부가 사랑하는 분은 신부가 ‘친구’라고 부르는 분이다. 주님은 광대함으로 광명하게 빛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 자신을 낮추신 분이시다.

¹⁶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 일다 (아 5:16)

VI. 두번째 질문: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아 6:1)

¹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아 6:1)

- A. 아 5:8 에서 시작된 신부와 예루살렘 여자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진다. 여기서, 예루살렘 여자들은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신부를 보고, 예수님에 대해 그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무언가를 신부가 알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래서, 그들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진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즉, 우리도 너와 같이 주님을 알게 되길 원한다. 네가 가진 것을 우리도 갖게 되길 바란다.
- B. 아 5:10-16 에서 준 신부의 대답을 듣고, 예루살렘 여자들은 “그가 누구이길래?”라는 질문에서 “그가 어디있는가 우리도 찾으리라”라는 질문으로 바꾸게 된다. 그들은 더 이상 멀리서 예수님을 섬기는 데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신부가 아 1:7 “예수님께서 그의 양떼를 어디서 먹이시는가?”라고 했던 질문을 신부에게 하게 된다.

- C.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부에게 예수님을 “너의 사랑하는 자”라고 언급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직 ‘그들의 사랑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계속해서 신부를 볼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자’로 본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른다.
- D.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부와 더불어 예수님을 찾고 싶어한다(아 6:1).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신부의 고백이 이들을 감동시켜, 열정을 지닌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만든다. 이제 그들은 “다른 연인들”을 기꺼이 내려 놓으려 한다. 찬란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전까지, 우리 모두는 “다른 연인들”을 지니고 살게 된다.
- E. 결국, 신부의 시험을 통해, 다른 이들의 삶이 극적으로 변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한결같이 사랑할 때,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성령님은 전 세계에 기독교의 표현을 바꾸고, 마지막 때 다가 올 ‘압력’ 속에서도 사랑이 충만한 신부들을 예비시킬 ‘메신저(주의 사자들)’, 예수님을 깊이 ‘사랑앓이’ 하는 메신저들을 일으키고 계신다(계 15:2-4).

VII. 두번째 질문에 대한 신부의 대답 (아 6:2-3)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모으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 6:2-3)

- A. 예수님은 교회 안에 계셔서 교회를 계속 세우신다. 신부는 어디서 예수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준다. 예수님은 ‘그분의 동산(교회)’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모으고 먹이신다. 주의 동산(단수형)은 ‘지역 교회들,’ 또는 동산들(복수형)로 이루어진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말한다.

¹⁸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8)

- B. 신부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라고 선포한다(아 6:2). ‘꽃밭’(복수형)은 주님의 동산(교회) 안에 있다. 이 땅에 주님의 교회는 하나지만, 다양하고 향기로운 꽃밭들(지역 교회들과 사역들)이 존재한다. 향기(향품)는 나타나는 주님의 ‘은혜’를 말한다. 사역 하나 하나 독특한 향기를 지닌다. 동산에 있는 “향기로운 밭” 하나 하나 모두 그리스도의 풍성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모든 교회를 사랑하신다.
- C. 예수님의 뺨은 ‘향기로운 꽃밭’과 같다(아 5:13). 교회에서 다양하게 반영하는 예수님의 성품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또는 ‘향기로운 산’(아 8:14)에서 모두 합쳐지게 될 것이다.
- D. 아가서 1:7-8 와 아 6:2-3을 비교해 보면, 신부가 예수님과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아 1:8에서, 신부는 “말해다오, 어디서 당신의 양떼를 먹이는가?” 질문했고, 예수님은 양떼를 먹이시는 곳을 세가지로 응답해 주셨다.

⁷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 8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찌니라 (아 1:7-8)

1.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에 헌신함 (8절): 부정(不淨)한 고립을 거부
2. 섬김의 사역에 헌신(8절): 부정한 나태를 거부
3. 영적 권위에 헌신 (8절): 부정한 독립을 거부

E. 다음 장에서: 예수님은 신부를 향한 사랑을 쏟아 부으시면서 침묵을 깨뜨리신다. 주님은 깃발을 높이 든 ‘승리의 군대’와 같이 신부가 위대하다고 선포하신다. 예수님은 넘치는 신부의 사랑에 “정복”되신다. 주님께 드리는 깊은 ‘헌신의 눈’이 주님을 감동시킨다. 지옥에 있는 모든 군대도 예수님을 정복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시험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신부의 눈은 주님의 마음을 “정복”하게 된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엄위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네 눈이 나를 놀래니(정복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아 6:4-5)

20장

시험의 계절 후 신부를 칭찬하시는 예수님(아 6:4-10) (Jesus Praises Her After Her Season of Testing)

I. 복습: 삶에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는 신부의 절규

A. 신부는 역경의 북풍과 축복의 남풍이 모두 ‘심령의 동산’에 불어 은혜의 향기, 즉,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타인들에게 날리기를 기도했다.

¹⁶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아 4:16).

B. 아가서의 전환 부분이다. 아가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아1-4장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아 5-8장은 우리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북풍을 위한 기도의 응답은 아 5:3-7에 나오게 된다.

C. 주님은 “갯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모습 (아 5:2) 으로 신부에게 찾아오시면서, 더 깊은 차원의 친밀감을 신부가 경험하도록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초청하신다.

²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 나의 사랑 ... 문 열어 다고 (아 5:2)

D. 신부는 순종으로 응답하며(아 5:3-5) 두가지의 시험을 치르게 된다. 먼저, 예수님은 신부로 부터 임재를 거둬 가신다(아 5:6). 그리고, 주님은 신부가 영적 권위자들(종교적 지도자들)로 부터 학대받는 것을 그대로 놔두신다(아 5:7). 그러나, 신부는 하나님께 사랑으로 응답한다(아 5:8).

E.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부에게 두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째, “그가 누구이길래 그렇게 사랑하는가?” (아 5:9). 신부는 ‘예수님의 아름다움’ 열가지를 선포하면서 질문에 답한다(아 5:10-16). 신부의 대답을 듣고 그들은 두번째 질문을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너와 같이 그를 알수 있는가?” (아 6:1).

¹⁰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눈부신, NAS역)... 만 사람에게 뛰어난다... 16잎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아 5:10-16)

II. 아가서 6:4-10 개관

- A. 아가서 6:4-10 에서, 예수님은 아가서 5:6에서 시작된 침묵을 마침내 깨뜨리신다. 주님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시고, 시험의 계절동안 신부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셨는지를 드러 내신다(주님은 아 5:3 에서 불순종했던 신부를 꾸짖지 않으신다). 주님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기 위해 세가지 비유를 사용하신다(4절). 또한, 아 5:10-16 에서 신부가 주님에 대해 선포한 것처럼, 신부를 향한 주님의 열정(5절)을 아낌없이 드러내신다.
- B. 주님을 섬기는 스랍과 그룹, 셀 수도 없이 많은 천군천사들이 있는 주님의 왕정에서 예수님은 신부의 성숙함(아 6:5-7)과 훌륭함을 칭찬하신다(아 6:8-9).
⁸왕후가 육십이요 비빈이 팔십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 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
(아 6:8-9)
- C. 성령님은 ‘신부의 영광’을 기술했다(아 6:10).
¹⁰아침빛 같이 뚜렷하고 달 같이 아름답고 해 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 같이 엄위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 6:10)

III. 시험의 계절에 있던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시는 예수님 (아 6:4)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운이 예루살렘 같고 엄위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아 6:4)

- A. 신부가 “그는 빛나고, 전체가 아름다움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며 병이 났나이다”라고 고백한 후(아 5:8-16), 예수님은 오랜 침묵을 깨시고, 신부의 아름다움을 세가지로 비유하며 칭찬하신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서 발견되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신다. 우리가 갈망해야 할 칭찬은 ‘하나님의 칭찬’이라고 성 어거스틴은 말했다. 예수님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아 7:6-9 에서 더 완벽하게 칭찬하신다. 심령안의 성령의 역사로 더욱 아름다와지는 신부를 예수님은 기뻐하신다. 아가서 전체를 통해, 예수님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9 번 확증시켜 주신다(아 1:15(2번); 2:10,13; 4:1(2번); 4:7; 6:4; 7:7).
- B. 신부를 향한 마음을 전달하시기 위해, 주님은, “오 내 사랑”이라고 신부를 부르신다.
- C. 예수님은 신부를 디르사 성(도시)처럼 아름답다고 칭찬하신다. 이 도시는 고대에 가장 매력적인 도시중의 하나였다. 디르사는 “아름답다”라는 뜻이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아래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 도시는 가나안의 수도였다(여 12:24; 왕상 15:33; 16:61). 주석학자들 중에는 이 가나안 도시를, 믿지 않는 ‘이방인의 나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시 말해, 신부는 불신자들에게도 아름다와 불신자들을 효과적으로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

- D. 솔로몬이 죽은 후, 내전이 일어난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지게 된다(931 BC). 북왕국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디르사를 수도로 삼았는데 (왕상 14:17; 15:21; 16:6), 그 이유는 북왕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디르사였기 때문이었다. 디르사는 본래 므낫세 족의 영토였다.
- E. 예수님은 신부를 예루살렘 만큼이나 사랑스럽다고 칭찬하신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영적’ 수도였다. 이 도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곳으로, 지구상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임재(지성소의 쉼카이나 영광이 나타남)가 계속 나타나는 축복이 임했던 장소였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전 세계의 예배 센터’로 위임하셨다(사 2:1-4; 스 14:16-19).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말한다.
- F. 디르사는 불신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아름다움’을 말하며, 예루살렘은 믿는자들이 귀하게 여기는 ‘영적 아름다움’을 가리킨다. 신부가 디르사와 예루살렘처럼 아름답다는 것은, 믿는 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끼칠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말한다. 신부의 아름다움은 모든 이에게 영향을 미친다. 불신자들은 희생적인 신부의 사랑과 순수한 동기를 보게된다. 그들은 신부를 볼 때,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내 주는 자로 보게된다.
- G. 고대 군대들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행렬하면서 기를 높이 들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패배군은 기를 빼앗겼다. 신부는 가장 큰 적인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다. 신부가 기치를 벌인 승리의 군대처럼, 시험의 계절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죄와 불신에 승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모든 것이 불투명하게 보일 때에도, 헌신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주님은 기뻐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베풀어주시게 된다. 신부에게 타협과 두려움의 ‘그림자들’은 이제 모두 사라졌다(아 2:17; 4:6). 주님의 은혜로 정복했기 때문이다.

‘내 사랑아 ... 엄위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아 6:4-10)

IV. 주님의 마음에 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신부를 칭찬하시는 예수님 (아 6:5)

⁵네 눈이 나를 놀래니(정복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아 6:5)

- A. 이 구절은 성경의 본문 중 가장 위대한 성명문 중의 하나다. 신부의 눈을 통해, 주님을 향한 신부의 사랑을 알 수 있다.
- B. 문자 그대로 주님으로 부터 눈을 돌리라는 말이 아니다. 주님은 시적인 언어를 통해, ‘신부의 아낌없는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은 아 5:10-16에서 표현된 것처럼,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해 요동치 않는 우리의 사랑에 깊이 감동받으사 마음이 정복되신 것이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를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질문했을 때, 신부는 주님이 ‘전체가 사랑스럽고 빛나는 분’이라고 대답했다.

- C. 헌신의 눈은 예수님을 감동시킨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영광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D. 누가 주님의 마음을 정복하는가? 산과 바다, 별들의 위대함도 주님의 마음을 정복하지 못한다. 인간이나 마귀의 강력한 군대라도 주님께는 적이 되지 못한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용사’이신 예수님은,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신부의 사랑에 “정복”되신다. 그렇다, 주님을 바라보는 신부의 사랑의 눈이 주님을 감동시킨다. 아 6:5 에 나오는 신부의 한결같은 ‘주 바라기’는 ‘한번 보는 것’(아 4:9)보다 더 강력하다.
- E. 주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을 알고 싶은가? 주님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연약한 자, 상한 자들에 의해 정복되신다. 시험가운데 신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지만, 주님은 너무나 많은 것을 느끼고 계셨다. 시험가운데 드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께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이다. 물론, 신부는 자신의 사랑이 주님께 끼치는 영향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험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 F.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 다 알지는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 ‘가나안 여자’를 거절한 것처럼 보였을 때, 그 여자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놀랐다는 사실을 그 여자는 알지 못했다(마 15:21-28).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마 15:28).

V. 신부의 영적 성숙함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아 6:5-7)

⁵ 네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너울 속의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아 6:5-7)

- A. 신부의 성숙함을 묘사하기 위해, 예수님은 머리털, 이, 그리고, 뺨을 통해 신부의 세가지 성품을 강조하신다. 머리털은 신부의 ‘헌신’을, 이는 ‘주 말씀안의 생활’을, 그리고 뺨은 ‘거룩한 감정’들을 가리킨다. 예전에, 이러한 미덕들이 신부안에 피어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예언 하셨던 바로 그 성품들이다(아 4:1-3). 이제 이 미덕들이 신부의 삶에 ‘꽃이 피듯’ 성숙하게 되었다. 아 4:1-2 은 신부의 눈, 머리털, 이, 그리고 뺨을 아 6:5-6 와 같이 기술한다. 아 4:2 에는 “털 각인”이라는 단어가 추가 되어 있다.
- B. 거의 비슷한 단어들을 사용하시며, 주님은 확증들을 반복하시는데, 이것은 아 5:6-7 의 시험이, 신부의 삶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 꼭 필요했던 과정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함이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롬 8:28).
- C. 신부의 머리털은 하나님을 향한 신부의 ‘헌신’을 말한다. 나실인의 머리털은 그들의 거룩한 헌신을 뜻하는 외적 표징이었다(민 6 장).

⁵ 네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아 6:5)

D. 신부의 머리털, 즉, 헌신은 ‘영적 공급’을 잘 받은 결과다. 길르앗 산은 염소들이 풍부하게 먹을 것을 공급받는 비옥한 땅이었다. 신부의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받은 결과다. 아 4:1에는 길르앗을 가리키기 위해 “산”이라는 단어가 첨가되어 있다.

E. 염소들은 위풍당당하면서도 질서를 지키며 걷는다(잠 30:29-31). 신부의 헌신은 육적 열심과는 대조되는 ‘거룩한 질서(지혜)’가 나타나는 면에서 염소떼와 같다.

29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잠 30:29-31)

F. ‘이’는 딱딱한 음식을 씹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데, 고기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히 5:12-14). 유아는 이가 없어, 우유나 젖을 통해서만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전 3:1-3).

6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아 6:6)

1. 우리는 ‘고기’와 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묵상 하면서, 청결하고 건강한 이를 관리해야 한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목자가 진흙을 씻어 주고 그 목욕장에서 나오는 양처럼, ‘영적 순결함’을 지킬 수 있게 된다(엡 5:26-27; 요 13:10; 17:17).

2. 사역의 열매는 ‘말씀안에 거하는 신부의 삶’에서 나온다. 쌍태를 낳는다는 것은 ‘갑절의 열매’를 말한다. 신부는 새끼를 잘 낳는 양에 비교되고 있다. 말씀안에 신실하게 거하는 삶은 ‘열매’를 보장해 준다(딤후 4:6-16). 여기에 나와있는 양은 순결하고 열매를 맺는 양으로, 열매는 말씀안에 거하는 삶에서 비롯된다(요 15:7-8).

G. ‘석류’같은 신부의 뺨은 신부의 ‘거룩한 감정’들을 말한다. 뺨은 사람의 감정을 드러낸다. 우리의 감정은 뺨을 통해 전달된다. 사람의 뺨을 보면, 그 사람이 기쁜 지, 슬픈 지, 즐거운 지를 알 수 있다. 뺨은 ‘감정의 창문’이다.

7 너울 속의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아 6:7)

1. 석류는 상당히 단 과일이다. 신부의 마음은 거룩하며, 하나님께 ‘달콤’하다.

2. 석류를 쪼개보면 안이 빨강다. 빨강은 신부의 정숙함, 그리고, 부끄러운 일에 얼굴을 붉히는 성향을 말한다. 매춘부는 자신의 부끄러운 일에 얼굴을 붉히지 않는다. 빨개진 얼굴은 부끄러운 일에 대한 민감성을 말한다.

H. 너울 속(베일 속)은 하나님 안에서 갖는 신부의 ‘은밀한 삶’을 말한다. 하나님을 향한 신부의 마음과 정숙함은 누가 보지 않더라도 진정하다는 뜻이다. 아가서 4:3 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지 않는다.

VI. 하늘의 신랑인 예수님의 궁정 (아 6:8)

⁸왕후가 육십이요 비빈이 팔십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 (아 6:8)

- A. 신부는 천국 궁정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무수한 영광의 천군 천사들보다 더 큰 최고의 영광을 누린다. 고대 왕의 궁정에는 다양한 계급의 여자들로 구성된 규방들이 있었다. 솔로몬 왕의 궁정은, 왕이신 예수님의 ‘하늘 궁정’을 상징한다. 솔로몬 궁정에는 각각 다른 영광을 나타내는 지위들이 있었다(왕후, 비빈, 시녀등).
- B. 아가서가 씌어졌을 당시, 솔로몬에게는 왕후라고 불린 자들이 60명 이었다. 나중에 솔로몬은 700 명의 부인을 두게 되었다(왕상11:3). 하지만, 이 왕후들은 솔로몬의 총애를 받았던 술람미 여인만큼의 신망과 영광을 얻지 못했다. 모든 왕후들 가운데서도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여인은 ‘왕의 신부’였다.
- C. 60명, 80명, ‘무수한’ 이 숫자들은 솔로몬 궁정에서 누리는 ‘영광의 차이’를 말한다. 60명의 왕후들은 솔로몬 궁정에서 최고의 계급을 가진 자들이었다. “왕후의 영광”을 가질 수 있는 숫자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 다음 계급은 비빈으로 80명이 있었다. 왕의 궁정에 있던 비빈들은 왕후보다는 영광이 적었지만, 시녀보다는 더 영예로운 지위를 가졌다. 그들은 법적으로 왕의 가족에 속하며,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녀들은 왕의 궁정의 “일원”에 불과했으며, 법적으로 왕의 가족에 속하지도, 자산을 소유할 수도 없었다.
- D.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의 신부가 주님의 궁정에서 그 어떤 천군 천사들보다 더 큰 영광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양한 계급들을 가진 수많은 영광의 천군천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지만, 주님의 신부는 이들을 훨씬 능가한다.
- E. 우리의 목적은, 왕후, 비빈, 시녀들에 상응하는 천상의 특정 무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궁정에 계급에 따른 영광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궁정에는 다양한 계급과 지위가 존재하며, 스랍, 그룹, 천사장, 24장로들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 F. 그러나, 하나님 보좌 주위에 60 와 80 과 같은 특정 숫자로 계급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 숫자들은 단지 왕의 궁정의 지위에 따라 영광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전달해 줄 뿐이다. 아 6:8에 나오는 세 종류의 무리를 사용, 천상의 궁정의 계급을 똑같이 분류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솔로몬 궁정에 있는 무수한 시녀들을 천상의 무수한 천사들에 비교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VII. 하나님의 가족 안에 누리는 신부의 영광 (아 6:9)

⁹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 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총애를 받는)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 6:9)

- A. 술람미 여인은 주님의 ‘비둘기’, 주님의 ‘완전한 자’로 불린다. 주님의 비둘기는 신부의 ‘일편단심’을 말한다. 신부는 하나님의 비둘기로서,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안에 살아간다.
- B. 주님의 ‘완전한 자’라는 것은, 신부가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는 뜻이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교회는 ‘주름이나 흠없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차게 될 것이며, 성숙한 사랑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엡 5:26-27).
- C. ‘영원의 성’에 자리잡은 예수님의 궁정의 영광의 무리들 가운데, 주님의 신부는 오직 하나다. “외딸”은 NAS/NIV 역에 “특별한”으로 번역되어 있다. 신부에게는 라이벌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부는 다른 무리와 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예수님은 “내 궁정에 있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내가 원하는 자는 나의 신부이며, 내가 누구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면, 그것도 신부뿐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신부가 주님께 고백했던 말(아5:10, 16)을 그대로 신부에게 고백하고 계신데, 그것은 신부가 ‘특별한 자’, 또는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유일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신부에게 예수님이 ‘만 사람위에 뛰어난 자’인 것처럼, 예수님께 신부는 ‘만 사람위에 뛰어난 자’이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는 오직 신부뿐이다.
- D. ‘어미’는 역사적으로 ‘교회’를 뜻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교회는 ‘어머니’로 여겨진다. 바울은 새 예루살렘을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비유적으로 말한 적이 있다(갈 4:26). 역사적으로 구속받은 자들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낳은 “어미”로, 또, 그 어미후에 나온 믿는자들을 대표한다(계 12:5, 17).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 영적 탄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육의 탄생을 위해 주님이 사용하는 도구는 우리의 육의 어머니이다. 영적 탄생을 위해 주님이 사용하는 도구는 우리의 영적 어머니인 ‘교회의 증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주님의 어미다(마 12:46-50). 주님은 교회를 사용하사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며, 이들을 주님의 교회의 일부가 되게 하신다. 어미인 교회는 주님의 혼인 날에 사랑으로 예수님께 면류관을 씌워 드리게 될 것이다(아 3:11).
- E. 나는 ‘주님의 (성숙한) 신부’를,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성숙해 진 교회로 정의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도 온전히 성숙한 교회는 아니었다. 물론, 여러 도시에 영광의 순간들은 있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전 세계의 교회는 ‘티도, 흠도 없는 교회’로, 즉, 성숙한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엡 5:26-27). 마지막 때, ‘대환란’을 통과하며 승리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역사상 유일하게 흠없이 온전히 살아온 세대가 되는 ‘특별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
- F. 정의에 따르면, 신부는 성숙한 사랑을 가지고 사는 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신부’같이 사는 방법은 성숙한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하게 흥미로운 점은, 신부가 그녀를 낳은 자들 중, 총애를 받는 (귀중한) 자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역사적으로, 구속받은 자들을 말하는 ‘어미’의 총애를 받는 자들이다. 마지막 때, 전 세계에 퍼져있는 성숙한 신부들은 역사상 특별한 자들로, 그 신부를 낳은 ‘어미’의 총애를 받는 자들이 된다.

- G. 역사적으로,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이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마지막 때의 영혼의 대추수며, 온전한 성숙이다(계 14:14-16; 앱 5:27).
- H. 마지막 때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속하는 ‘온전한 성숙’을 이루게 될 것이다(앱 4:13).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마치실 것이며,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마 16:18; 빌 1:6). 모든 역사를 통틀어 지금까지 교회는 온전한 성숙함을 이루지 못해 왔으며, 거의 ‘예루살렘의 여자들’처럼 살아왔다.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난 역사의 모든 교회는 마지막 때의 교회를 보며 ‘축복받은 자’라 부르게 될 것이다.
- I. 성숙한 신부의 영광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녀를 보고 ‘축복받은 자’라고 부르는 구에서 나타난다(아 6:9).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여자들은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아 6:1에서 그랬던 것 처럼, 신부를 ‘축복받은 자’라 부르게 될 것이다. 지난 역사상의 모든 구속받은 자들은, 마지막 때의 교회가 땅에서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신부가 영광의 지위를 받게 되는 것을 기뻐하는 ‘천상의 무리’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숙하게 되는 성도들을 전세계적으로 일으키실 것이다.

VIII. 신부의 4 가지 영광의 면류관을 묘사하시는 성령님

¹⁰아침빛 같이 뚜렷하고 달 같이 아름답고 해 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 같이 엄위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 6:10)

- A. 이 본문에서, 신부는 영원의 성에 계신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 상속자’로 4가지의 영광을 소유한다. 성령님은 4가지의 비유를 사용하여 신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데, 아 6:4에서 신부를 땅에 도시들(예루살렘과 디르사)에 비교 했듯이, 이번에는 신부를 ‘하늘의 피조물들’에 비교하신다.
- B. 성령님은 반어적(수사적) 질문을 하신다, “그녀는 누군가?” 예수님은 방금 전, 주님의 궁정에서 갖는 신부의 영광과 지위를 선포하셨었다. 성령님은 이제 그 신부의 영광의 자리를 확증시켜 주신다. 성령님은 똑같은 질문을 아가서에서 3번 반복하신다, “이는 누군가...?” (아 3:6; 6:10; 8:5).
- C. 이 세상에서의 신부의 사역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빛나는” 사역이다. 지나간 밤이 지난 후 떠오르는 아침의 태양은 희망을 가져다 주는 빛을 발한다. 이 땅의 교회는 마 5:13-16에 나온 것처럼, 빛(방향, 생명)과 소금(맛, 보존)의 역할을 한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또, 사회의 각 분야(정치, 경제, 군사, 교육, 가정, 방송, 미술, 과학, 사회 기관등등)에 미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 D. 이 땅의 신부의 사역은 “달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사역이다. 성숙한 교회는 달과 같이 아름답다. 달은 하나님이 세우신 피조물로 밤에 빛을 제공한다(창 1:14-19).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 빛을 반사한다. 성숙한 교회는 어둡고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반영한다.

¹⁶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해)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달)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창 1:16)

E. 이 땅의 교회는 어둔 곳을 비취는 달과 같이, ‘전도와 문화의 변혁’을 위해 일해야 한다 (마 5:16; 빌 2:15). 이 시대는 어두움에 휩싸여 있지만, 다가올 천년왕국에는 전세계가 늘 낮과 같이 밝게 될 것이다.

F. 다가오는 시대에 신부의 사역은 “해같이 맑고 환하게 빛나는”사역이다. 신부의 온전한 영광은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반영한다. 교회는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영원한 성에서 “해”로서 빛을 제공하실 것이다 (계 21:23).

²³그 성(새 예루살렘)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계 21:23)

G. 영원한 성의 ‘공동 상속자’로, 교회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빛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¹¹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그 성의 빛(교회)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계 21:11)

³⁶네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 (눅 11:36)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 (단 12:3)

H. 교회는 이 땅에서, 또, 영원토록 예수님과 더불어 통치하며, 하나님의 빛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계 21:23-24, 11; 계1:16; 사 60:1-3, 19-20; 24:23; 59:19; 62:1; 겔 43:2; 시 50:2; 말 4:2; 고후 4:6; 요 8:12; 요일 1:5; 마 5:14-16; 빌 2:15; 단 12:3; 고전 15:41-42; 아 6:10).

I. 신부의 정부는 “기치를 벌인 강력한 군대 같이 위엄있는” 정부다. 기치를 벌인 군대 같이 엄위한(광대한, NIV역) 여자 (아 6:10)

J. 신부는 예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정부적 운영’을 이끌어 가는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다(단 7:27).

²⁷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단 7:27)

²¹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 3:21)

K. 아 6:4 에서, 예수님은 이 땅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신부를 강조하셨다. 성령님은 여기서 모든 권세를 물리친 ‘승리의 신부’를 강조하신다.

- L. 요약: 신부의 4 가지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점진적 단계 3 가지로 나타난다. 먼저, 신부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사회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떠오르는 빛을 반영한다(마 5:13-16). 두번째, 신부는 이 시대에 영적 전투와 전도를 통해 아름다운 달과 같이 빛나게 된다. 세번째, 신부는 다가오는 시대에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 이 모든 단계에서, 신부는 하나님의 ‘무기’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정부를 영원히 다스리게 된다.
- M.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 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²...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요일 3:2)
- N. 성령안에 사는 승리의 신부에 대한 7 가지 비유
1. 신부는 불신자들에게 비추는 아름다움을 말하는 ‘디르사’에 비유된다.
 2. 신부는 믿는자들에게 비추는 아름다움을 말하는 ‘예루살렘’에 비유된다.
 3. 신부는 자신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땅의 군대’에 비유된다.
 4. 신부는 이 시대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지탱하는 ‘떠오르는 아침’에 비유된다.
 5. 신부는 전도와 영적 변혁의 성취를 말하는 ‘달’과 같다.
 6. 신부는 영원의 성의 공동 상속자로 누리는 승리의 영광을 말하는 ‘해’와 같다.
 7. 신부는 모든 것을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다.

21장

핍박받는 신부를 변호하다 (아 6:11-7:9) (Vindication of the Persecuted Bride)

I. 아가서 6:4-10 복습

- A. 아가서 6:4-10 에서 예수님은 아가서 5:6 에서 시작된 침묵을 마침내 깨뜨리신다. 주님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시고, 시험의 계절동안 신부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는지를 드러내신다. 주님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기 위해 세가지 비유를 사용하시면서(4절),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부의 강력한 영향력을 설명하신다(5절).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다르사 같고 너의 고운이 예루살렘 같고 엄위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네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 (아 6:4-5)

- B. 고대 군대들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행렬하면서 그들의 기를 높이 들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패배군은 기를 빼앗겼다. 신부는 가장 큰 적,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다. 신부가 ‘기치를 벌인 승리의 군대’처럼, 시험의 계절을 승리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신부가 죄와 불신에 승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부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헌신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기쁨과 사랑으로 넘치신다. 신부의 타협과 두려움의 그림자들은 이제 모두 사라졌다(아 2:17; 4:6). 신부는 ‘주님의 은혜’로 이것들을 정복한 것이다.

- C. 예수님은 신부의 성숙함(아 6:5-7)을 묘사하시고, 스랍, 그룹, 무수한 천사들을 포함한 천상의 무리들이 모여있는 하늘의 궁정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신부를 묘사하신다(아 6:8-9).

⁸ 왕후가 육십이요 비빈이 팔십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 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총애를 받는) 여기는 자로구나 (아 6:8-9)

- D. 성령님은 ‘영원의 성’에 계신 예수님의 공동 상속자인 신부가 갖게 되는 4가지 영광을 묘사하신다 (아 6:10).

¹⁰ 아침빛 같이 뚜렷하고 달 같이 아름답고 해 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 같이 엄위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 6:10)

- E. 첫번째, 사회적으로 신부의 사역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빛나는” 사역이다. 두번째, 이 시대의 신부의 사역은 어둔 곳을 아름답게 비추는 달과 같이, 전도와 문화의 변혁을 위해 일하는 사역이다(마 5:16; 빌 2:15). 세번째, 다가오는 시대에 신부의 사역은 “해같이 맑고 환하게 빛나는” 사역이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반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계 21:11). 네번째, 주님과 함께 다스릴 신부의 정부는 기치를 벌인 강력한 군대와 같이 ‘장엄한 정부’이다.

II. 아가서 6:11-7:9 개관

- A. 신부는 아 6:4-10의 계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교회 전체를 향한 사랑에 사로잡히게 된다. 신부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연약하고 미숙한 자들을 섬기는데 헌신하게 된다(아 6:11-12). 아가서의 가장 큰 주제중의 하나는, 신부가 주님과 성숙한 동역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신부를 양육시킨다는 것이다.
- B. ‘섬김의 계절’이 지난 후, 신부는 꺾박받게 된다. 이 때 교회안에는 두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먼저, 일부의 사람들은 신부를 지지한다(아 6:13). 두번째, 다른 일부는 신부에게 야유를 보낸다(아 6:13). 신부의 삶의 10가지 영역을 보며, 신부를 존경하게 된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부를 변호해 주게 된다(아 7:1-5). 예수님도 신부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사 ‘동역자’로 인정하시면서, 신부를 직접 변호해 주신다(아 7:6-9).

III. 교회 전체를 섬기고자 헌신하는 신부 (아 6:11)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낫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아 6:11)

- A. 아가서에 ‘하나님의 동산’은 총 9번 등장한다. 처음에 등장하는 세개의 동산은 신부의 동산을 가리키며(아 4:12, 15, 16), 나머지 여섯개의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을 말한다(아 4:16; 5:1; 6:2, 11; 7:12; 8:13).
- B. 신부는 하나님의 동산에 내려가, 이제 막 순이 나고 피어나는 식물들을 돕게 된다. 신부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의 동산에서 그의 백성들을 먹이신다는 것을 가르쳐 준 바 있다(아 6:2-3). 그래서, 신부는 주님의 동산에 내려가 주님과 함께 동역하게 된다. 신부는 ‘주님이 계신 곳’에 있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 C. 그 동산에는 영적 진리의 그림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호도나무도 있다. 호도 나무는 두터운 그늘을 가지고 있어 한 여름의 열기를 막아주고, 열매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높여준다. 호도에서 생산되는 기름은 비누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이것은 ‘정화’를 뜻한다. 호도 나뭇잎은 몸을 치료하는 약으로도 사용되었다.
- D. 호도 씨의 생명은 안에 있다. 그러나, 그 씨앗은 반드시 죽고 깨져야만 다른 이들에게 열매와 기름, 치유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자아의 죽음’을 거쳐야만 우리는 타인들에게 열매와, (영적) 정화(비누), 그리고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내면의 삶’은 숨겨져 있기에 겉으로 쉽게 관찰되지 않는다.

- E. 신부는 하나님의 동산에 내려가 싱그러움, 또는 활력적인 푸르름을 보았다. 어떤 사전은, ‘싱그러움’을 한창 무성한 식물에 나타나는 신선하고 활력적인 푸르름으로 정의한다.
- F. 신부는 자신의 친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 “뛰어드는” 모험을 감행한다. 신부는 골짜기와 같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번창하는 하나님의 동산을 본다. 신부는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지,’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지를 보기위해 하나님의 동산에 내려간다.
- G. 성경에서, 포도 나무와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역사를 말한다(사 5장; 요 15장). 순이 피어나는 포도원은 아직 열매가 나지 않은 포도 나무를 말한다. 다시 말해, ‘미성숙한 교회’를 말한다. 신부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아직 열매가 없는 것을 보지만, 주님은 이미 ‘순’과 피어나는 ‘꽃’을 보신다. 아 2:11-13 에서, 순이 난 포도원은 하나님의 ‘방문’이 곧 임하게 된다는 예언적 표징이었다.
- H. 개화하는 ‘석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한다. 신부는 사랑의 인내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아직 성숙하지 않은 포도나무의 순을 섬기게 된다.
-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아 6:11)**
- I. 주님이 ‘씨앗’과 같았던 신부의 미덕(성품)들을 보셨던 것 처럼(아 4:1-5), 신부는 다른 이들 안에 ‘피어나는 미덕들’을 보게 된다. 이들을 향한 신부의 열의는, 자신이 미숙한 자였을 때, 자신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주님의 열의에서 나온 것이다.
- J. 신부는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에 순종하며 대답 한다. 가깝게는 우리가 이웃에 “찾아가” 미숙한 자들을 도울 수도 있다. 하나님의 동산을 섬기기 위해 멀리 비행기 타고 갈 필요는 없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나의 ‘안락의 지대’를 벗어나, 타인들을 돌보고 돕는 ‘도전’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신부의 마음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 (아 6:12)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아 6:12)

- A. 신부가 골짜기에서 막 순이 나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동안, 순간적으로 신부의 심령이 ‘귀한 백성의 수레’같이 되는데, 이것은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신부의 ‘열심’을 뜻한다. 신부의 심령이 수레처럼 요동한 것이다. 고대에 수레 (2륜 마차)는, 장거리를 짐을 싣고 가장 신속하고 수월하게 이동하는 교통수단이었다. 최고의 마차들은 귀족이나 왕족이 소유했다. (KJV 역은 “귀한 백성”을 왕자의 이름인 “아미나답”이라 번역했다).
- B. **내 마음이 나로... 하였구나** (내 소원이 나를 ...에 넣었구, NIV 역). 신부의 심령은 신속하게 움직이는 ‘왕의 병거’ 같이 되었다. 다시말해, 순식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자 하는 ‘강력한 소원’이 생긴 것이다.

- C. 신부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지켜보러 내려갔다가, 순간적으로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신부가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사랑’이 신부를 강권한 것이다(고후 5:11, 14). 이제 “순이 나는 포도나무들”의 미숙함과, 교만, 말쑥의 오류 적용, 부족한 분별력에 불쾌해 하기 보다는, 신부는 오히려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향해 느끼는 은유하고 긍휼한 마음에 자신도 놀라게 된다.
- D. 신부의 마음은 신속하게 이동하는 수레 마차처럼, ‘거룩한 부담’을 마차에 싣고 아무런 저항도 없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마음의 동요에 신부 자신도 놀라게 된다. 자신이 깨닫기도 전에, 신부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는 열망과 거룩한 부담을 새롭게 갖게 된 것이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다.
- E. 하나님은 우리가 소속된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 전체를 다 사랑하신다. 주님은 소속된 교회나 지체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 전체에 대해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신다. ‘모든 교회를 향한 열심’은 마지막 때 교회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다(요 17:21).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가 소속된 기관만을 지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 F. 주님은 현재, 더 큰 주님의 목적과 비전들에 관심을 두는 목자들, 그리고 모든 교회를 사랑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목자들을 세우고 계신다. 요셉이 형들에게 쓴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신부는 과거에 학대받은 것에 대한 쓴뿌리, 쓴마음을 지니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리스도 지체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차게 된다(창 50:15-21).
- G. 신부는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계속 신실하게 살아간다.
- ¹²우리가 일찌기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피졌는지, 석류 꽃이 피었는지 보자 ... (아 7:12)

V. 신부에 대한 교회의 반응 2 가지 (아 6:13)

¹³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아 6:13)

- A. 첫번째 반응은 존경과 칭찬이다. 예루살렘 여자들은 아 6:1 에서 신부와 함께 주님을 찾고자 했다. 여기서, 그들은 신부에게 배우려는 절박한 소원을 표현하기 위해 “돌아오라”라는 외침을 네번이나 반복한다. 그들은 아 6:11-12 에 나오는 것처럼, 골짜기의 동산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신부가 자신들에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 B. 에베소 장로들은 다른 ‘포도원’으로 떠나는 바울을 보내며 함께 울었다.
- ³⁷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 (행 20:37-38)

- C. 신부는 ‘솔람미’ 여인으로 불린다. 그것은 그녀가 이스라엘 수넬 지방이란 곳에서 자라났기 때문이다. 신부가 솔람미 여인으로 불리는 구절은 아가서에서 이곳에 딱 한 번 나온다. 솔로몬과 수넬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둘다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과 신부는 같은 이름을 소유한 것이다.
- D. 두 번째 반응은, 아 5:7 에서 신부를 치고 상처 주며, 질투하고 시기하는 ‘행순자’들로 부터 오는 야유다. 여기서 그들은 신부를 존경하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비꼬는 투로 도전의 말을 던진다, “솔람미 여인에게 뭐 특별한 게 있어?” “왜 기다리는데?” 이들은 신부에게 ‘영적 조언’을 받고자 하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갈망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 E. ‘마하나임의(양쪽 진영의) 춤추는 것’은, 신부에 대한 예루살렘 여자들과 행순하는 자들 사이의 대립을 뜻한다. KJV역은 이것을 “두 군대의 춤”으로 번역했으며, NAS 역은 두 진영의 춤”으로, NIV역은 “마하나임의 진영”으로 번역했다. 히브리어로 마하나임은 “두 진영, 두 군대,” 또는, 도시 이름으로도 번역이 가능하다. 마하나임은 야곱과 에서의 쟁쟁한 대립이 벌어졌던 도시로 유명하기 때문에, 어떤 번역을 사용하든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 ¹³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의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솔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 6:14)
- F. 마하나임은 야곱과 에서의 대립이 있던 도시로 유명하다. 창 32 장에서, 에서는 장자권을 도둑질한 야곱을 죽이기 위해 그를 쫓아간다. 마하나임에서, 야곱은 그의 백성들을 두 진영으로 나뉘, 만약 에서가 한 쪽 진영을 발견하면 그 진영만 충돌을 감당할 있게 만들었다. 이 엄청난 대립가운데, 야곱은 마하나임에서 ‘도움’의 천사를 만나게 된다.
- ¹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천사)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창 32:1-2)
- G. 여기서 ‘춤추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지체) 안에 있는 ‘두 진영(사람들)’ 사이의 대립을 뜻한다. 또한, 이것은 ‘영적 전투의 춤’으로 두 영계(거룩한 것과 악한 것) 사이의 전투를 의미 하기도 한다.
- H. 그리스도의 몸안에는 언제나 양극단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좇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그래서, ‘전심(마음을 다하는 것)’이 대부분 분열을 일으키는 핵심 이슈가 되곤한다.
- I. 예수님은 미숙한 자와 성숙한 자 사이에 분열을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진실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분열을 가져 오셨다(마 10:34-36). 주님은 ‘타협’하는 교회를 정화하시고 나서, 주님의 교회를 연합하실 것이다.

³⁴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마 10:34-35)

J. ‘두 진영’은 다윗을 공격하는 사울에게도 나타난다. 바울의 사역에서는, 그가 세상을 뒤집어 놓았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을 직면하면서 ‘분열’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행 17:6).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세상을 뒤집어 놓은)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행 17:6)

VI. **분별력 있는 신자들에게 변호받는 신부 (아 7:1-5)**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는 등글어서 공교한 장색의 만든 구슬 꿰미 같구나 배꼽은 쉬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결의 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 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였구나 (아 7:1-5)

- A. 이 본문은 “그 술람미 여인에게 뭐 특별한 게 있는가?”라고 비꼬았던 질문에 대한 답을 준다. 먼저, 진실한 신자들이 신부를 변호해 주게 된다(아 7:1-5).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직접 신부를 변호하시고, 신부에게 갑절의 성령의 기름부음을 부어주실 거라는 약속을 주신다(아 7:6-9). 성령님은, 항상 진실한 자들을 세우사, 주님을 헌신적으로 좇는 주의 신부들을 변호하게 하신다.
- B. 진실한 자들은, 예수님이 신부에게 주신 많은 확증들을 잘 분별하는 자들이다(아 4:1-5). 신부가 예수님의 10 가지 미덕(성품)을 찬양했던 것처럼(아 5:10-16), 이들은 신부 안에 있는 10 가지 미덕(성품)을 칭찬하게 된다.
- C. 아 7:1-5에서는 신부의 10 가지 미덕을 확증해 주는데, 이것을 아 4:1-5에 나오는 8 가지 신부의 미덕과 비교해도 좋다. 비교해 보면, 명확하게 차이나는 부분이 약 4 군데가 나온다. 아 4:1-5에서, 예수님은 신부의 머리부분(8 가지 중, 6 가지의 미덕이 머리를 포함한 얼굴부분임)에서 시작하여 몸을 묘사해 나가셨다. 그와는 반대로 이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신부의 발부터 시작, 머리부분(4 가지 미덕)으로 올라가며 설명한다. 여기에 나오는 미덕들은 ‘신부의 사역’에 관계된 미덕들로, ‘신부의 성품’에 초점을 맞춘 아 4 장의 미덕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 D. 열 가지 성품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성숙케 하기 위해 어떤 것을 바라시는 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이 본문은 ‘거룩함과 열매를 위한 실제적 정의’들을 보여준다.

E. 아 7:1-5 은 예루살렘 여자들의 고백이며, 아 7:6 은 예수님의 고백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부를 “귀한 자(왕)의 딸”이라 부른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가서 전체에 걸쳐 신부를 “내 사랑,” “나의 신부”라 부르신다. 아 7:5 에서, 예수님은 (1인칭이 아닌 3인칭) “왕”으로 언급된다. 그러나, 아 7:8 에서 예수님은 1-5 절과는 다르게 주격의 변화를 주어 “내가”라는 1인칭을 사용하신다.

F.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부를 “아름답다”라고 선포하면서, 신부의 고귀한 품성, 또는 왕족에 걸맞는 성품을 지적하는 ‘귀한자의 딸’이라고 부르며 신부를 변호한다. 거듭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왕족의 혈통’을 갖게 된다.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 7:1)

G. 신발을 신은 신부의 다리는 ‘전도’를 말한다. 전도의 성공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표징중의 하나다. 우리의 발은 복음을 예비하는 신발을 신어야 한다(엡 6:15). ‘좋은 소식(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사 52:7). 우리의 발이 밟는 곳은 우리의 ‘기업’이 된다(여1:3). 신발은 ‘부와 명예’를 말한다(눅 15:22). 고대에 가난한 자들은 신발이 없었다. 맨발은 수치와 가난, 굴욕을 상징했다.

H. 신부의 ‘넙적다리,’ 또는, 다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신부의 삶을 받쳐주는 ‘힘’을 말한다. 예수님의 다리는 ‘화반석 기둥’같다고 했다(아 5:15). 넙적다리가 ‘둥글다’는 것은 신부에게 힘을 전달해 주는 ‘강인한 근육’을 말한다. 운동선수와 같은 강인한 근육은 수많은 단련을 통해 발달된다. 그렇기에, 신부의 강건한 신앙의 발걸음은, ‘공교한 장식(장인)이 만든 구슬페미(보석들)’처럼 귀한 것으로 존경받는다.

네 넙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식의 만든 구슬 페미 같구나 (아 7:1)

I. ‘배꼽’은 태아가 엄마의 자궁에서 자양분을 공급받는 생명줄이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내면의 삶’이 자라나는 시간, 즉, 주님 안에 우리의 모습을 형성해 나가는 세월을 가리킨다. ‘둥근 잔같은 배꼽’은 건강한 배꼽으로, ‘영양실조’와는 반대되는 의미를 지닌다.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은 풍족한 영양상태를 말한다. 신부는 균형잡힌 ‘영적’ 식단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위한 영양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좋은 영적 기반’을 말한다.

²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아 7:2)

J.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부를 ‘다가오는 추수에 예비된 자’로 본다. ‘밀단’은 추수시기에만 생기는 ‘풍성한 밀’이다. 신부는 ‘풍성한 수확’을 ‘임신한(커다란 허리)’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 신부는 백합화로 두른 추수의 밀단을 ‘임신’했다. 신부에게 나올 추수(아기)는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²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아 7:2)

K. 유방은 ‘다른 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유아는 엄마의 젖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신부는 자신이 낳은 ‘추수’를 양육할 준비가 되어있다. 늙어서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젖과는 대조되는, 신부의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한 살도 안된 어린 사슴) 같다고 묘사되었다. 사슴이 ‘쌍태’라는 것은, 신부에게 타인들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갑절’이나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다른 이들을 양육할 능력이 아직 없는 ‘어린 누이(미숙한 자)’(아 8:8)와도 대조된다.

³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아 7:3)

L. 목은 성경적으로 승복하거나, 또는 반대로, 버티려는 ‘의지’를 말한다. 버티며 저항(대적)하는 목은 ‘교만’을 의미한다(사 3:16). 신부는 ‘귀하고 비싼 상아 망대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신부의 결단은 상아 망대와 같이 귀하며, 자신을 영적으로 보호하는 결단이다.

⁴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아 7:4)

M. 눈은 ‘주님의 계시를 받는 능력’을 말한다(엡 1:18). 신부는 날카로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아 1:15; 4:2, 9; 6:5). 아 4:1 에서, 예수님은 신부의 눈을 ‘비둘기의 눈’으로 비유하시면서 신부의 ‘순결함과 충성심’을 말하셨다. 여기서, 신부의 눈은 ‘헤스본의 연못’과 같다. 이 연못은 진흙탕이 아닌, 맑고 투명한 연못이었다. 주님의 계시를 뚜렷하게 보고 깨닫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영적 성장의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빌 3:8-10). 대상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우리는 다른 해석과 감정을 가지게 된다. 한 때 귀족의 성이었던 헤스본에서, 바드랍빔 문은 맑은 물을 가진 휴양지였다(민 21:25-26).

⁴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결의 못 같고 (아 7:4)

N. 코는 ‘분별력’을 말한다. 망대는 방위를 제공한다. 신부의 코는 시리아(이스라엘의 최대 강적)의 수도인 다메섹을 향한 방위용 망대와 같다. 레바논은 유다왕국 북쪽에 위치해 시리아를 접하고 있었다. 신부는 자신의 최대의 적이 누구인지를 잘 분별한다.

⁴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아 7:4)

O. 신부의 머리는 ‘생각의 삶’으로, 아름다운 갈멜산과 같이 강력하다. 신부의 머리는 ‘고귀한 생각’으로 가득차 있다. 그래서, 갈멜산과 같이 아름답다(사 35:2). 우리의 생각은 영적 전투와,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⁵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 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였구나 (아 7:5)

P. 머리털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말한다. 나실인들의 머리털은 그들의 헌신을 보여주는 외적 표징이었다(민 6 장). 그래서, 나실인들은 머리털을 자르지 않았다. 자주 빛같은 신부의 머리털은 ‘왕족(귀한 자)’을 말한다. 신부의 헌신은 ‘왕의 결단’과 같다(NAS 역은 “그 왕(되신 예수님)”라고 번역함).

- Q. 신부의 헌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주님의 사랑은 너무도 강력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연약한 백성들에게 자신을 매이게 만든다. 그러나, 백성들을 향한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주님께는 (연약함이 아니라) 영광이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은, 주님보다 훨씬 미천한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매어”있다. 모든 권세를 다 소유한 분이시지만, 그분의 신부에게는 아낌없이 자신의 마음을 다 내어 주시는 분이다.
- R.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매이게 만든다. 예를 들면,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대표적인 증보기도자 다섯 명을 보라: 다니엘, 노아, 욥, 모세, 그리고 사무엘 (겔 14:14; 렘 15:1; 출 32:7-14).

VII. 신부를 변호하시는 예수님 (아 7:6-9)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네 키는 종려 나무 같고 네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네 유방은 포도 송이 같고 네 콧길은 사과 냄새 같고 네 입은 좋은 포도 주 같을 것이니라 ... (아 7:6-9)

- A. 예수님이 신부를 직접 변호하신다 (주격이 아 7:6 에서 바뀌었다). ‘행순하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었다, “술람미 여인이 도대체 누구길래 모두다 그 여인한테만 관심을 쏟는가?”
- B. 예수님의 마음은 신부에게 빼앗겨 있으시다(아 7:5).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면 잘 알 수 있다(6절).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아름답고 기쁨을 주는 존재’로 바라보신다. 주님의 열매는 신부에게 달고도 즐겁다(아 1:16; 2:3). 그와 같이, 신부의 열매도 주님께 즐겁다(아 4:16-5:1).
- C. "사랑아"는 신부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표현한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요 15:9; 17:23).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만큼의 사랑이다(엡 3:18).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은 주님께 ‘포도주’보다 더 위대하다(아 4:10). 다시말해, 주님을 향한 백성들의 사랑, 이보다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다. 심지어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죄와 씨름 할 때에도, 우리의 음성은 주님께 달콤하며, 우리의 얼굴은 주님께 사랑스럽다(아 2:14).
- D. 아 7:1-5 에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선포한 것 처럼, 예수님도 여기서 신부의 영적 성숙을 확증해 주신다. ‘종려나무’는 ‘승리와 정복’의 표징이요(계 7:4), ‘성숙함’을 보여주는 그림이다(렘 10:5). 종려나무는 가뭄속에서도 번창하는 데, 그 이유는 뿌리가 수분을 찾기 위해 지면아래 매우 깊숙한 곳까지 뚫고 내려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예외적으로 곧고 높이 자란다. 매우 강력한 강풍이 불어도 종려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 신부의 유방, 즉, 양육하는 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양분을 공급하는 ‘종려나무 열매 송이’ 같다.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네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아 7:7)

- E.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사로 잡으리라,” 즉, 백성들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크게 나타내시리라 약속하신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풀어내는’ ‘가지’라고 말씀하셨다(요 14:12). 예수님은, 주의 종들을 사로잡기 위해 종려나무 위로 “올라 간”다고 약속하신다.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아 7:8)

⁵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요 15:5)

- G. 주님은 백성들을 “사로 잡으실” 때, 신부에게 세가지 중요한 위임을 부여하신다.

⁸ 네 유방은 포도 송이 같고 네 콧김(호흡)은 사과 냄새 같고 네 입은 좋은 (최고의)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아 7:8-9)

- F. 첫번째 위임: ‘성령님의 권능’으로 다른 이들을 양육하라. 신부(유방)는, 더 충만하게, 더 깊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양육해야 한다.

- G. 두번째 위임: 신부의 향기로운 콧김(호흡)은, ‘사과’같이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한다. 신부의 호흡은 ‘내면의 삶’을 말한다. 사과는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새롭게 해주는) 것을 뜻한다(아 2:3). 이것은, 성령으로 다른 이들을 ‘새롭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²²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 20:22)

- H. 세번째 위임: 신부의 입, 즉,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하나님께 ‘최고의 포도주’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가서에 걸쳐서 입은 ‘입맞춤’을 말한다(아 1:2, 4:3, 5:16). 예수님과의 친밀감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최고의 역사’다.

- I. 주님과 관계에서, 우리는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어떤 이유로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 깊은 교제를 게을리 해서 안된다.

- J. 예수님은 신부의 입(천장)이 성령님의 ‘최고의 포도주’라고 말씀하셨다. 입천장은 입 구개, 또는, 입맛을 가리킨다. 히브리어로 천장, 또는 구개를 뜻한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신부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뜻한다. 이것은 최고의 포도주, 즉, 예수님께 최고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다(아 4:10).

¹⁰ ...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지나고 (아 4:10)

- K. 포도주는 성령님의 ‘영향력’을 말한다(엡 5:18). 하나님께, 최고의 포도주는 우리와의 ‘친밀감’의 포도주다. 삼위일체의 교제 다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L. 하나님 나라의 모든 역사가운데, 최고의 포도주, 즉, 성령의 최대 역사, 또는 예수님이 가장 즐기시는 포도주는 ‘성숙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다(요 17:26).

이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 (요 17:26)

³⁷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마 22:37)

22장

예수님과 성숙한 동역을 이루는 신부 (아 7:9-8:4) (*The Bride's Mature Partnership With Jesus*)

I. 아 6:11-7:9 복습

- A. 아 6:11-12 에서, 신부는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을 섬기기로 헌신한다. ‘주님과 동역하며 살아갈 신부를 양육하시는 예수님’은 아가서의 핵심 주제중의 하나다.
- B. 아 7:8-9 에서, 예수님은 신부의 사역을 세가지로 위임하셨다: 다른 이들을 양육함, 성령의 임재를 풀어놓음,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함.

II. 아 7:9-8:4 개관

- A. 아 7:9-8:4 에서, 신부는 아 7:8-9 에서 위임받은 3 가지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 여기서 사역에 대한 신부의 열성을 엿볼 수 있는데, 신부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 내려서”.
- B. 아 7:9-8:4 에서, 신부는 예수님과의 동역을 이루어가는 측면을 4가지로 설명한다. 신부는 즉각적인 순종으로(아 7:9-10), 더 큰 권능을 위해 중보하며(아 7:11-13), 회중사역에 담대함과 겸손함으로(아 8:1-2), 깨지지않은 주님과 연합(아 8:3-4)을 유지하며 동역을 이루게 된다.

III.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타나는 신부의 동역 (아 7:9-10)

⁹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 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7:9-10)

- A. 아 7:9 중간에서 신부의 생각의 흐름이 크게 바뀌게 된다. 아 7:6-9 에서 예수님이 주신 확증에 보답하기 위해, 신부는 아 7:8-9 에서 예수님이 위임하신 세가지에 대한 동의를 열렬하게 선포한다.
- B. 시적인 사랑의 언어로 표현된 “포도주가 미끄럽게 흘러 내려”는, 성령님의 리더십에 ‘즉각 순종’하며 사는 신부의 모습을 말한다. 성령의 포도주는 미끄럽게 흘러 내려가게 되는데, 이것은 신부가 거부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성령의 포도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계속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계속해서 성령님의 ‘리더십’ 아래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엡 5:18).
- C. 신부는 성령님의 리더십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이 담긴 잔’을 주저하지 않고 받아 마신다.

나의 하나님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 40:8)

²²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마 20:22)

D. 신부는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언급하는 데,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신부의 모습을 나타낸다. 성령님께 더욱 순종하며 살 때, 주님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더 부어주신다(롬 5:5; 요 16:14). 순종이 쉽지 않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해야 한다, “포도주가 미끄럽게 흘러내려갑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E. 성령님은 영적으로 자고 있는 육적인 신자들을 깨우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¹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취시리라 하셨느니라 (엡 5:14)

F. 우리가 삶에서 성령님께 순종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 그들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⁹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 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아 7:9)

1. 성령님이 자는 자들을 깨우셨다는 증거는, 주님의 리더십 아래 사는 그들에게 흘러나오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2. 성령은 미묘한 감동으로 주님께 대한 계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잔잔히 구애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자원적 사랑으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으시면서 잔잔히 우리를 감동시키신다.

G. 구약 선지자들은 성령님의 축복과 임재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언급했다(엘 3:18; 암 9:13; 호 2:22; 습 9:17; 행 2:15-16).

¹⁵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행 2:15-16)

H. 아 7:9 이 두 구절로 나뉘져 있었으면, 이해하기가 더 쉬웠을 수도 있다. 주님께서 9 절 첫부분을 말씀하시고, 신부가 나머지 부분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가서 전체에 걸쳐, 신부는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며, 예수님은 신부를 “내 사랑,” 또는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부르신다.

IV. 하나님의 사랑안에 갖는 신부의 영적 정체성 2 가지 (아 7:10)

¹⁰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7:10)

A. 아 7:9 에 나타나는 신부의 순종은 두가지의 영적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신부의 영적 정체성 #1: “예수님은 나를 사모하신다.” 신부의 영적 정체성 #2: “나는 사랑하는 자인 예수님께 완전히 속했다”. 신부가 예수님께 속한 것은, 주님이 신부를 ‘사모’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주목하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모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일 4:19)

B. 영적 정체성 #1: “예수님은 나를 사모하신다”. 아가서의 가장 큰 주제중의 하나는, ‘우리를 사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다. 신부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애정과 기쁨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이 계시는 우리를 강력하게 변화시키며, 우리의 순종과 신실함의 주 동기가 된다(아 4:9; 6:4-5; 7:6-10).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될 때, 사람들의 의견이나 눈치를 보지 않는 힘을 얻게 되며, 결국 정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원수를 주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한다. “말씀에 썩여진 바: 사람들이 나를 거절한다 할 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모하신다”.

C. 영적 정체성 #2: ‘신부는 하나님의 연인’으로 자신을 바라본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의 것입니다,” 즉, “나는 예수님께 속했고, 주님의 리더십 아래 있으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원이 나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라고 고백한다. 신부는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있다(고전 6:20). 곱이 일일이 생각하지 않아도, 신부는 자신이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계 14:4). 자신에게 일어나게 될 일들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제 신부의 초점은 자신의 관심사와는 전혀 거리가 멀며, 온전히 주님께 맞춰지게 된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 이것이 신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요 주제이며, 가장 귀한 것이요 최우선 순위이다.

D. ‘하나님은 우리를 사모하시며, 우리는 주님을 사모(사랑)한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가장 위대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연인입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E. 우리가 희생적 순종의 삶을 사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우리를 사모하시기 때문이다. ‘포도주가 미끄럽게 흘러 내려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신부를 사모하시고, 신부가 주님께 속했기 때문이다(아 7:9-10).

V. 주의 백성들을 깊이 사모하시는 예수님 (아 7:10)

A.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한결같은 사랑에 주님은 깊이 감동받으신다.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작은 ‘동요’들은 그분의 책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 56:8)

- B. 주님을 어떻게 감동시키는 지 알고 싶은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연약한’ 백성들에게 주님은 정복당하신다. 받은 사랑에 보답하여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께 더 크고 소중한 의미를 지닌다. 신부는 자신의 사랑이 예수님께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치는 지 잘 알지 못했었다. 왜냐하면, 신부가 ‘시험의 계절’을 지나는 동안 주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험의 계절’을 지날 때, 그분을 향해 일관된 사랑을 보인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감동시켰는지를 주님은 나중에 드러내신다.

⁵ 네 눈이 나를 놀래니(정복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아 6:5)

- C.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도 강력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연약한 백성들에게 자신이 매이게 되신다. 주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에 사로 잡히는 것은 (주님의 연약함이 아니요), 주님이 누리시는 영광이기 때문이다. 주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자, 미천한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은 매우 특별한 것이다. 예수님은 신부를 향한 사랑에 깊이 빠지셨다(아 7:5).
- D.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요 15:9; 17:23). 이 진리를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엡 3:18). 주님을 향한 백성들의 사랑보다 예수님을 더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일은 없다. 연약함과 죄와 씨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목소리는 주님께 달콤하며, 우리의 얼굴은 주님께 사랑스럽다(아 2:14)는 것을 기억하라.
- E. 우리는 정기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한다, “주님, 제게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계시를 더 깊이 풀어 주시고, 주의 사랑을 제 심령에 더 깊이 부어 주세요.”

⁵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 (살후 3:5)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롬 5:5)

VI. 권능을 위한 중보기도를 통한 동역 (아 7:11-12)

¹¹ (오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우리가)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찌기 일어나서 (우리가)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돌았는지, 꽃술이 피었는지, 석류 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아 7:11-12).

- A. 예수님과의 동역은 주님의 권능이 더욱 풀어지기를 기도하는 중보기도를 통해서도 표현된다. 아 7:8 에서, 예수님은 신부의 삶에 성령을 풀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신부는 이 약속을 붙잡고 중보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사역에 매진하고자 하는(아 6:11) 신부의 헌신을 엿볼 수 있다.

B. 앞서서, 신부는 ‘동산’에 내려가 예수님과 동역하며 미숙한 자들을 주님의 축복과 리더십 아래로 데리고 왔다. 이제, 신부는 자신의 수고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풀어달라는 의미에서 ‘오시옵소서’라고 중보하게 된다. 신부는 아 6:11의 “내가 내려가” 에서 말을 바꾸어, 이제는 “우리가 가자”라고 말하게 된다. 신부는 주님과 동역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라는 단어를 4 번 이나 사용하게 된다(아 7:11-12).

포도나무가 순이 낫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아 6:11)

²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막16:20)

C. 아 7:11 에서, 신부는 ‘마을’과 ‘추수의 밭’에 가기로 헌신한다(요 4:35).

¹¹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아 7:11).

⁹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 (고전 3:9)

³⁵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 4:35)

D. ‘섬김의 밭’은 우리 가정, 직장, 교회, 그리고 이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으로, 사람들이 있는 모든 장소를 포함한다. 꼭 비행기를 타고 멀리 선교지로 떠나야만 섬길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E. ‘마을(동네)’은 예수님의 ‘기업’이 있는 곳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지역들의 ‘작은 단위’를 말한다. 신부는, 큰 도시뿐만 아니라, 작은 시골 마을의 무명의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신부는 ‘한 계절’동안은 기꺼이 외딴 마을에도 머물며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아 7:11).

F. ‘일찌기 일어난다’는 것은 신부의 ‘신실함’과, 맡은 사명에 대한 ‘긴박한 마음’을 말한다.

G. 아직 열매를 맺지는 못했지만, 움이 돋아나 있는 ‘포도나무’를 섬기기 위해 신부는 내려간다. 신부는 순이 피어나는 포도나무를 “보기”위해 내려가는 데, 이것은 신부가 그들을 ‘예수님의 기업,’ ‘주님의 동산’으로 보기 때문이며, 그렇기에, 신부는 그들을 귀히 여기고, 인내로 대하게 된다. 움이 돋아나는 포도나무, 피어나는 꽃술, 그리고 피어나는 석류꽃은 ‘성숙’이 필요한 사람들과 사역들을 말한다(아 4:12, 13; 6:11).

H. 모래비안 선교사들은 희생의 삶을 살면서, “고난받은 어린 양께서 그 상급을 받으시기를” 바랐다. 이 본문에서 신부는 성령의 영향력아래 주님과 함께 달린다.

VII.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아 7:12)

¹¹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찌기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아 7:11-12).

A. 바쁜 사역가운데서도, 신부는 잊지않고 예수님과 친밀감을 누리게 된다. ‘거기서’는 자기를 돌보지 않는 희생과, 믿음의 위기, 실망과 학대가 존재하는 장소다. 그러나, 신부는 주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리며, 주님과 동역에 달음질한다(아 1:4). 자신을 혹사해 가면서까지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주님과 친밀감을 잃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신부는 ‘들’과 ‘동네’에서도 예수님과 효과적으로 사역 하면서, 주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기업’을 누리시게 한다.

B. 나무 그늘 아래 주님의 잔치 상에 편하게 앉아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아 2:3-4). ‘미숙한 자’는 혼자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남을 섬기면서 그 사랑을 유지하지는 못한다.

C. 고난과 박해, 실망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신부는 빌 3:10의 고난을 지고 친밀감을 누리며 사역을 감당하는 삶, ‘사도적 기독교인의 삶’을 산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학대와 투옥, 그리고, 간수에게 사역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사역)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하나님과의 친밀함)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빌 3:10)

D. 주님을 섬기기 위해,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와 고난을 감당한 자다.

10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전 15:10)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늘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열려하는 것이라 (고후 11: 23-28)

VIII. 수고하여 거둔 열매를 예수님이 즐기시기를 바라는 신부 (아 7:12-13)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합환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아 7:12-13)

A. 주님과 신부가 함께 수고하며 추수를 거둘 때, ‘합환채’의 향기가 발하게 된다. 합환채 열매는 자주색 꽃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발한다. 합환채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상징한다. 고대에는 불임 여성들이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합환채 열매를 사용하였다. 불임으로 고민하던 라헬이 누이 레아의 말을 듣고 합환채를 사용하게 된 전례를 통해, 합환채는 사랑과 가임에 연관된 열매로 알려지게 되었다. 전해내려 오는 민담에 따르면, 합환채를 통해 라헬이 가임의 가능성을 높였을 거라는 말도 있다(창 30:1, 14-16). 아가서 외에 합환채를 언급한 곳은, 성경에서 딱 이 한 곳 밖에 없다. 오늘날 까지도, 유대인 전통에서는 합환채 열매가 ‘사랑의 열매’로 알려져 있다.

- B. 신부의 사역은 ‘즐거운’ 열매를 맺게 된다. 사역의 열매를 보고 예수님이 즐거워하실 거라는 사실(아 4:16)을 알게 될 때, 신부의 기쁨은 배가 된다. ‘내 문앞에 실과가 있다’는 것은, ‘(사역의) 열매’가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한다.
- C.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름부으사 각종 즐거운 열매, 옛 것과 새 것을 다 거두게 하신다. 예수님은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끌어 내는 것을 말씀하신 바 있는 데, 이것은 신부가 예전에, 그리고 이제 새롭게 거둔 승리의 경험들로, 신부의 과거에서 검증된 진리들도 포함한다.

⁵²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 (마 13:52)

- D. 그동안 ‘하늘의 보고’에 쌓여진 우리의 사랑의 순종과 믿음의 삶, 이 보고에서 나오는 보물들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나눠 주신다.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 목적은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다. 신부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즐거운 열매를 쌓는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 (마 6:20)

- E.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주님 발 앞에 우리가 거둔 ‘보화’를 던지게 될 것이다(계 4:10). 이 보물은 그 날에 우리의 면류관이 된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 그 날에 예수님 발 앞에 다 내어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의 수고와 희생을 가능케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며,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강권하여 ‘섬김의 발’으로 가게 만든다.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계 4:10)

IX. 겸손한 마음으로 동역하는 신부 (아 8:1-2)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었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웠겠고 (아 8:1-2)

- A. 아가서에 걸쳐 나오는 ‘어미’는, 역사적으로 교회를 상징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교회는 주로 우리의 어미로 언급된다. 역사에 걸쳐 구속받은 자들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 후에 나온 믿는 자들은 낳은 ‘어미’로 대표된다 (계 12:5, 17).
- B. 대중 앞에서 신부는 예수님께 충성과 사랑을 담대히 보여주고 싶어한다. 그래서, 신부는 이렇게 기도한다, “내가 오라비 같았더라면.” 당시, 가족이 아닌 다른 이성에게 공개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공중예절이 아니었다. 신부는 단지 ‘오라비와 같이’ 편하게 공개적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바랄 뿐이다. 그 당시의 문화를 고려해 볼 때, 여성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약혼자보다는 오라비와 더 “친하게” 보일 수도 있었다.

- C. 사도들의 기도에서 나타나는 것 처럼(행 4:29; 엡 6:19), 신부는 삶에서 계속 담대함을 지니며 살고 싶어한다. 담대함은 사람의 성격을 넘어서는 ‘성령님의 역사’라 할 수 있다.
- D.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는 이복형제가 아닌 ‘친형제’를 말한다. 같은 엄마를 둔 형제들은, 엄마가 다른 형제들과 비교된다. 고대에 남자들은 여러 아내를 두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형제들은 엄마가 다른 이복 형제들이었으며, 그들은 압살롬과 암논의 경우 처럼(삼하 13장), 서로 라이벌인 경우가 많았다.
- E.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더라도 사람들에게 멀시받지 않고 주님께 ‘입맞출’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부는 기도한다. ‘조롱받지 않고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입맞춘다’는 것은, 오해와 멀시를 받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 자신의 온전한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을 말한다.
- F. 신부는 ‘예수님과 의 사생활’에 있어, 사람들 앞에서 절제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표현들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사용해야 할 표현들이 있다. 친밀감을 표현하는 기도와 찬양가운데에는 회중사역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들도 있기 때문이다.
-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고전14:12,19-20, 23)
- G. 사람들 앞에서 부적절한 담대함을 보인다면, 신부는 멀시를 당하거나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곧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모든 것들을 아무 모임에서나 다 표현할 필요는 없다.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자제와 절제를 하는 사랑을 보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롬 14:14 - 15:2; 고전 14:20, 23-33, 6-19).
- H. 신부의 동역은 ‘기름부음’의 사역으로 표현된다 (아 8:2).
-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너를) 들이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웠겠고 (아 8:2)
- I. 예수님은, ‘주를 높이는 장소에 주님을 모셔올 수 있는 특권’을 신부에게 주신다. 신부는 기름부음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시기를 기도한다. 신부는 자신의 이름이나 사역을 알리기를 원치 않으며, 오직 “주님을 그곳에 모셔오기”만을 열망한다.

- J. 신부는 기도한다, “제가 주님을 인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님 나라의 어떤 부분에 관한 결정권을 신부에게 맡기기도 하신다. 주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가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부분을 축복하신다. 이것은, 주님이 공동 상속자인 우리를 존중하신다 것을 말한다(롬 8:17). ‘성숙한 자’는 존귀한 길로만 예수님을 인도하게 되기를 사모한다.
- K. 신부는 ‘어미의 집’으로, 즉, 자신을 목양을 해 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셔오고 싶어한다. 이들은 장기간 신부와 친분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로, 처음으로 신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친숙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역하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다. 선지자는 보통 자신의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마 13:57). 사실,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차라리 더 편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는 믿음 생활의 시작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치며 섬기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 L. 신부는 ‘어미의 집,’ 즉,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받은 깊은 계시들을 간절히 소개하고 싶어한다.
- M. 하나님의 깊은 계시들을 소개해서 오랜 친구들의 심령을 흔들기를 원하는 이유는? 믿음의 초창기에 자신을 가르쳐 준 이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때문이다. 영적인 축복의 삶을 살면서도 신부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다. 초신자 때 자신을 양육해 준 이들을 존중하기에 그들을 섬기고 싶어한다.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의 축복에 보답하고 싶은 것이다.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유산을 우리는 존중해야 한다. 그 사람들에게 영적 성숙함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된다.
- N. 주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부는 이렇게 기도한다, “나는 향기로운 술(포도주)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웠겠고”(아 8:2). 당시,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사람들은 향(신)과 포도주를 섞어 대접했는데, 이것은 향이 더 풍부해져 포도주가 더 큰 즐거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 O. 물론, 이렇게 대접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었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데에 적합한 관습이었다. 신부는 대가에 상관없이 예수님께 최선을 것을 드리기를 열망한다. “나는 네게(주님께) 마시우겠고” 라고 말하면서, 신부는 귀한 손님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소원 하나 하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
- P. ‘나의 석류즙’은 신부의 내면의 삶에서 경험하는 달콤한 ‘은혜’들을 말한다. 신부의 사역 토대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삶’에 있다.
- X.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한 동역 (아 8:3-4)
- 너는 왼손으론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론 나를 안았었으리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찌니라 (아 8:3-4)

- A. 예수님은 가까이 임하길 기도하는 신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아 8:1), 신부의 마음을 사로잡으리라는 약속을 성취하신다(아 7:8).
- B. **하나님의 왼손**은 자연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활동을 말한다. 왼손은 신부 머리 밑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하신다. 축복과 공급, 보호를 위해 많은 것들을 풀기도, 또 묶기도 하신다. 우리가 사는 동안 전혀 알 수도 없는 문제들로 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
- C. **하나님의 오른손**은 눈에 보이거나 식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활동을 말한다. 이 장면은 솔로몬이 서서 신부를 안는 장면이다. 신부는 직접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다. 이것은 느낄 수도, 또, 분별할 수도 있는 “달콤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 때로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이 온유해 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 ‘안는다’는 것은, 직접 느낄 수 있어 쉽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활동을 말한다. 신부가 금방 찾을 수 있게 주님은 나타나셔서(아 8:1) 신부를 안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신부를 안아 주실 때, 신부의 마음은 온유해 지게 된다.
- D. 성령님은 전략적으로 ‘영적 계절들’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신다(아 8:4).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주님은 각 사람의 영적 삶에 ‘전략적 계절들’을 위임 하셨다. 주님의 마음에 대한 새롭고 깊은 계시를 우리 심령에 확립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이런 계절들을 허락하신다. 특별히, 이 본문에 나오는 계절에서 성령님의 계획은, 신부에게 담대함과 겸손을 나눠주시는 것이다(아 8:1-2).
- E. ‘예루살렘 여자들’은 성령님의 다양한 역사와 영적 계절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주님은 분별없는 자들에게 부탁하신다. 전략적으로 주어진 계절에 ‘신부의 마음’으로 헌신된 자들을 분별없이 자신들의 의견이나 판단으로 방해하지 말라고.
- F. “나의 사랑하는 자(it)가 원하기 전에는”라는 구에서 ‘it’ 은 히브리어로, 그것, 그, 그녀로 해석될 수 있다. NAS 역은 정확하게 “그녀(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다. 히브리어로 “그”가 되었다면, 예루살렘 여자들이 주님을 깨우는 것이 되는 데, 주님은 누가 깨울 필요가 없는 분이며, 쉽게 놀라는 노루와 같이 보호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다. 방해받지 말아야 하는 자는 신부이기 때문이다.
- G.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말라” 라는 구를 예수님은 아가서에 걸쳐 3 번 말씀하신다(아 2:7; 3:5; 8:4). 아 2:7에서, 주님은 “신부를 방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노루와 들사슴으로”라는 구를 첨가하셨다. 그 때는, 신부가 미숙했고, 불안정하여 쉽게 산만해지고 요동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엡 4:14).

23장

성숙한 사랑의 인치심을 받는 신부 (아 8:5-7) (The Bridal Seal Of Mature Love)

I. 소개

- A. 아 8:5-7의 주제: 우리의 마음을 불 같은 주의 사랑으로 인치시려는 하나님의 헌신.
너는 나(예수님)를 인 같이 마음에 품고... 사랑은... 불 같이 일어나니 (아 8:6)
- B. 이 구절은 아가서와 새 언약의 ‘절정’을 보여준다(히 10:16). 신부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입맞춤을 위한 절규’로 시작해서(아 1:2), 신부의 마음에 ‘불같은 인치심’을 통해 절정에 이른다.
² (예수님이) 내게 (말씀으로) 입맞추기를 원하니 ... (아 1:2)
- C. 1 장 복습: 아가서는 8 장으로 구성된 사랑의 노래다. 해석하는 방법은 두가지다.
1. **자연적 해석:** 솔로몬왕과 그의 신부, 술람미 여인의 러브 스토리다. 이것은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을 존중하는 성경 원칙을 강조한다.
 2. **영적 해석:** 솔로몬왕과 그의 신부의 러브스토리는, 왕이신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영적 진리로, 이 책이 씌여진 후부터 지난 3000년동안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해석방법이다.
- D.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자기에 관한 모든 성경(아가서 포함)을 다 인용하셨다.
²⁷ 이에 ...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눅 24:27)
- E. 모든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씌어졌다(딤후 3:16). 성령님은 성경 66권의 책 하나마다 예수님을 높이려는 헌신을 갖고 계신다.
¹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요 16:14)
- F. 결혼은 멈춰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의 심령을 울리며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 것이다.
³⁰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마 22:30)
- G. 하나님의 ‘불같은 인치심’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영원한 동반자, 즉, 자원적 사랑으로 주님과 동일한 멩에를 지는 신부를 아들에게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헌신’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 드리는 순종은 의무지만, 사랑은 자원적인 것이다(빌 2:9-11).

- H.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예수님을 그 만큼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은 기도하셨다.
²⁶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요 17:26)
- I.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 다시말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름부음’이야말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선물들 중 가장 큰 선물이다. ‘주님의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성령님은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이요, “살아 계신 사랑의 불꽃”이시다.
...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롬 5:5)
¹⁶ 그(예수님)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눅 3:16)
- J.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은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세례’의 증표를 받았다.
³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행 2:3)
- K. ‘하나님 사랑의 인’이란, 첫 계명,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진리를 말한다. 하나님이 마음과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주님은 도와주실 것이다.
³⁰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막 12:30)
- L.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듯,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되기를 기도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초자연적(영광)으로 주님의 마음과 같이 되는 영광을 말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것을 부분적으로 목도할 것이지만, 영원의 시대에는 이것이 우리안에 충만해 지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 (요 17:21-22)
- M. 가장 큰 두 계명,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 시대 교회에 주어진 기업이요,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 이 시대에 부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헌신을 보며, 우리는 속사람 안에 ‘사랑의 기름부음’이 채워지도록, ‘믿음’의 원칙들을 적용해야 한다.
²³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막 11:23)

- N. 우리는 “주님을 더욱 갈급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 우리의 갈급함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신다, “내가 너를 더 갈급한단다.” 갈급함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사랑의 침노’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침노하여 쟁취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 11:12)

II. 질투의 신랑의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예수님

너는 나(예수님)를 인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하나님의) 투기는 음부 같이 잔혹하며(고된 것) 불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와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많은 물(죄, 압력)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찌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 8:6-7)

- A. 1988년 7월, 주님은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다. 사무실에서 아 8:6 을 읽으며, “예수님, 사랑의 인으로 제 마음에 인쳐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은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에 아 8:6-7 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풀으시겠다고, 그렇기에 사역을 하는 동안 내가 이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아이합의 기도 운동을 위한 약속이기도 하다).
- B.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 사랑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광범위한 것이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은 죽음을 절대 피해갈 수 없다.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강력한 흑암의 영역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질투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다. 이 사랑은 “음부같이 잔혹하며,” 즉, 죽음이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 C. ‘질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원하신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빛에 따라 하나님을 따르며 산다. 우리가 그 빛에 순종하며 살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더 기쁨부어 주셔서 더 성숙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방법을 보여 주신다.
-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야 4:5)
- D. 우리는, 모든 것을 요구하는 ‘질투의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정직하게 간구해야 한다.
- ¹⁴여호와와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출 34:14)
- E. 예수님은 구원자(용서의 주), 치료자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실 때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좇으시는 ‘질투의 신랑’의 모습을 보여 주고 싶어 하신다.

III. 꺼지지 않는 거룩한 불꽃: 하나님의 인

너는 나(예수님)를 인 같이 마음에 품고 불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와 불과 같으니
라이 사랑은 많은 물(죄, 압력)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니 (아 8:6-7)

- A. 고대에는, 왕이 중요한 문서에 ‘밀랍을 이용한 인’을 찍었다. 문서 사이에 밀랍을 넣고 그 위에 왕의 반지 도장을 찍었다. 왕의 인을 통해 문서들은 보호받았고, 원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왕의 인은 왕의 소유권과 보호, 권위와 보증을 말했다. 왕국의 모든 힘이 그것을 뒷받침 해주었다.
- B.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불이 아니라면) 물은 항상 불을 끄게 마련이다. 원수는 이 불을 끄기 위해 유혹과 무관심, 실망과 고통 등을 우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심령안에 부여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계속 흘러나갈 때) 어둔 죄와 유혹의 홍수보다 더 강력하다.
- C. ‘하나님의 불의 인(印)’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에 부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말한다(롬 5:5). ‘인’은 성령님과 교제에 있어 ‘현재 진행형의 경험’을 말한다.

¹³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엡 1:13)

IV. 주의 임재를 초청하며 예수님을 인같이 마음에 품자.

- A. 예수님은 신부에게 “나를 인같이 네 마음에 품으라”고 말씀하신다. ‘모든 것을 소멸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도록 부르짖으라고 권고하신다. ‘예수님을 인같이 마음에 품으라’는 것은, 주님의 불같은 임재를 초청하여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인쳐주시기를 바라는 갈급함을 소유하라는 의미다. 이 사랑을 위해 우리는 주님을 초청해야 한다. 주님은 자원적 사랑의 관계를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심령안에 주님을 초청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 B. 학문중심적 주석들 중에는 이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어 명사들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는 책들도 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신부를 인같이 주님의 마음에 품어 불같은 사랑으로 신부를 사랑하게 해 달라고 하는 해석은 사실 신빙성이 떨어진다. 예수님은 이미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탁한다고 해서 주의 사랑이 향상되는 게 아니다).

³ 나 여호와가 ...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로 (렘 31:3)

- C.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와 친밀한 동역을 바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할을 하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는 주님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또는, ‘새 사람’을 입음으로 예수님을 인같이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롬 13:14)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
심을 받는 자니라 (골 3:10)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엡 4:24)

V.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사랑의 상급

- A. 인간만이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신다. 삶에서 성령의 역사에 협력하며 주님께 자원적으로 드리는 사랑, 이것이 주님께는 귀한 선물이다. 이것 또한, 신부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일어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이다.
- B. 진실한 사랑의 최고 상급은 바로 ‘더 깊이 사랑하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다. ‘사랑의 부자들’은 (희생의) 가격표를 보지 않는다. 누구나 다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포기의 길을 가로 막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백성들을 세우고 계신다.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찌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 8:7)

- C. 바울은 모든 대가를 치르는 사랑을 말한 바 있다. 그는 자신에게 열려있던 ‘세상적 성공의 문들’을 모두 내려 놓았었다.
- ⁸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 3:8)
- D. 성령님은 현재,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랑 예수님’과 ‘첫계명’에 헌신된 교회를 세우는 데에 초점을 둔 사역들을 온 땅에 세우고 계신다. 이들은 “신랑(예수)의 친구들”의 역할을 하면서 주님의 ‘신부’(교회)를 준비시키는 사역을 하게 된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요 3:29)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계 19:7)

VI. 사랑으로 승리하는 마지막 때 교회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시험)에서 올라 오는(승리의)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 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아 8:5)

신부는 ‘사랑’과 ‘감사’로 권능을 입고, ‘사랑하는 자’인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다. 교회는 사랑으로 승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인류 역사를 마감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 ‘광야’같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시험과, 유혹, 고난을 이겨내며 승리하게 될 거라고 성령님은 마지막 때 ‘신부의 승리’를 선포하고 예언하신다.

짐승(적그리스도)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사랑으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계 15:2)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엡 5:27)

24장

신부의 마지막 중보기도와 계시 (아 8:8-14) (The Bride's Final Intercession and Revelation)

I. 아가서 8:8-14 개관

- A. 아가서는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불로 충만한 ‘신부’가 되는 성장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제 신부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실히 드러낸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신부와 같은 계시와 확신, 그리고 헌신적인 순종으로 살 때만이 영적으로 ‘살아 있게’ 된다. 이제, 신부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 중보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아 8:8-9)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게 된다(아 8:14).
- B. 아 8:8-9에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향한 신부의 ‘열정’과 ‘중보’를 보게 된다.
- C. 아 8:10 에서, 우리는 신부의 확신, 즉, 하나님이 신부를 어떻게 보시는 지에 대한 계시를 볼 수 있다(아 8:10). 신부의 확신 3 가지는 성벽(희생적 동기), 망대 (타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초자연적 능력), 화평을 얻은 자(마음의 장벽이 허물어짐)와 같다. 신부는 주님 앞에 사는 것을 기뻐한다. ‘신부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를 누리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 D. 아 8:11 에서, 신부는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감’에 대한 계시를 갖게 된다.
- E. 아 8:12 에서, 신부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
- F. 아 8:13 에서, 예수님은 신부에게 ‘마지막 위임’을 부여하신다.
- G. 아 8:14 에서, 신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긴박함’으로 중보한다.

II. 교회를 향한 신부의 열정과 중보 (아 8:8-9)

⁸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일뿐대 우리는 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뿐대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아 8:8-9)

- A. ‘사랑의 인’으로 갱신되고 흘러 넘치는 사랑의 심령을 소유하게 된 신부는(아 8:6-7), 그리스도 안에 아직 ‘유아’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인지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게 된다.

- B. 신부는 예수님께 “‘우리’에게 작은 누이가 있어요”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신부가 예수님과 밀접하게 동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부는 “‘내가’ 내 누이를 위해 무엇을 할꼬”라는 단수형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바로, 효과적인 예수님과 동역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아 1:4 에 나오는 첫번째 신부의 기도는 “우리가 함께 달려가리라”라는 복수형을 취하고 있다. ‘우리’가 달려가는 모든 사역은 복수형인 것이다. 잃어버린 자들과 미숙한 자들을 돕기위해, 우리는 주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해야 한다.
- C. 작은 누이에게 도움이 필요함을 신부가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성령님이 신부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제, 신부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작은 누이’를 바라본다. 주님은 ‘작은 누이’들에게도 마음이 빼앗기셨으며(아 4:9), 이들의 얼굴을 보고,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신다(아 2:14). 이제 신부는 예수님과 함께 ‘성숙한 동역’을 하며 살게 된다.
- D. 스스로는 더 깊은 영성을 좇으면서도, 작은 누이를 잊지 않는다. 신부에게는 ‘미숙한 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작은’ 누이는 ‘작은’ 믿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쉽게 낙망하는 자들이다. 작은 누이는 ‘압력’을 받으면 견디지 못하고 쉽게 포기해 버린다. 예루살렘의 여자들도 작은 누이와 같은 영적 상태에 있던 자들이다.
- E. 작은 누이에게는 아직 유방이 없다. 작은 누이에게 주님의 말씀의 젖(고전 3:1-2)으로 다른 이들을 먹이고,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다는 것을 뜻한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교제하지만, 자신의 문제와 필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을 돌 볼 여유가 없다. 그래서, 자신에게만 초점을 두는 ‘영적 유아’로 남아 있게 된다. 신부는 작은 누이를 보며 비난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작은 누이의 성장을 도와준다.
- F. 신부는 작은 누이에 관하여 주님께 상담과 도움을 요청한다. 신부는 이렇게 중보한다, “우리가 그(우리의 누이)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요? 누이가 성숙하게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 G. 신부는 미숙한 자들을 보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아 6:11; 7:11).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과도 같다(살전 2:11). 신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도록 그들을 돕지 않고서는 주님 안에 만족하지 못한다.
- H. 1983년 여름에, 난 삶이 180도 뒤바뀌게 되는 ‘주님과의 만남’을 체험하게 되었다. 당시, 나는 내 자신의 영적 성장에만 초점을 두며 살고 있었다. 나만을 위한 기도와 말씀의 계시의 성장을 구했으며,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려는 부담을 내게 주거나 방해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는 주님께 불평을 늘어 놓기 시작한 적이 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당시 500명의 교인)을 돌보고 싶지 않다고 고백했다. 순간, 주님은 여1:2 을 통해 내게 강력하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²...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 1:2)

- I.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유업의 땅으로 인도하라고 명하셨다. 성령님은 내게 강한 어조로 물으셨다, “이 땅에 거룩한 성도 한명 보다 주님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질문에 난 고민하는 가운데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자, 주님은 내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주의 백성 전체이다”라고. 그리고 나서, 성령님은 내게 여1:2 말씀을 주시면서, “나는 너뿐만 아니라, 유업의 땅을 물려받을 내 백성 모두를 원한다.” 이 구절은 내 심령에 화살 같이 꽂혀 버리게 되었다.
- J. 미숙한 자였던 나는 나 혼자만 거룩하게 되는 것에 신경썼던 것이다. 하지만, 성숙해지면서, 주님은 내게, “네 형제들은 어디 있느냐? 네 작은 누이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기 시작하셨다. 사람의 영적 성숙을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징표중의 하나는, 성숙한 자는 타인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돌본다는 것이다. 신부의 마음에는 “우리의 작은 누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깊이 뿌리박혀 있다.
- K. 신부는 “칭혼함을 받는 날에” 모두가 주님앞에 서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칭혼함을 받는 날’은 혼인 날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신부가 예수님과 동역에 ‘성숙해진 시기’를 말한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좇는자들에게는, 깊고 성숙한 동역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칭혼’의 날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앞에 서는 날 ‘칭혼’이 일어난다.
- L. 예수님과 동역하는 신부는 어떻게 하면 작은 누이를 성숙해 지도록 도울 수 있는지를 질문한다. 그러나,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은혜로 예수님과 동역하면서, 다른 이들을 돌보는 책임감을 놓쳐 버린다.
- M. 신부는 주님 앞에서 두 종류의 부르심을 붙들고, 작은 누이를 위해 중보한다.
9 그가 성벽일편대 우리는 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편대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아 8:9)
- N. 만일, 작은 누이가 영적 ‘성벽’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신부와 주님은 그 위에 ‘은 망대’를 세울 것이다. 성벽은 도시의 방어벽이며, 분계선의 역할을 한다. “성벽 사역”은 원수로 부터 주의 백성을 보호하는 ‘목회적’ 사역, 또는, 하나님의 ‘영적 표준(기준)을 높이는’ 사역으로, 백성들이 ‘유업의 땅’을 물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준의 ‘거룩함의 분계선(경계선)’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
- O. 아 8:10 에서, 신부는 자신의 사역을 ‘성벽 사역’이라 말한다. 이 사역은 사람들을 원수의 공격으로 부터 보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표준’을 제시해 준다. 물론, 여기에는 부담감과 외부의 압력이 작용한다. 원수가 영적으로 어린 자들을 겨냥하여 화살을 쏘며 공격할 때, 성벽이 그 화살들을 가로막아 주기 때문이다.

- P. 만일, 작은 누이가 영적 ‘문’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신부와 주님은 누이를 ‘감싸게’ 될 것이다. 문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입구다. ‘문의 사역’은 중보자, 전도자, 교사, 또는, 사도로서, 사람들에게 ‘은혜’와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중보자들은 사람들에게 기회 문을 열어준다. 전도자들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 교사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더 깊이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 사도들은 그 지역에 문을 열어 하나님 안에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다.
- ³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 (골 4:3)
- Q. 작은 누이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 따라 성벽이든, 문이든 하나를 고르게 될 것이며, 주님과 신부는 누이의 부르심에 맞게 효과적으로 도와주게 될 것이다. 다시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누이 삶의 부르심에 따라, 주님과 신부는 누이가 효과적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이를 돕게 될 것이다.
- R. 신부는 예수님께 말한다, “우리는 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요새의 망대는 탑 꼭대기에 세워져 활사수가 돌사이의 빈 공간을 이용해 활을 쏘던 곳이다. 그는 화살을 쏘고나서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해 망대벽 뒤에 몸을 감춘다. 망대는, 과수꾼이 적을 감시하고 화살을 쏘는 장소로 그 성(도시)을 방어하고 사수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 ⁹그가 성벽일전대 우리는 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전대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아 8:9)
- S. ‘망대’는 적으로 부터의 안보를 제공해 주는 사역을 말한다. ‘은’은 ‘구속’을 말한다. 은 망대는 존재하지 않았다. 망대들은 보통 돌로 만들어 졌기 때문이다. ‘은 망대’는 사람들이 구속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말한다.
- T. 작은 누이의 삶에 중보자, 전도자, 교사와 같은 부르심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그를 두르리라”라고 신부가 기도한다.
- U. 백향목 판자는 믿을 만하고, 강도가 뛰어나면서도 향기를 가진 값비싼 목재였다. 성막에서, 나무는 ‘인류’를 상징했다. 광대한 레바논의 백향목은 가장 향기롭고, 강도와 내구성이 뛰어난, 값비싼 건축 자재였다. 예수님은 레바논의 백향목이시다(아 3:9). ‘복음의 병거(마차)’는 레바논의 백향목, 즉,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 지어졌다. 백향목 판자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향기롭듯,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한다. 주의 임재가 거한 처소였던 솔로몬의 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졌다(왕상 4:33; 5:6).
- V. ‘레바논의 백향목 판자로 두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임재를 입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부터 보내심을 받은 ‘백향목’이신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
-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롬 13:14)

W. 신부는, “우리는 ... 그(누이)를 두르리라”라고 기도했다. 작은 누이가 하나님의 성품과 임재로 덮혀질 때까지 예수님과 신부는 누이를 도울 것이다.

III. 신부의 확신: 신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 (아 8:10)

¹⁰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아 8:10)

- A. 온전한 신부의 정체성에는 확신을 주는 세가지 계시가 포함되어 있다. 신부는 자신의 ‘영성의 깊이’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드물지만, 교회안에 강력한 실재다.
- B. 신부는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보호 성벽’으로 자신을 바라본다. 신부는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며, 사람들을 보호하는 도구로 살게 된다. 신부의 시간과 정력, 물질과 꿈은 하나님 안에 이 ‘고귀한 목적’을 섬기는데 매여 있다. 바울도 사람들을 보호하는 ‘성벽’으로 자신을 바라보았다(살전 2:7-12; 갈 2:11-14).
- C. 아가서에 나오는 ‘유방’은 영적으로 어린 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망대같은 유방’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말한다. 신부의 사역은 풍성하다. 그래서,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젖의 망대’와 같다. 아가서에 신부가 ‘망대’로 비유된 본문은 모두 세번 나온다(아 4:4; 7:4; 8:10).
- D. 신부는 자신의 ‘효과적인’ 사역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신부의 유방이 ‘포도송이’와 같을 것을 위임하셨다(아 7:8). 신부는 사람들을 돕기위해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다. 바울, 세례요한, 다윗, 사무엘, 모세도 이와같은 확신을 갖고 살았다.
- E. 바울은 자신에 대해 기술하면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담대한 고백 하나를 남겼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 받는 자 되라” (고전 11:1; 고후1:12, 15).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겸손함과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섬겼기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자신이 깨끗하다고 말한 바 있다(행 20:18-37).
- F. 하늘로 올리우기 전에, 에녹은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간증한 바 있다(히 11:5).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눅 3:16)라고 고백했으며, 모세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신이 더 ‘겸손한 자’라고 자랑했다(민 12:3). 사무엘은 사역의 종지부를 찍으면서 ‘어려서 부터 그 날까지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으며, 열방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고 선포했다(삼상 12:1-5, 23).
- G. 신부의 이러한 확신은 (교만이 아닌) 오직 계시를 통해 오며, 자신의 마음을 깊은 감사로 채우게 된다. 신부는 사역과 성숙함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신부에게 직접 확증해 주셨기 때문이다. 신부는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증거해 주는 분이 신부안에 거하고 계신다(히 11:5).

- H. 신부는 삶에 화평(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이 지켜 보는 앞에서 사는,’ 즉, ‘한 분의 청중(Audience of One)’ 앞에 사는 부르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살 때, 신부의 삶에 많은 ‘감정의 방해물’들은 사라지게 된다.
- I. 주님이 보는 앞에 사는 것을 신부는 기뻐한다. ‘신부’의 정체성은, 주님의 사랑 안에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위를 누리고 살 수 있게 도와준다.
- J. 이 확신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주는 강력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죄책감과 두려움, 자기 불신과 혼동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정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지를 한 번 생각해 보라. 신부의 심령 안에 있는 ‘불같은 사랑의 인’은 이러한 확신과 순수한 동기들을 창출해 낸다(아 8:6).
- K.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했어도, 바울은 평강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전 4:3-5). 50년 간의 사역을 다 마친 후,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섬겼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지 한 번 생각해 보라!
- L. 신부는 자신이 예수님과 동역하며 살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평강을 누리게 된다. 우리의 삶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계시는 심오한 것이다.

IV. 하나님 앞에 갖게 된 책임감에 대한 계시(아 8:11)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일천을 바치게 하였구나(아 8:11)”

- A. 주님 앞에 살게 될 때, 우리는 맡겨진 책임과 동시에 영원한 상급을 알게 된다(고전 3:11-15; 고후 5:10; 롬 14:12-14).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거둔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상급’의 계시를 얻은 신부는, 매일의 삶 가운데 가장 작은 순종도 존귀하게, 또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
- B. 솔로몬 왕은 ‘지키는 자’에게 자신의 포도원을 맡긴다. 아가서에서, 솔로몬 왕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며, 예수님의 포도원은 ‘주님의 백성들’을 말한다(사 5:1-7).
- C. ‘바알하몬’에 있는 예수님의 포도원은 지난 역사동안 역동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바알하몬’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데, 그 단어의 뜻은 “인구가 많은 곳”으로 번역될 수도 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원의 문자적 의미는 “무리의 아버지”다. 어떤 성경 번역본들은 그 단어를 도시로 번역하지 않고, 문자적 의미로 해석했다. 왕이신 예수님은 ‘바알하몬’에 모든 열매와 족속까지 미칠 수 있는 거대한 ‘포도원’(하나님의 백성들)을 갖고 계신다(마 24:14; 계 7:9).

- D. 왕이신 예수님은 포도원을 신부에게 맡기(위임하)셨다. 신부가 주님을 위해 그 포도원을 지키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포도원을 맡기신다는 것은, 이 시대에 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
- E. 아 8:11-12 은, 마 21:33-44 에 포도원을 심고, 망대를 세워,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로 간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인용한 것이다(마 21:33). 우리는 현재 주님이 “먼 나라”에 가 계신 시기에 살고 있다.
- F. 주님은 포도원을 가꾸는 책임을 ‘지키는 자들’에게 위임하셨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님의 포도원을 지키는 ‘청지기의 역할’이 주어져 있다. 충성스런 청지기가 되기 위해, 교회나 사역단체의 공식적인 업무나 지위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먼저, 주위 사람들을 섬기면서 출발하라.
- G. 신부는, “모든 사람”이 맡겨진 부르심에 대한 열매를 그 날에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눅 12:31- 48).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 포도원을 잘 가꾸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주님은, 특별한 은사나 (성공의) 기회가 아닌, 우리의 ‘신실함’의 정도에 따라 상급을 주신다.
- H. 주님은 ‘지키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터 ‘충만한(은전한) 열매’를 기대하신다. 각 사람은 ‘은 일천’을 가져와야 한다. “일천”은 충만함을 말하는 완전한 숫자로, 각 사람에게 위임된 만큼 하나님이 구하시는 충만함을 말한다. 이사야에 언급된 은 일천은 포도원의 충만한 가치를 의미한다.

23 그 날에는 천 주에 은 일천 개의 가치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질려와 형극이 날 것이라 (사 7:23)

V.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에 확신을 갖게되는 신부 (아 8:12)

12 솔로몬 너는 일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이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아 8:12)

- A. 신부의 포도원은 앞에 있다. 다시말해, 신부는 예수님이 맡기신 책임에 대해 열매를 거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은 신부의 ‘은밀한 삶’과, ‘사역의 부르심’ 모두를 포함한다. 신부는 여정 초반에 자신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 지키게 된다(아 1:6).
- B. 신부는 아 8:11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신 ‘은 일천’을 소유하실 수 있다고 선포하면서, 주님이 기대하신 모든 열매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 에녹은 율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를 받았다. 이와 같은 확신으로, 신부는 하나님께 고백한다, “나는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며 살았습니다”(아 8:10).

에녹은 ... 율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 11:5)

C. “열매를 지키는” 자들, 즉, 신부의 동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신부가 거둔 열매의 기업의 일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신부는 인정한다. 신부는 사람들과 팀 사역을 하며 사명을 감당했다. 팀 동료들은 영원토록 신부의 상급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은이백’은 신부의 동역자들이 마지막 날에 받게 될 ‘상급의 몫’을 말한다.

D.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해 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는 열매가 그들의 몫이라고 격려해 주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빌 4:17)

E. 요약: 신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 “나는 성벽이며, 망대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립니다. 이제 주님께 제가 거둔 열매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요청하신 ‘은일천’을 드려왔기 때문입니다.”

VI. 신부에게 맡겨지는 최종적 위임 (아 8:13)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8:13)

A. 신부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교회를 훌륭하게 섬기는 신부를 칭찬하신다. 예수님은 “너 동산에 거한 자야”라고 신부를 부르시는 데, 이것은, 이기적으로 자신을 고립하지 않고, ‘하나님의 동산’에 거하며 주의 백성을 잘 섬기는 신부의 모습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다. 신부는 포기하지 않는다. ‘동산들’(복수형)은, 아 6:2에 나오는 ‘향기로운 풀밭’처럼, 주님의 교회의 ‘많은 지체들’을 가리킨다.

B. 신부의 계속되인 신임과 영향력은 끝까지 나타난다. 신부의 섬김을 받는 동무들이 여전히 신부에게 귀기울여 열심히 듣는 것을 예수님이 확증해 주시고, 동무들이 신부의 삶에 있는 ‘성숙의 깊이’를 명백히 보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전히 신부안에 있는 하나님의 실재를 보고 느끼며, 신부로부터 공급받는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아 5:9; 6:1, 13에서 신부의 ‘목소리’를 듣기 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신부의 말에 여전히 귀를 기울인다.

C. 예수님도 신부의 음성을 여전히 듣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예배와 중보로 신부를 초청하신다. 미숙할 때에도 신부의 음성은 주님께 달콤했다(아 2:14). 이제 주님이 사랑하는 동역자로 주님과 성숙한 연합을 이루며 사는 신부의 음성은 얼마나 더 달콤할까!

D.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음성을 다음의 네가지를 통해 듣기 원하신다.

1. 예배 -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을 영원토록 듣기 원하신다.
2. 중보 -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중보한다(히 7:25).
3. 가르침 - 서로에게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격려한다(마 28:19-20; 골 1:28).

4. 전도 -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E. 그러나, 원수는 우리의 음성을 소멸하려 한다.

VII.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간박하게 증보하는 신부 (아 8:14)

¹⁴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8:14)

A. 신부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권고에 즉시 순종하는 신부는 예수님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증보한다. 예수님과 속히 함께 있기를 바라는 신부의 열망이다. 여기서 신부는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끝까지 신부에게 힘을 주기 때문이다.

B. 아 2:8, 17에서 예수님은 산들을 정복하며 넘어오는 ‘노루와 어린 사슴’으로 나오셨다. 장애물의 산들을 모두 정복하며 넘어오는 재빠른 노루와 어린 사슴과 같이, 예수님이 이 시대의 모든 장애물들을 신속히 정복하는 ‘승리의 왕’으로 오시기를 신부는 간구한다.

C. 신부는 3 가지 기도를 드린다. ‘친밀감’을 위해 예수님이 자신에게 가까이 임하시기를, 자신의 도시에 ‘부흥’을 위해 임하시기를,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 ‘재림’하시기를 기도한다. 마지막 때 교회는 이 세가지의 증보기도를 하게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계 22:17, 20)

1. 친밀감을 위해 우리에게 가까이 오소서 (하나님 안에서의 개인적인 돌파구)

2. 부흥을 위해 우리에게 오소서 (지역이나 나라의 부흥을 통한 영적인 돌파구)

3. 우리를 위해 재림하소서(오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역사적인 돌파구)

D. 역사상 처음으로, 전세계의 교회는 성령님과 역동적인 연합을 통해, 놀라운 성령의 권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E. 예수님의 임재를 증보하는 신부의 두가지 기도 (돌파구)

1. 예배 -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를 향한 사랑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2. 증보기도 -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부흥의 권능을 풀어주소서.”

F. 이차원적 증보기도: 위로는 하나님께, 바깥으로는 사람들에게 (10억의 새 영혼 추수)

-
1. 수직적 - 예수님께서 돌과구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라고 부름 (우리 가까이/우리에게/우리를 위해)
 2. 수평적 - 신랑이요, 왕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사람들을 부름
- G. 우리는 믿는 자들(부흥, 제자훈련)과 불신자들(전도) 모두를 불러, 그들이 ‘신랑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초청해야 한다. 주님의 교회는 수직과 수평 방향으로 “부르게 될” 것이다. 먼저, 예수님을 부르며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라고 중보할 것이며, 둘째로, 목마른 자들을 불러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할 것이다.
- H. 하나님의 보좌와 신부가 거할 처소는 ‘거룩한 향기’를 발산하는 ‘광활한 산’과 같다.
¹⁴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아 8:14)
- I. 신부는 ‘새 예루살렘’을 ‘향기로운 산들’로 묘사한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뛰어난 향기”(아 1:12; 4:10, 14)를 지닌 백합화(아 2:1)며, 주님의 교회 전체는 “향기로운 동산”이다(아 4:16, 5:1, 6:2).